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비임상 청소년
집단의 성찰기능척도 개발 연구

Development of a Reflective Functioning
Questionnaire for Non-Clinical Adolescents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울산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안현숙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비임상 청소년
집단의 성찰기능척도 개발 연구

지도교수 최현주

이 논문을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8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안현숙

안현숙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박 종 덕 (인)



심사위원 정 종 원 (인)



심사위원 김 병 직 (인)



심사위원 조 수 현 (인)



심사위원 최 현 주 (인)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4년 8월



목 차

국문 개요	v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II. 이론적 배경	7
1. 정신화와 성찰기능	7
가. 정신화의 의미와 유사개념	7
나. 정신화의 발달과 청소년의 정신화	13
다. 정신화(성찰기능) 측정도구	16
1) 정신화(성찰기능) 측정도구 선행연구	16
2) 성찰기능질문지(RFQ)에서의 한계점	22
3) 성찰기능척도의 하위요인	25
2. 성찰기능척도의 변별요인	26
가. 경계선 성격성향	26
나. 마음챙김	28
3. 성찰기능 관련요인	29
가. 부모애착	29
나.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31
다. 학교생활적응	32

Ⅲ.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 개발 및 타당화	34
1.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 개발	34
2.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 타당화	41
Ⅳ.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비임상군 청소년 성찰능력 유형분류 및 관련요인탐색	55
Ⅴ. 논의 및 제언	68
참고 문헌	78
부록	98
ABSTRACT	110

표 목 차

<표 II-1> 정신화(성찰기능) 측정도구 개발 선행연구	16
<표 II-2> 성찰기능척도의 구성요소	26
<표 III-1> 성찰기능척도 예비문항	35
<표 III-2> 전체 연구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7
<표 III-3>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연구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37	37
<표 III-4>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9
<표 III-5>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연구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42	42
<표 III-6> 정적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PANAS) 문항구성과 신뢰도 ··· 43	43
<표 III-7> SCL-47(대인예민증, 편집증)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43
<표 III-8> 마음챙김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44
<표 III-9> 학교생활적응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45
<표 III-10> 경계선 성격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45
<표 III-11>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의 기술통계량	46
<표 III-12>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의 모형적합도	47
<표 III-13>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 각 변인에 대한 회귀추정값	48
<표 III-14>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의 신뢰도	51
<표 III-15>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의 하위 요인별 상관	52
<표 III-16>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	53
<표 III-17>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의 공준타당도	54
<표 IV-1> 연구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56
<표 IV-2> 부모애착 문항구성과 신뢰도	57
<표 IV-3> 주요변인 기술통계	59
<표 IV-4> 주요변인 상관분석	60
<표 IV-5>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적합도 비교	61
<표 IV-6> 집단별 잠재평균 추정치 및 F검증결과	63
<표 IV-7> 프로파일별 관련변인들(정적정서, 부정정서, 부모애착, 학교생활적응)과의 차이	67

그림 목 차

[그림 Ⅲ-1] 스크리도표	39
[그림 Ⅲ-2]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50
[그림 IV-1] 잠재프로파일 개수(k)에 따른 정보적합도 지수	62
[그림 IV-2] 잠재프로파일 그래프	63

국문 개요

정신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상담에 활용하기 위한 정신화 프로그램 등이 연구되고, 정신화 능력의 다각적인 평가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신화는 다양한 측면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차원의 개념으로, Fonagy와 동료연구자들은 정신화를 측정함에 있어 성찰기능이라는 용어를 조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원저자들의 뜻을 따라 성찰기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Fonagy 등(2016)의 연구에서 성찰기능은 정신상태의 불확실성과 확실성이라는 성찰기능의 실패를 나타내는 2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성찰기능의 복잡하고 다차원적 측면들을 포괄하여 측정하기 위해서는 ‘성찰기능의 실패’뿐만 아니라 ‘성찰기능의 성공(진정한 정신화하기)’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박민경(2019)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성찰기능을 성찰기능의 실패에 해당하는 정신상태의 불확실성과 확실성의 2가지 하위요인에 진정한 성찰하기에 해당하는 정신상태에 대한 관심/호기심요인을 추가하여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확실성요인은 임상군 집단에서 부적응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임상군 청소년집단에서는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적응적으로 혹은 부적응적으로도 기능할 수 있어 이를 경험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범위한 비임상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찰기능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14~24세까지의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하였다. 이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법의 청소년 연령 범위를 고려하여 청소년의 범위를 중학생 및 고등학생,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는 대학생까지를 포함하여 선정한 것이다. 그리고 개발된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의 3가지 하위요인과 경계선성격성향 및 마음챙김의 2가지 하위요인을 추가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확실성요인의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고,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성찰 능력을 식별하는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분류된 잠재집단의 특성파악을 위하여 정적 정서, 부적 정서, 부모애착, 학교생활적응과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성찰기능척도개발 및 타당화를 위하여 선행연구검토 및 문헌고찰, 전문가의 2차 내용평정을 거쳐 총36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3요인(확실성, 불확실성, 관심/호기심), 34문항으로 재정리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적합도 지수는 $\chi^2=919.522$, TLI=.902, CFI=.910, RMSEA=.050, SRMR=.63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측정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는 수렴 및 변별타당도, 공존타당도 결과를 통하여 타당한 도구로 판명되었다. 수렴 및 변별타당도 결과 불확실성요인은 부적정서($r=.59$, $p<.01$), 대인예민증($r=.57$, $p<.01$), 편집증($r=.54$, $p<.01$)과 다소 높은 정적상관, 마음챙김($r=-.29$, $p<.01$), 학교생활적응($r=-.28$, $p<.01$)과 부적상관으로 나타났다. 확실성요인은 마음챙김($r=.30$, $p<.01$)과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관심/호기심 요인은 마음챙김($r=.41$, $p<.01$), 학교생활적응($r=.24$, $p<.01$)과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 공존타당도 결과 불확실성요인이 경계선 성격특성($r=.581$, $p<.01$)과 다소 높은 정적 상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onagy와 동료연구자들의 연구에서 확실성요인은 임상군을 대상으로 하여 성찰기능의 실패를 측정하기 위한 구인으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선행연구결과 확실성요인은 정신화 곤란(MZQ)과의 관련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박민경, 2019), 정신화의 성공에 해당하는 자기 및 타인성찰 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박세미, 정남운, 2019).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미루어보아 확실성요인이 비임상군집단에서 성찰기능의 적응적 측면을 나타내는지 부적응적 측면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확실성 요인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성찰기능의 3요인과 경계선 성격성향 및 마음챙김의 2가지 하위요인을 추가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결과 확실성요인은 비임상군 청소년집단에서 적응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비임상군 청소년들의 성찰기능수준에 따른 잠재집단은 ‘Class 1(무감각 고립집단)’, ‘Class 2(순응적 적응집단)’, ‘Class 3(확신적 적응집단)’, ‘Class 4(불확실 혼란집단)’, ‘Class 5(잠재적 불안정집단)’, ‘Class 6(불안정 조절집단)’의 총6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이들 6개 집단 중에서 불안정 조절집단, 불확실 혼란집단, 잠재적 불안정집단, 무감각 고립집단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분류된 6개 잠재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적 정서, 부적 정서, 부모 애착, 학교생활적응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4가지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정신화와 성찰기능척도에 대한 연구 및 활용가능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성찰 기능의 결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각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초연결사회로의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Schwab, 2016). 온라인 미디어 소통의 증가는 타인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게도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정보를 이용하는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나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게 함으로써 집단간·세대간 소통의 단절 및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온라인 미디어 소통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타인과 눈을 마주치거나 몸짓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비언어적 측면의 소통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점차 줄어들 수 있다(이창덕, 2019).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비대면 소통에 대한 보완 및 개인화에 따른 부작용의 완화를 위하여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성희, 김희동, 2022). 대인관계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의미있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해나가며, 삶에 적응해 가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의사소통은 사람들 간에 언어적·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상호간의 느낌, 감정, 생각, 의견, 태도 등을 표현할 수 있게 해 주고(최은정, 2020), 일상에서 접촉하게 되는 환경과 사람에 대해 느끼고 이해하며 상호작용하는 삶의 한 과정으로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고,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이준형, 2014; 이황은, 2009).

원활한 대인관계와 적응적 의사소통의 기저에는 자신과 타인의 경험을 이해하고 정서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화(Mentalization)가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신화와 의사소통과의 관계는 최근 연구되기 시작한 것으로 정신화가 의사소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긍정적 의사소통을 촉진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정광호, 2023). 정신화란 개인이 자신의 욕구, 소망, 느낌(정서), 이유, 신념 등을 기초로 하여 자기나 타인의 행동에 의미를 두고 해석하는 정신활동으로(Bateman & Fonagy, 2004; 이수림, 이문희, 2018),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행동 이면에 있는 마음에 집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정신화 능력은 선천적인 것으로, 자폐를 제외한 이들 모두가 거울뉴런시스템(mirror neuron system)을 통해 자기와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Allen, 2013, 문혜리, 김명찬, 2022). 반면 정신화 능력의 성장은 발달적으로 습득되는 것으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나 돌봄의 질과 같은 애착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심리·사회적 적응과 보

다 긴밀한 관련이 있다(문혜리, 김명찬, 2022). 정신화는 행동을 의도적인 정신 상태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신체적·심리적으로 타인의 마음상태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에서 사회적이다(Bateman & Fonagy, 2006). 정신화는 Fonagy(1991)에 의해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자폐증에서 관찰되는 ‘마음읽기 실패’를 임상군 집단인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에게 적용한 것으로(Choi-Kain & Gunderson, 2008), 정신화 능력의 손상은 경계선 성격장애 이외에도 우울증, 물질중독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 섭식장애, 공황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정신장애와 관련된다(Bouchard, Target, Lecours, Fonagy, Tremblay, Schachter, & Stein, 2008; Bateman & Fonagy, 2012; Taubner, White, Zimmermann, Fonagy, & Nolte, 2013; 최현아, 송현주, 2017). 또한 정신화 능력은 위기상황에서 심리적인 보호요인(이수림, 이문희, 2014) 및 심리치료의 변화 메커니즘으로(김홍주, 2020) 작용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정신화 연구의 최근 움직임은 정신화 손상에 따른 임상적 관련성 외에도 정신화를 건강증진자원으로 개념화하는 비임상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확장되고 있다(Fonagy, Luyten, & Bateman, 2017; Luyten, Campbell, Allison, & Fonagy, 2020).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이들은 부모와 사회의 돌봄을 받으며 성장하고 성인기로의 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사회적 자립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성인이 된다(이미리, 조성연, 길은배, 김민, 2014). 하지만 최근 수십년간 이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준비기간이 늘어나고, 취업 및 결혼 연령이 늦어지게 되면서 청소년기가 연장되고 있다(Larson, 2002). 미국의 심리학자인 Arnett(2013)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의 연령 구간에 해당하는 연장된 청소년시기를 일컬어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라고 지칭하였다. 성인진입기는 자기, 일, 관계에 대한 정체성을 탐색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불확실성, 불안정성, 혼란감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소년기는 사회적 행동이 증가하고, 집단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해지며, 확장된 사회적 관계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 발달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또래안에서의 긍정적 관계 경험은 청소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최연실, 최혜진, 안연주, 2011). 이러한 시기 자신 및 타인의 마음상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신화 능력은 심리 사회적 적응과 보다 긴밀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능력의 부족은 청소년 시기 부적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정신화 능력은 부정적 애착경험이 활성화되는 관계적 맥락이나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경우 손상되기 쉬운데, 청소년들의 경우 가벼운 대인관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러한 능력이

감소되기 쉽다. 특히 코로나시기 청소년들은 장기간 '사회적 관계의 단절' 및 '관계의 결핍'을 경험하며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코로나 시대 이전과 비교하여 한국 청소년들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정서적 불안 및 자기조절의 어려움 등을 부정적 경험으로 지적하였다(조상현, 2023).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2021)가 수행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응답이 47.3%를 차지하였다. “(정신건강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더 건강해졌다”에 전체의 45.7%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46.4%에 이르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코로나19 발생전후 친한 친구와 친구, 지인과의 대면 소통 빈도에 대한 지각 및 소통만족감 및 관계친밀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다운, 정성은, 장혜정, 2022).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국민 18.5%는 불안 21.6%, 우울 10.9%,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 학회, 2022). 이와 같은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신화는 청소년들의 감정조절 및 적응적 대처행동을 가능하게 하고(Schwarzer, Nolte, Fonagy, & Gingelmaier, 2021; Schwarzer, Nolte, Fonagy, & Gingelmaier, 2022), 곤경에 대처하기 위한 회복탄력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trein, 2006).

최근 국내에서도 정신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상담에 활용하기 위한 정신화 프로그램 등이 연구되고 있으며(문수진, 오소영, 이원혜, 홍민하, 민정원, 김봉석, 황준원, 우이혁, 반건호, 2012; 이수림, 이문희, 2018), 정신화 능력의 평가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신화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연구를 선도해 가고 있는 Fonagy와 동료연구자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신 상태를 자각하는 정신화 능력 자체에 초점을 맞춘 자기보고식 성찰기능질문지(Reflective Functioning Questionnaire: RFQ)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이들은 '성찰기능(reflective functioning)'이라는 용어를 '정신화'에 대한 조작적 정의로 사용하였다. '정신화'는 다양한 측면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차원의 개념이며(이수림, 이문희, 2014), 마음 이론, 정서인지와 같은 다양한 사회인지기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이론적 개념으로 발달 이론 및 신경과학적 문헌에서 자주 사용된다(Ha, Sharp, Ensink, Fonagy, & Cirino, 2013; 김홍주, 김은영, 2018). '성찰 기능'은 애착 관계 안에서 자기와 타인의 마음을 반영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전통적인 정신역동문헌과 더욱 관련이 깊다(문혜리, 김명찬, 2022). 차혜명(2018)의 연구는 Fonagy 등(2016)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성찰기능질문지(Reflective Functioning Questionnaire: RFQ)를 한국형으로 번안 및 타당화하여 국내 정신화 연구를 임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데 큰 의의가 있다. 성찰기능질문지(RFQ)는 성찰 기능의 실패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신상태의 불확실성(이하 불확실성)과 정신상태의 확실성(이후 확실성)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확실성은 ‘성찰 기능의 결핍(hypomentalyzing)’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리 내적인 현실과 외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사고가 즉시적이고 구체적이며 경직되어 있어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확실성은 ‘성찰 기능의 과다(hypermetyalyzing)’에 해당하고 자신과 타인이 보여주는 사회적 단서에 대하여, 보통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복잡한 추론을 하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Sharp & Sieswerda, 2013), 자기 스스로는 성찰 기능이 뛰어나다고 인식할 수 있다(Fonagy, Luyten, Moulton-Perkins, Lee, 2016).

성찰기능질문지(RFQ)와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들에서는 확실성요인의 특성에 대한 모호함, 채점방식의 한계점들이 발견되었다(김홍주·김은영, 2018; 박민경, 2019; 박민경, 송현주, 2018; 차혜명, 2018). 우선 불확실성요인은 일관적으로 성찰 기능의 실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확실성요인은 상이한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박민경(2019)의 연구에서 확실성요인은 경계선적 성격특성, 자기애성 성격특성, 우울 및 불안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확실성요인이 정신화의 실패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음의 선행연구들에서 확실성요인은 정신화의 적응적 측면과 관련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차혜명(2018)과 김홍주, 김은영(2018)의 연구에서 확실성은 공감, 마음 챙김과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 박민경, 송현주(2018)의 연구에서도 확실성은 정신화의 곤란(실패)를 측정하는 정신화 질문지(MZQ)총점 및 각 하위척도에서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박세미, 정남운(2019)의 연구에서도 정신화(심리화) 실패에 속하는 타인의 마음에 대한 확신 요인이 정신화(심리화)의 성공에 해당하는 자기 및 타인 성찰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나 앞의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확실성을 성찰 기능의 실패로 간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채점방식과 관련하여 김홍주, 김은영(2018), 차혜명(2018)의 연구는 성찰기능질문지(RFQ)의 Fonagy식 채점방식의 한계를 제시하며 정신화의 다양한 차원을 보다 잘 포착하기 위해서는 채점방식 및 점수해석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박세미, 정남운(2019)의 연구는 정신화(심리화) 하위 요인의 합산 총점을 통하여 정신화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데, 확실성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확실성점수를 그대로 합산할지 역코딩하여 적용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한계점들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Fonagy 등(2016)

이 개발한 성찰기능질문지(RFQ)에 근거하여 성찰기능척도를 다시 개발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Duval 등(2018)이 개발한 최신의 성찰 기능척도를 타당화한 박민경(2019)의 연구를 근거로 성찰기능을 성찰 기능 실패에 해당하는 ‘정신상태의 불확실성’ 및 ‘타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확실성’의 2가지 하위요인과 진정한 성찰 기능에 해당하는 ‘타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관심/호기심(이후 관심/호기심)’의 1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한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광범위한 비임상군 청소년들의 성찰 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중·고생뿐만 아니라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는 대학생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 활용의 확장측면에서 경계선성격성향 및 마음챙김의 2가지 하위요인을 추가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성찰기능의 3가지 하위요인 중 확실성요인의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고, 비임상군 청소년들의 성찰 능력을 식별하는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최근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실시한 선행연구들이 소개되고 있다(박재서, 김아란, 이다인, 신성만, 2022; 안성식, 2019; 조미형, 고아라, 최하영, 2023; Hubbard, Smith, & Rubin, 2013; Robin, Rafaële, Marie-Louise, & Nenck, 2019; Neumann, Salekin, Commerce, Charles, Barry, Mendez, & Hare, 2023).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은 사람중심의 통계적 접근 방식으로 응답자의 응답 패턴에 따라 집단 혹은 범주를 분류하고 각 응답자가 각 집단에 속할 확률을 제공한다. 각 집단을 설명하는 하위 요인에 대한 응답 구성(configuration)에 따라 할당되는 집단이 달라지며, 이를 통해 분명한 할당의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추정된 모델의 할당 확률을 통해 스크리닝된 개인을 분류할 수 있으므로 평가 목적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조미형 외, 2023; Lange, Geiser, Wiedl, & Schöttke, 2012).

성찰기능척도의 3가지 하위요인은 그 자체로 다차원적이며, 특히 비임상군 청소년 집단에서 주의깊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선행연구결과 모호한 특성을 나타냈던 확실성 요인을 경험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찰기능의 3가지 하위요인과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2개 변인인 경계선적 성격성향과 마음챙김을 보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계선적 성격성향의 경우 성찰기능척도의 하위요인 중 확실성요인의 부적응적 측면과 불확실성요인이 관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찰기능척도의 확실성 요인은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적응적으로 기능할 수도, 부적응적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적응적으로 기능하는 경우 대인관계에서 불안을 증폭시키거나 다소 파괴적인 행동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성찰기능의 실패에 해당하는 불확

실성요인의 특성에 해당하는 심리적 혼란 및 불안정성 역시 경계선적 성격성향과 맞닿아 있는 속성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찰기능척도의 하위요인 중 확실성의 부적응적 측면 및 불확실성요인과 연결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계선적 성격성향을 구성요인으로 추가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음챙김의 경우 성찰기능척도의 하위요인과 관련하여 확실성요인의 적응적 측면과 관심/호기심요인이 연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실성요인이 적응적으로 기능하는 경우 타인 행동 이면의 동기, 의도, 느낌 등을 상상함으로써 타인의 마음을 짐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성찰기능에 해당하는 관심/호기심요인의 속성에 해당하는 타인의 이면에 있는 마음상태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은 마음챙김(김교현, 2008)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찰기능척도의 하위요인 중 확실성요인의 적응적 측면 및 관심/호기심 요인과 연결될 것으로 예측되는 마음챙김을 잠재프로파일 구성요인으로 추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상에서 분류된 잠재프로파일집단별 부모애착, 정적/부적정서, 학교생활적응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성찰 기능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각 집단별 맞춤형 상담적 개입 방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문제

- 가.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 기능 척도의 구성 요인 및 측정 문항은 무엇인가?
- 나. 성찰기능척도의 세 하위요인과 경계선성격성향, 마음챙김으로 구성된 잠재프로파일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 다. 분류된 잠재프로파일집단별 부모애착, 정적/부적정서, 학교생활적응과의 차이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정신화와 성찰기능

가. 정신화의 의미와 유사개념

정신화(Mentalization)란 Fonagy(1991)에 의해 처음 제안된 개념으로 개인의 충동, 감정, 신념, 바람과 같은 지향적인(intentional) 정신상태를 기초로 하여 자신과 타인의 감정 상태 및 행동을 암묵적이고(implicitly) 명시적으로(explicitly) 이해하고 예측하는 해석과정이다(Bateman & Fonagy, 2004). 이는 인간 행동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상상적 정신활동을 포함하며(Fonagy & Luyten, 2009), 정신 상태의 인식과 더불어 정신 상태를 정확하고 의미있는 방식으로 행동과 연결시키는 능력이다(Slade, 2005). 또한 정신화는 세상에 대한 자기의 경험을 조정하고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상위인지능력이라 할 수 있다(강민진, 이지연, 2022). 이를 한국 문화에 적용한다면 자신의 행동 이면에 있는 본심(속마음)을 이해하고, ‘눈치’를 통해 타인의 속마음을 읽는 기술 및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김홍주, 박민주, 차혜명, 김은영, 2020).

정신화는 상상적이고 전 의식적인 활동으로 양쪽 극단이 상호작용하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다(Allen, Fonagy, & Bateman, 2008). 이를 Fonagy와 Luyten은 극성(polarities)을 가진 4가지의 차원으로 구체화하였다(Fonagy, Bateman, & Luyten, 2012; 김홍주, 2018). 첫째, 정신화의 대상에 관한 ‘자기지향(self-oriented) 정신화’와 ‘타인지향(other-oriented) 정신화’의 차원이다. 이는 경험에 대한 인지가 자신의 정신상태인지 아니면 타인의 정신 상태를 인지를 구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자기의 내적 경험을 인식할 때 자신에게 초점화 되어 있고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공감할 때에는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게 된다. 건강한 정신화는 자기의 마음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타인의 마음상태에 집중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것을 필요로 한다. 둘째, 정신화의 자동적(automatic)과정과 통제된(controlled)과정 간의 차이를 언급하는 ‘암묵적(implicit) 정신화’와 ‘명시적(explicit) 정신화’의 차원이다. 암묵적 정신화는 비언어적이고 주의집중과 자각 등의 노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으며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반면 명시적 정신화는 언어와 성찰 등의 노력이 요구되며 의식적이고 해석적인 활동을 요구한다. 높은 수준의 정신화 능력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암묵적 정신화와 명시적 정신화 사이에 전

환(switch)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Bateman & Fonagy, 2012). 셋째, 정신화의 사고과정과 감정과정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인지적(cognitive) 정신화’와 ‘정서적(affective) 정신화’의 차원이다. 인지적 정신화는 사고의 표상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파악한 현실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주관적인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Fonagy, Gergely, & Jurist, 2002; 김홍주, 2018). 정서적 정신화는 정서를 인식하고 처리하고 표현하는 일종의 정서조절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건강한 정신화능력은 인지적·정서적 정신화 과정의 통합(Bateman & Fonagy, 2013)을 필요로 하며, 인지적 정신화와 정서적 정신화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신병리로도 이어질 수 있다. 대개 사람들은 정서적 정신화에 압도되어 인지적 지식을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으며, 일부의 경우 인지적 정신화에만 치중함으로써 ‘정서적 핵심’에 접촉하지 않은 채로 정신상태에 대해 이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Fonagy et al., 2012; 김홍주, 2020). 넷째, 정신화 초점의 대상에 관한 ‘내부초점(internally focused) 정신화’와 ‘외부초점(externally focused) 정신화’의 차원이다. 이는 정신화 초점의 대상이 내적 특성에서 비롯되는지 아니면 외적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와 관련되어 있다. 내부초점 정신화는 자신 또는 타인의 욕구, 감정, 사고와 같은 내적 상태에 집중하여 정신화를 하게 된다. 외부초점 정신화는 자신 또는 타인의 얼굴 표정이나 행동과 같은 외적 특성을 토대로 정신화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초기에 애착외상을 경험한 개인은 심리내적 경험과 외부 현실 간의 연관성에 대한 자각을 잃게 되어 주관적 경험과 외적 현실이 분리된 것처럼 느낄 수 있다(Fonagy & Target, 2000).

이처럼 정신화는 단일한 특성이 아닌 다양한 측면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이수림, 이문화, 2014), 그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차원에서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때 정신화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문혜리, 김명찬, 2022). 정신화 능력의 발달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차원적 요소들이 상호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어 일관성 있는 전체로 통합되는 것이 필요하다(Fonagy et al., 2012).

다차원적이고 역동적 특성을 지닌 정신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이론, 애착이론, 정신분석, 신경과학적 접근의 이론적 토대에 기반한 정신화의 기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마음 이론은 타인의 의도와 믿음, 생각을 적절히 추론하여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능력으로(Wellman, 1992; 이가연, 신나나, 2020),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능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자폐증환자의 경우 마음 읽기 손상이 나타나며, 이는 사회적 행동 및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장애를 초래한다(Baron-Cohen Leslie &

Frith, 1985; 장현주, 임나영, 2022). 정신화는 자폐증에서 관찰되는 타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지각의 결핍을 경계선 환자의 ‘마음읽기 실패’에 적용한 것으로, 마음 이론은 정신화의 개념적 틀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Choi-Kain & Genderson, 2008; 차혜명, 2018). 경계선 성격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서조절과 대인관계에서의 일관된 불안정성이다(Fonagy, 1991; 김홍주 등, 2020). 이들은 정신증에 비해 온전한 현실검증력을 가지고 있으나, 자기와 타인에 대한 과편화된 지각을 보인다(Kernberg, 1967). 이들이 나타내는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좌절, 타인의 생각이나 의도에 대한 오인과 왜곡, 이에 따른 급격한 감정변화와 충동적인 행동 등의 징후는 이들이 과연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김홍주 등, 2020). Fonagy와 Target(1996)은 경계선성격장애(BPD)를 반복적이고 장기화된 관계적 외상에 대한 애착 반응으로 설명하고 있다. 애착 관계는 자아의 감정 인식 및 조절 상태가 중요한 타인에게 전해지고, 그에 따른 타인의 반응적 인식과 조절 상태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 양식이 학습되는 토대가 된다(차혜명, 김은영, 2016). 하지만 관계적 외상에 의한 불안정애착이나 장기화된 학대경험등과 같은 환경적 조건은 애착관계의 형성 자체를 교란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감정을 조절하며 자신의 경험을 일관된 형태로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이렇듯 타인과의 상호작용 수반성(contingency)의 교란은 단순한 반응이나 대상 상실을 넘어 외부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차혜명, 김은영, 2016).

둘째, 애착이론은 현실 어머니와 유아 간의 애착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Bowlby, 1969). 현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유아의 애착 행동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적응적 이점으로 인해 선택된 진화론적 필요에 의한 것이다. 생득적인 애착 관계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안식처이며 탐험을 위한 안전기지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여 유아의 신체적·정서적 생존과 발달에 도움을 준다(김홍주 등, 2020). 애착의 목표는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양육자와의 물리적 근접성으로부터 양육자의 지속적인 가용성에 대한 확인으로 확대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현실 어머니(대상)가 실제로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라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유아가 지각하는 근접성(proximity)의 느낌, 언제든 어머니가 도움을 줄 것이라 느끼는 평가(appraisal)가 더욱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다양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경험적 이론을 추구하였던 애착 이론의 기본 가정에 기반하여 정신화는 양육자와의 초기 애착경험 안에서 발달해가는 것으로, 양육자나 가까운 타인의 마음상태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하여 습득된다고 보고하였다(Fonagy & Target, 1997). 또한 애착 이론의 경험적 성과물인 사회적 바이오피드백(social biofeedback)을 통한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에 대한

연구는 정신화 개념을 신경학적으로 입증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Fornagy, 2001; Gergely & Watwon, 1996). 사회적 바이오피드백이론에 따르면 유아는 양육자에게 본능적으로 자신의 역동적인 정서변화를 행동으로 전달하고, 양육자는 유아의 정서적 상태를 ‘티나게 반영(marked mirroring)’함으로써 유아의 마음상태에 대한 알아차림과 함께 생리·정서적 조절 상태가 다양한 소통적 신호에 의해 유아와 양육자 사이에 교환된다. 이러한 유아와 양육자와의 안정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대인관계양식이 습득되고 정서 조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정신화의 경험적 근거로 이해할 수 있다(Fonagy, 2001; 김홍주, 2020).

셋째, 정신역동은 무의식의 발견을 시작으로 개인내적세계와 주관적 경험에 대해 오랫동안 주목하였으며, 현실의 어머니보다 유아의 환상과 무의식, 파편화된 기억 속에 존재하는 어머니의 영향이 더욱 결정적임을 강조하였다(김홍주 등, 2020). 그렇다면 과연 현실의 어머니와 표상으로서의 어머니는 정말 무관한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앞에서 살펴본 애착이론과 정신역동이론 사이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실과 표상 속 대상은 완전히 동일하지도 않지만 결코 서로 무관하지도 않을 것이다. 애착이론가인 Bowlby가 경험적 대상으로서의 실제 어머니와 유아라고 하는 분리된 두 ‘객체’로서의 관계에 우선 주목하였다면, 정신역동은 유아의 내적 세계에 지각된 어머니라고 하는 분리되지 않은 대상표상으로서의 대상관계라는 개념을 통하여 행위 주체(agency)와 대상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더하여 대상관계론의 입장에서 경계선적 성격장애를 연구했던 Fonagy와 동료연구자들은 이후 애착과 발달연구의 경험적 결과를 수용하여 정신화 이론의 지향성 개념을 발전시켜나간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너머’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대상이 아니며 오직 지향성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행위주체의 내적 상태를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주체의 내적 상태에 근거한 자신과 타자에 대한 정신상태는 완전한 확실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오류와 왜곡을 동반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지향성 개념에 비추어 정신화는 인간 상상의 특수한 부분으로 정의되며(Bateman & Fonagy, 2019), 오류와 왜곡을 동반하는 인식의 영역에서 탐구적이고 성찰적인 자세가 필연적으로 요청될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김홍주 등, 2020).

넷째, 신경생물학적 접근과 관련하여 Fonagy(2001)는 정서적 경험에 대한 감정 학습과 감정 및 행동의 조절이 유아와 실제 양육자와의 상호 작용과 애착 관계에서 발달된다는 점에 관심을 가졌다. 애착 대상에 대한 근접성추구는 유아의 친화 욕구(affiliative motivation)와 양육자의 돌봄 간의 상호작용으로 연결되며, 이는 뇌의 도파민 체계(dopaminergic systems)와 옥시토신 체계(oxytocinergic systems)의

교류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onagy, Luyten, & Stratheran, 2011). 애착과 관련하여 뇌의 선조체 영역(striatal regions), 피질하 영역(subcortical regions)의 편도체와 해마, 신피질 영역 네트워크(a network of neocortical areas)의 전측 대상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 내측 전전두피질(medial prefrontal cortex),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ex)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흥주 등, 2020; 차혜명, 김은영, 2016). 이러한 영역은 감정 및 사회적 행위의 토대가 되며, 위기를 감지하고,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며, 적절한 사회적 행위를 실행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Fonagy, Luyten, & Strathearn, 2011). 또한 경계선성격의 신경학적 기제에 대한 연구에서 초기 애착 외상은 생리학적 각성에 관여함으로써 신경기제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애착 외상은 각성 체계의 촉발을 야기하는 후부 대뇌피질(posterior cortex)을 과잉활성화시키는 반면 의식적 활동의 조절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전두엽을 비활성화 상태로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차혜명, 김은영, 2016; Arnsten, 1998). 이러한 전두엽기능의 비(과소)활성화는 정신화에 수반되는 감정, 행동조절, 메타사고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차혜명, 김은영, 2016). 정신화는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신화에 다양한 뇌 영역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신경생물학적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Allen, 2020). Fonagy와 Luyten(2009)은 정신화의 역동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8개의 극성을 가진 밀접한 시스템의 작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는 최근 인지신경과학 연구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지지되고 있다(Luytne & Fonagy, 2015). 첫째, 자기지향 정신화와 타인지향 정신화의 차원에서 타인의 감정이나 의도에 대한 인식없이 즉시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경험하는 종류의 공명은 전두두정 시스템의 거울 뉴런 시스템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자신과 타인을 정신화할 때 뇌의 구조적 측면이 뚜렷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공통의 회로가 사용됨을 의미한다(Dimaggio, Lysaker, Carcione, & Nicolò, 2008; 이정하, 김지원, 하현주, 2022). 이에 따라 경험에 대한 자기 표상을 타인 표상과 분리하는 데 실패하게 되면 대인 관계 안에서 자기감을 잃을 수도 있다. 둘째, 암묵적 정신화와 명시적 정신화의 차원에서 암묵적 정신화는 편도체(amygdala), 기저핵(basal ganglion), 복내측 전전두피질(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 배전측 대상피질(dorsal anterior cingulate cortex) 등의 신경회로가 관여하여 비언어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명시적 정신화는 뇌의 내측 전전두피질(medial prefrontal cortex), 외측 전전두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내측 두정엽(medial parietal lobe), 외측 두정엽(dorsolateral parietal lobe), 내측 두피질(medial parietal lobe) 등이 관여하여 해석적이고 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인

지적 정신화와 정서적 정신화의 차원에서 인지적 정신화는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의 여러 영역들을 포함하지만, 정서적 정신화는 복내측 전전두엽(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인지적 조망수용 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은 신경심리학적 구조가 다르고 발달 순서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분하여 이해하여야 한다(Fonagy et al., 2002; Fonagy et al., 2012). 넷째, 내적·외적 차원에서 내적 정신화는 내측 전두-두정엽 네트워크에서 외적 정신화는 외측 전두-측두-두정엽 네트워크등이 관여한다. 이처럼 정신화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은 뇌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역동 속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성공적인 정신화란 각각의 차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일관성있는 전체로 통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Fonagy et al., 2012).

이와 같이 정신화 개념은 경계선 성격의 마음 이론에 대한 탐색으로부터 출발하여 애착 이론의 근본인 실제 어머니와 유아 간의 이자 관계라고 하는 하나의 축에 정신분석이 강조하는 개인내적세계와 표상의 발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축을 접목시켰다(강민진, 이지연, 2022; 차혜명, 김은영, 2016). 이에 더하여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확대된 영아와 신경과학분야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능력에 대한 경험적·과학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는 애착과 정신화에 대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정신화의 발달과정을 풍요롭게 설명하며 정신화 중심치료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김홍주 등, 2020).

정신화는 마음이론, 마음챙김, 공감, 메타인지 등의 개념과 유사한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주의깊게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신화는 기존의 유사 개념들에 비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으로 기존 개념들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거나, 의미가 축소되어 전달될 수 있으므로 정신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이수림, 이문희, 2014).

첫째, ‘마음이론’은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감정, 신념, 욕망 등과 같은 정신상태를 기초로 하여 인지적이고 명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Wallin, 2010; 김홍주 외, 2020; 한은주, 최경숙, 2008). 이는 자신보다 타인이 생각한 바를 추론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의 발달적 측면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타인지향적이고 인지적이라는 점에서 정신화와 구별된다. ‘정신화’는 이러한 마음 이론의 개념에 더하여 암묵적, 정서 조절적, 관계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특성을 지닌다(Wallin, 2010; 이수림, 이문희, 2014).

둘째,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경험을 어떠한 판단도 없이 주의 집중하고 의도적으로 몸과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김정호, 2004). 이는 현재 자기가 경험하는 인지적·정서적 마음 상태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자기지향적이고 명시적이라는 점에서 정신화와 구분된다. ‘정신화’는 자기와 타인의 정신 상태 모두에 주의를 기울여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마음챙김에서 중시하는 심리적 처리과정에서의 민감성에 더하여 사회 관계적인 측면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Allen, 2013; 문혜리, 김명찬, 2022; 이수진, 김은석, 2021).

셋째, ‘공감’은 타인의 정서와 사고를 이해하고 적절한 정서로 상대방에게 반응하는 것으로(문혜리, 김명찬, 2022),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이나 느낌, 감정을 명시적이고 암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Davis, 1983). 이는 자신보다 타인지향적이며(Fonagy & Bateman, 2006), 인지적 측면을 포함하나 보다 정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화와 구분된다. ‘정신화’는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심을 가진다. 공감과 정신화 모두 타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으나 공감이 정신화보다 암묵적인 모드에 가깝고, 보다 더 정서에 초점을 두고 있다(Choi-Kain & Gunderson, 2008; 이수림, 이문희, 2014).

넷째, 메타인지(Metacognition)란 개인이 자신의 인지를 평가, 점검 및 통제하는 인지적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인지 과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흔히 인지에 대한 인지(cognition about cognition), 사고에 대한 사고(thinking about thinking)라고도 지칭한다(Jacobs & Paris, 1987). 이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인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정신화와 구별된다. 정신화는 관계적 맥락 안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해 비슷한 관심을 가지며 인지와 정서 모두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홍주, 2020; 반건호, 2013).

나. 정신화의 발달과 청소년의 정신화

정신화 능력은 선천적이나, 정신화의 발달은 주양육자 돌봄의 질에 달려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onagy et al., 2002). 양육자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반응을 토대로 하여 유아는 자기 경험에 대한 반영적 표상을 내면화함으로써 건강한 내적표상을 발달시킨다(Gergely & Watson, 1996). 이러한 발달적 획득 개념은 애착 이론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정신화 능력의 발달은 주의집중, 정서 조절의 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연령별로 변해가는 유아의 감각, 사회인지기능적 특성의 발달과 맥을 같이한다(박세미, 2016). Fonagy와 Target(1996)은 정신화 이전 단계에 대하여 아동의 내적 현실과 지각되는 경험양식을 목적론적 모드

(Teleological Mode), 정신적 동등모드(Psychological Equivalence Mode), 가장모드(Pretend Mode)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Bateman & Fonagy, 2012; Fonagy & Target, 1996; 차혜명, 2018). 먼저 목적론적 모드에서는 정서나 욕구와 같은 정신 상태가 행동으로 표현된다. 발달적으로 8~9개월 경에 유아들은 행동과 그 결과를 구분 가능하게 되고, 자기와 타인이 각자의 목적이 있으며 행동은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한다. 목적론적 모드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느낌, 소망, 믿음과 맞아 떨어지는 어떠한 실질적 행동이 확인될 때에만 마음상태를 사실이라고 지각한다(Bateman & Fonagy, 2012; 박세미, 정남운, 2019; 이정하 등, 2022; 차혜명, 김은영, 2016). 둘째, 정신적 동등모드는 2~3세의 발달과정에 있는 유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신의 환상이나 꿈을 현실과 같은 것으로 인식한다. 이들에게 있어 느낌(마음)과 세상은 같은 것으로 심리내적세계와 외부 현실을 같은 것으로 여긴다. 자신과 타인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대신 융합적 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내적 세계의 주관적 경험과 외부 세계의 객관적 현실을 같은 것으로 지각한다(차혜명, 2018). 이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확신한다. 경험을 해석하고 창조하는 주체로서의 나(I)는 없고, 경험의 대상이 되는 객체로서의 나(me)만 존재하는 상태이다(Fonagy & Target, 1997). 셋째, 가장모드는 2~3세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지만 정신적 동등모드와는 반대로 자신의 내적 세계와 외부 현실이 분명히 나뉘어진다. 이 시기 아이들은 표상 능력의 출현으로 인하여 현실과 완전히 분리된 채 다양한 관점으로 놀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놀이를 통해 표상적·상징적 처리과정을 연습하고 완수하게 된다. 가장 모드는 ‘~인척하는’ 가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내부 세계와 외부 현실 사이에 안정적인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적 세계와 외적 현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가장모드는 암묵적 정신화와 명시적 정신화가 기능적으로 통합되기 전까지는 실제와 연결되지 않는다. 이 양식에서도 정신적 동등모드에서와 같이 경험을 해석하거나 창조하는 주체로서의 자기는 억눌려 있다. 상상하는 것은 무엇이든 실제로 느껴지고, 무시하는 것은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이정하 등, 2022). 이러한 과정의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4세 무렵 정신화(성찰적)모드로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Fonagy에 의하면 이러한 양식들은 발달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드러난다고 하였다(Wallin, 2010). 이로써 정신 내적 세계와 외부 경험세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도 동일하지도 않으며, 분리되어 있으면서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정신화 모드의 출현과 함께 아이들은 심리내적 현실과 외부 현실 간의 관계를 암묵적이고 명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Fonagy et al., 2002). 이와 같이 처음 유아들은 심리적 등가성의 세계에 살 수 밖에 없지만, 가장하기양

식을 통해 일종의 자유를 찾게 되며 놀이를 통해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 이러한 정상적 발달 과정을 통하여 성찰적 양식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신화가 진행되고 나서도 정신적 동등모드와 가장모드, 목적·목론 모드는 지속될 수 있으며, 성인들도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정신화가 붕괴될 수 있으며 이들 중 한가지 모드로 퇴행하거나 전환될 수 있다(반건호, 2013; 이정하 외, 2022).

청소년기는 정신화 능력이 결정적으로 발달해가는 시기이므로 중요하다(Blakemore & Mills, 2014; Mills, Lalonde, Clasen, Giedd, & Blakemore, 2014; 김홍주, 김은영, 2018). 유·아동기의 정신화가 초기 양육자와의 상호역동적인 애착 관계를 중심으로 발달하는 데 비해(Fonagy et al., 2018), 청소년기는 애착 대상이 부모에서 또래로 바뀌게 되면서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 경험이 또래나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경험을 통하여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작용할 수 있다(김홍주, 2020; 문혜리, 김명찬, 2022). 최근 뇌 연구에 의하면 뇌의 전전두피질은 20대 중반까지도 완전히 재구조화되고 발달되지 않아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는 후기 청소년들도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고 통제하거나 논리적·계획적·목적지향적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들은 때때로 성숙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지 못하며,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Smith-Adcock, & Tucker, 2017)

정신화 능력의 부재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유발하고 정신 병리를 초래할 수 있다(Slade, 2005). 초기 불안정 애착 관계로 인하여 정신화가 억제된(inhibited) 아이들은 타인의 행동을 느낌이나 감정, 생각, 동기와 같은 정신적 의도와 연관지어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여 정서조절, 충동조절, 공감과 같은 적절한 사회적 대처 방안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김홍주, 2020). 이로 인해 외현화된 문제행동이나 행동장애(Hill, Murray, Leidecker, & Sharp, 2008)를 겪을 수 있고, 청소년 우울(Murri, Ferrigno, Penati, Muzio, Piccinini, & Innamorati, 2017)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정신화 능력은 내적·외적 현실의 구분, 인과적 정신상태의 표현, 타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추론, 정서·행동 경험의 조절에 관여함으로써 원활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도움을 주고, 곤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회복탄력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울이나 자해, 공격행동과 같은 정서·행동문제의 보호 요인으로도 작용하며(Rossouw & Fonagy, 2012; Taubner & Curth, 2013), 박민경과 송현주(2018)의 연구에서 성찰기능 확실성 척

도는 비자살적 자해를 시도한 청소년집단과 경험한 적 없는 청소년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기를 거쳐 발달해가는 정신화는 청소년기에 더욱 중요하며, 성인기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핵심요소로 간주된다 (Braehler & Schwannauer, 2012).

다. 정신화(성찰기능) 측정도구

1) 정신화(성찰기능) 측정도구 선행연구

정신화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Fonagy와 동료연구자들은 정신화 능력의 기저에 존재하는 심리적 과정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성찰기능이란 용어를 조작적 구성개념으로하여 성찰기능척도를 개발하였다(Fonagy, Target, Steele & Steele, 1998). 정신화의 역동적이고 다차원적 특성으로 인해 초기 성찰 기능의 평가는 면접방식을 활용한 RFS(Reflective Functioning Scale)척도로 이루어졌다. 이후 면접방식의 제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성찰기능척도인 RFQ(Reflective Functioning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다. 이를 국내 연구자들이 다양한 버전의 한국판 성찰기능척도로 개발 및 타당화하는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김홍주, 김은영, 2018; 박민경, 송현주, 2018, 박민경, 2019; 차혜명, 2018).

한편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정신화 실패(곤란)나 다차원적 구성 요인과 같은 정신화 내용들을 구성개념으로 한 정신화 척도의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1> 정신화(성찰기능) 측정도구 개발 선행연구

구분	척도명	개발 연도	개발자	측정목적	채점 방식	하위요인
			측정대상			
Fonagy와 동료연구자들이 개발한 성찰기능 측정도구	RFS (Reflective Functioning Scale)	1998	Fonagy et al.	면접방식을 활용한 성찰 기능측정	면접방식	
	일반 성인					
	RFQ (Reflective Functioning Questionnaire)	2016	Fonagy et al.	자기보고식 성찰기능척도(RFQ) 개발	포나기식 채점방식 ¹⁾	확실성, 불확실성
	임상집단					
한국형 성찰기능 척도	2018	차혜명	성찰기능질문지(RFQ)를 대학생을 대상으로 12문항으로 번안 및 타당화	포나기식 채점방식 ²⁾	확실성, 불확실성	
대학생						
한국판 청소년 성찰기능	2018	김홍주, 김은영	성찰기능질문지(RFQ)를 한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포나기식 채점방식 ³⁾	확실성, 불확실성	

	척도		중1~고2	12문항으로 번안 및 타당화		
	한국청소년대상 성찰기능 일차선별 질문지	2018	박민경, 송현주	성찰기능질문지(RFQ)를 한국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축형 8문항으로 번안 및 타당화	포나기식 채점방식 ⁴⁾	확실성, 불확실성
			중2~고2			
	RFQY	2018	Duval et al.	청소년용 성찰기능질문 지(RFQY) 개발 및 타당 화	리커트식 채점	확실성, 불확실성, 관심/호기심
			14~21세			
	청소년성찰기능 척도 (RFQY)	2019	박민경	Duval 등(2018)의 청소년 용성찰기능질문지 (RFQY)를 번안 및 타당 화	리커트식 채점	확실성, 불확실성, 관심/호기심
			만13~21세 (중,고,대학생)			
정신화 내용에 바탕을 둔 정신화 측정도구	MZQ (Mentalization Questionnaire)	2012	Hausberg et al.	임상가 및 자기보고식 평가를 포함한 임상군환 자들의 정신화 곤란을 평가	리커트식 채점방식	자기성찰거부, 감정자각, 정신동등모드, 정서조절
			임상군환자			
	자기보고식 심리화 척도	2016	박세미	MZQ를 보완하고 RFS매 뉴얼을 활용한 자기보고 식 심리화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리커트식 채점방식	경직된 사고, 타인 마음에 대한 확신, 정서자각실패, 자기 및 타인성찰
			대학생 및 성인			
	정신화질문지 (MZQ)	2017	송현주, 최현아	MZQ를 번안 및 타당화	리커트식 채점방식	자기성찰거부, 감정자각, 정신동등모드, 정서조절
			인문계고1~고2			
정신화척도 (The Mentalization Scale: Ments)	2018	이수림, 이문희	Dimitrijević 등(2017)의 Ments를 번안 및 타당화	리커트식 채점방식	타인에 대한 정신화, 자신에 대한 정신화, 정신화 동기	
		대학생 및 일반인				
CSMSQ (the Certainty About Mental States Questionnaire)	2023	Müller et al.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 여 정신상태에 대한 확 실성척도를 개발함	정신화프로 파일 확인방식	Self-Certainty, Other-Certainty	

- 1) 참여자들이 7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한 것을 3,2,1,0,0,0,0 혹은 0,0,0,0,1,2,3으로 변환하여 다시 채점하여 확실성, 불확실성 척도를 구성함
- 2) 1)과 동일함
- 3) 8개 문항의 6점 리커트척도 중 4개의 동일한 문항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나 나머지 2개의 문항을 포함하여 서로 반대방향으로 채점하여 각각 6개 문항의 확실성, 불확실성 문항으로 채점하여 척도를 구성함
- 4) 1)과 동일함

가) Fonagy와 동료연구자들이 개발한 성찰기능 측정도구

정신화는 변하지 않는 특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애착 관계나 각성 및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에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되는 역동적 성격을 지닌다(Allen, Fonagy, Bateman, 2008). 이로 인해 초기 정신화 측정은 주로 치료자들의 면접을 통해 이뤄졌으며, 특히 Fonagy 등(1998)이 개발한 면접식 정신화 측정도구인 성찰기능척도(RFS)가 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면접 평가 방식에 따른 여러 제한점으로 인하여 Fonagy 등(2016)은 자기보고식 성찰기능척도(RFQ)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1) 면접평가를 기반으로 한 초기 성찰기능 측정도구(RFS)

초기 성찰기능의 측정은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 George, Kaplan, & Main, 1985)을 기반으로 한 성찰기능척도(Reflective Functioning Scale: RFS, Fonagy, Target, Steele, & Steele, 1998)이다. 성인애착면접(AAI)은 애착과 관련된 인생사에 대한 인터뷰로 2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며 평균 1시간 정도 소요된다(Hesse, 2008; Main, Hesse & Goldwyn, 2008). 내담자들은 과거 양육자로부터 받았던 위협과 거부의 느낌,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상실감들을 묘사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자신의 내적 발달에 끼친 장기간의 영향을 진술하게 된다. Fonagy와 동료연구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찰적 태도가 내담자들의 애착 유형 및 적응 기능을 예측할 수 있으며, 양육자의 애착유형과 무관하게 자신과 타인의 마음상태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유아가 안정애착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김홍주 외, 2020; Fonagy, Steele, & Steele, 1991). 이러한 성찰기능척도(RFS)는 관계적 맥락에서의 성찰기능을 자세히 평가할 수 있는 이상적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례수가 적고, 임상 집단에 편중되어 있어 결과 해석 및 일반화에 제한적이었다(Katznelson, 2014). 또한 검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들며 고도로 숙련된 채점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나타내었다.

(2) 자기보고식 성찰기능척도(RFQ)

Fonagy 등(2016)은 성찰기능의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면서 실시와 채점이 간편한 척도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자기보고식 성찰기능 질문지

(Reflective Functioning Questionnaire: RFQ)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성찰기능 질문지(RFQ)는 정신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 about mental states: RFQ_u)과 정신 상태에 대한 확실성(Certainty about mental states: RFQ_c)의 2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서 양극단에 있는 점수는 정신화결핍(hypomentalization: 성찰기능 저하)과 정신화과다(hypermementalization: 과도한 정신화, 의사정신화)를 평정한다. 정신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RFQ_u)은 외부 현실과 심리 내적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과 타인의 정신 상태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사고의 결핍 및 경직성을 나타내는 정신화결핍과 관련된 요인을 의미한다. 정신 상태에 대한 확실성(RFQ_c)은 타인들이 보이는 사회적 단서에 대해 일반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고 복잡하게 추론하는 정신화과다와 관련되며, 이들은 스스로 정신화를 아주 잘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Sharp & Sieswerda, 2013). 두 요인 모두 정신화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하며 정신화 능력이 부족할 때 편향된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양극단이 아닌 중간 정도의 점수에 동의하는 것은 정신 상태에 대한 불투명함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정신화 하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onagy와 동료연구자들이 개발한 성찰기능척도(RFQ)를 국내 연구자들이 변안 및 타당화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가) 차혜명(2018)의 한국형 성찰기능척도(KRFQ)

차혜명(2018)은 26문항으로 이루어진 성찰기능질문지(RFQ)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형 성찰기능척도(KRFQ)로 변안 및 타당화하여 원척도와 동일한 ‘정신상태에 대한 확실성(이하 확실성)’과 ‘정신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이하 불확실성)’의 2요인, 12문항으로 타당화하여 국내 임상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RFQ의 평가는 한 문항에 대해 확실성과 불확실성을 나누어, 확실성(3,2,1,0,0,0,0)과 불확실성(0,0,0,0,1,2,3)의 형식으로 변환하여 점수를 채코딩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으며, 차혜명(2018)은 이러한 채점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차혜명(2018)의 연구에서 확실성요인은 공감 및 마음챙김과 유의한 정적 상관, 우울과 유의한 부적상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확실성요인은 초기방임, 유기도식, 경계선 성격성향 척도와 어떠한 상관관계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유기도식과 경계선 성격성향요인 모두에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아 이들 두 요인이 형성되는데 확실성요인은 어떠한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차혜명(2018)은 확실성요인과 성찰기능실패와의 관련성에 대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나) 김홍주와 김은영(2016)의 한국판 청소년성찰기능척도

김홍주와 김은영(2018)은 26문항으로 이루어진 성찰기능질문지(RFQ)를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2요인, 12문항으로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이들은 불확실성 척도가 확실성 척도에 비하여 불안, 우울, 문제행동 등의 관련척도들과 뚜렷한 상관을 보였으며, 확실성 척도는 문제행동 척도들과 대체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확실성요인의 경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점수채점과 관련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다) 박민경과 송현주(2018)의 한국 청소년용 성찰기능 일차선별질문지(RFQY)

박민경과 송현주(2018)는 8문항으로 이루어진 단축형 청소년용 성찰기능 질문지(Reflective Function Questionnaire for Youth: RFQY)를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여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2요인, 8문항으로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서 확실성요인은 정서조절 곤란 척도의 총점 및 하위요인, 정신화 곤란 척도(MZQ)의 총점 및 하위요인 모두에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비자살적 자해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라) 박민경(2019)의 청소년용 성찰기능질문지(RFQY)

성찰기능질문지(RFQ)는 성찰기능의 실패라는 단일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진정한 정신화의 측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Fonagy 그룹의 Duval 등(2018)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찰기능질문지(RFQY)에 성찰기능의 실패에 해당하는 정신상태에 대한 불확실성/혼란(Uncertainty/confusion about mental states), 타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과도한 확실성(Excessive certainty about mental states of other)의 2가지 하위요인, 진정한 정신화의 측면을 반영하는 정신상태에 대한 관심/호기심(Interest/Curiosity in mental states)의 1가지 하위요인을 추가하여 총 3가지 하위 요인, 25문항으로 구성된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를 박민경(2019)이 만14~21세에 해당하는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번안 및 타당화하여 원척도와 동일한 3요인 구조, 총20문항으로 개발 및 타당화하였다.

박민경(2019)의 연구에서 확실성요인은 정신화 곤란과는 상관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계선적 성격특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자기애성 성격특성과 낮은 정도의 정적 상관, 우울 및 불안과 낮은 정도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확실성요인

이 정신화의 실패를 반영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나) 정신화 내용에 바탕을 둔 정신화 측정도구

(1) 박세미(2016)의 심리화(정신화) 척도

(Self-Rated Mentalization Questionnaire: SRMQ)

심리화(정신화) 척도는 박세미(2016)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로, Hausberg 등(2012)의 연구를 보완하고 Fonagy 등(1998)의 면접식 성찰기능척도(RFS) 평가매뉴얼을 활용하여 심리화(정신화)의 실패 및 진정한 심리화(정신화) 유형 모두를 측정하였다. 총25문항으로 심리화(정신화)의 실패에 해당하는 타인의 마음에 대한 절대적 확신, 정서자각실패, 경직된 사고의 3요인과 진정한 심리화(정신화)에 해당하는 자기 및 타인 성찰의 1가지 요인으로 총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세미(2016)의 연구에서 절대적 확신요인은 성찰기능척도의 확실성요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박세미, 정남운(2019)의 연구에서 절대적 확신요인은 자기 및 타인에 대한 성찰요인과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나 각 요인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며 각 요인별 해석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2) 송현주, 최현아(2017)의 청소년용 정신화 곤란척도

(Mentalization Questionnaire: MZQ)

정신화 질문지(MZQ)는 Hausberg 등(2012)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최초의 자기 보고식 정신화 척도로 임상군 환자들의 정신화 능력의 실패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는 정신화 관련 문헌들을 토대로 정신과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들의 진술을 통해 얻은 자료들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총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 성찰거부, 감정 인식, 정신적 동등모드, 정서 조절의 4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송현주, 최현아(2017)가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것으로 원척도와 동일한 4요인 구조, 15문항 중 2개 문항을 제외한 13문항으로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3) 이수림, 이문희(2018)의 한국판 정신화척도

(Korean Version of The Mentalization Scale: Ments)

정신화척도(Ments)는 Dimitrijević 등(2017)이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 집단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총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에 대한 정신화, 타인에 대한 정신화, 정신화 동기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이수림, 이문희(2018)의 연구에서는 원 척도와 동일한 3요인구조, 본 척도의 28문항 중 3개 문항을 제외한 25문항으로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4) Müller 등(2023)의 the Certainty About Mental States Questionnaire: (CAMSQ)

Müller 등(2023)은 미국인과 독일인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성찰기능척도(RFQ)의 하위요인 중 확실성요인에 해당하는 정신 상태의 확실성척도를 개발하였다. CAMSQ는 자신과 타인의 정신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인지적 능력으로서의 확실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elf-Certainty(자기-확실성), Other-Certainty(타인-확실성)의 2요인, 총10문항 구성되어 있다. Müller 등(2023)의 연구에서 확실성이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 정신화의 부적응적 측면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심리적으로 건강하다고 보여지는 적응적 프로파일은 타인-확실성보다 자기-확실성이 높은 경우였으며, 자기-확실성과 타인-확실성 사이의 불일치는 성격 병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2) 성찰기능질문지(RFQ)에서의 한계점

Fonagy와 동료연구자들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성찰기능질문지(RFQ)는 다양한 버전으로의 수정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대상들을 위한 척도를 개발·보완해가고 있다. Fonagy 등(2016)이 제시한 성찰기능의 구성개념을 기초로 하여 국내 연구자들도 심리화(정신화) 척도를 개발하거나(박세미, 정남운, 2019), 국외에서 개발한 연구들을 국내의 실정에 맞추어 번안 및 타당화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김홍주 등, 2020; 김홍주, 김은영, 2018; 박민경, 2019; 박민경, 송현주, 2018; 차혜명, 2018). 이상의 성찰기능질문지(RFQ)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확실성요인의 특성에 대한 모호함, Fonagy식 채점방식의 한계라는 제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onagy와 동료연구자들이 개발한 성찰기능척도를 다시 개발하여 위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확실성 척도의 특성을 경험적으로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가) 확실성요인의 특성에 대한 모호함

성찰기능질문지(RFQ)의 2가지 하위요인 중 정신상태의 불확실성(이하 불확실성)은 선행연구들에서 일관적으로 성찰기능의 실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경(2019)의 연구에서 불확실성은 정신화 곤란과 정적관계가 나타났으며, 내현화 및 외현화, 성격병리 모두에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정신화 실패의 측면을 반영하는 척도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흥주, 김은영(2018)의 연구에서도 불확실성은 불안/우울, 위축/우울, 규칙위반, 공격행동, 품행문제와 같은 문제행동척도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에 비하여 정신상태의 확실성(이하 확실성)의 경우 정신화 실패와 관련하여 선행연구결과들에서 다소 상이한 점들이 발견되어 개념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박민경(2019)의 연구에서는 확실성은 경계선적 성격특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자기애성 성격특성과 낮은 정도의 정적 상관, 우울 및 불안과 낮은 정도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정신화의 실패를 반영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박세미, 정남운(2019)이 제시한 정신화(심리화)의 4가지 하위요인(정서자각의 실패, 타인의 마음에 대한 확신, 경직된 사고, 자기 및 타인성찰) 중 심리화의 실패에 해당하는 타인의 마음에 대한 확신 요인은 심리화의 성공에 해당하는 자기 및 타인성찰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김흥주, 김은영(2018)의 연구에서 확실성은 정신화 실패와 관련하여 상관의 방향은 이론적으로 기대한 대로 나타났으나, 문제행동 척도 대부분과 유의하지 않거나, 그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경, 송현주(2018)의 연구에서 확실성은 정신화 실패(곤란)를 측정하는 정신화질문지(MZQ)총점 및 각각의 하위척도들(정신동등모드, 자기성찰억제, 감정자각, 정서조절) 모두에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확실성요인이 성찰기능의 건강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Müller, Wendt, Spitzer, Masuhr, Back, & Zimmermann(2022)의 연구에서도 성찰기능척도(RFQ)는 성찰기능의 결핍(불확실성)을 평가한다고는 하나, 확실성(정신화 과다)요인이 정신화의 부적응적인 상태를 명확히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따라 확실성을 성찰기능의 실패로 간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Fonagy식 채점방식의 한계

성찰기능질문지(RFQ)는 기존 면접법의 한계를 보강한 자기보고식 척도로 참여자가 문항에 응답하는 과정 자체로도 성찰기능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졌다. 우선 개별 설문 문항에 대해 참여자가 자신의 견해와 가까운 선택지를 고르는 과정에서 판단과 선택을 위해 스스로를 성찰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차혜명, 2018). Fonagy 등(2016)의 성찰기능질문지(RFQ)는 중앙치 응답 문항(central response item)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치 응답 문항이란 ‘전혀 그렇지 않다’나 ‘매우 그렇다’의 극단값이 아닌 ‘어느 정도 그렇다’라고 하는 중간 정도의 값에 동의할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얻도록 고안된 문항이다(김홍주, 김은영, 2018). ‘전혀 그렇지 않다’나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은 한쪽으로 편향된 것으로 정신화의 결함을 의미하나, ‘어느 정도 그렇다’라는 응답은 정신 상태의 모호함(불투명함)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건강한 정신화의 측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점부터 6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자의 반응을 1, 2, 3, 3, 2, 1로 변환하여 채점하는 방식으로 극단값에 응답할 때 점수가 낮아지고, 중간값에 응답할 때 성찰기능척도의 점수가 높아진다. 하지만 타당화 결과 양 극단의 점수가 정신화결핍에 해당하는지 정신화 과다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확인되었다(Ha, Sharp, Ensink, Fonagy, & Cirino, 2013). 이에 응답의 범위를 넓혀 6점 리커트 척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바꾸고 1점부터 7점까지의 점수를 3, 2, 1, 0, 0, 0, 0 혹은 0, 0, 0, 0, 1, 2, 3으로 변환하여 채점함으로써 동일한 문항에 대한 채점을 달리하여 정신화의 정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중앙치 응답문항으로 성찰 기능을 측정하는 이유는 성찰 기능의 실패로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하여 메타적 관점을 취하지 못하거나 자신과 타인의 정신 상태의 모호함(opaqueness)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이들의 경우 지나치게 양극단에 치우쳐 편향된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김홍주, 김은영, 2018; Fonagy et al., 2016). 이러한 Fonagy식 채점방식에 대하여 김홍주, 김은영(2018)는 불확실성점수와 확실성점수를 구분하여 살펴보거나 불확실성과 확실성 척도를 합산하여 총점으로 해석해 볼 것을 제안하며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차혜명(2018)은 초기방임과 경계선 성격성향 사이에서 정신화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 불확실성과 확실성 사이에 차별적 상이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별적인 접근방식을 적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확실성에서 조절효과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확실하여 잘 안다고 표현한 경우’와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면서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다 면밀한 분석방법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박세미, 정남운

(2019)의 연구는 Fonagy와 Luyten(2009)의 정신화의 다차원적 측면을 고려하여 심리화척도를 개발한 것으로 심리화의 실패에 해당하는 정서자각실패, 타인마음확신, 경직된 사고와 훌륭한 심리화에 해당하는 자기타인성찰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4가지의 하위요인들의 합산 총점을 활용하여 심리화 능력을 측정함에 있어 타인의 마음에 대한 확신 요인이 자기 및 타인성찰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에 4가지의 합산 총점을 통해 심리화능력을 측정하는 채점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각 하위 요인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로파일을 활용하여 심리화능력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적합함을 제안하였다.

3) 성찰기능척도의 하위요인

본 연구에서는 성찰 기능을 3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이는 성찰기능의 다차원적 측면의 이해를 위하여 Fonagy 그룹에 속해있는 Duval 등(2018)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최신의 척도를 번안 및 타당화한 박민경(2019)의 연구를 근거로 한다. 성찰기능을 측정함에 있어 성찰기능의 실패(김홍주, 김은영, 2018; 박민경, 송현주, 2018; 송현주, 최현아, 2017; 차혜명, 2018)뿐만 아니라 성찰기능의 성공(박민경, 2019; 박세미, 정남운, 2019; 이수림, 이문희, 2018)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것은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성찰기능 향상 및 촉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성찰기능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찰기능의 실패’와 ‘진정한 성찰기능’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성찰기능의 실패’에 해당하는 ‘정신상태의 불확실성’과 ‘타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확실성’을 하위요인에 포함하였다(Fonagy et al., 2006; 김홍주, 김은영, 2018; 박민경, 2019; 박민경, 송현주, 2018; 차혜명, 2018). 그리고 ‘진정한 성찰기능’에는 ‘타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관심/호기심’을 포함하였다. ‘타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관심/호기심’이란 정신상태는 결정된 하나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며 변화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면의 마음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며 이를 통해 타인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김홍주 등(2018)과 박민경 등(2018)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및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는 대학생까지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비임상군 청소년들의 성찰기능을 측정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3가지 하위요인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구성요소와의 관련성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II-3>과 같다.

<표 II-2> 성찰기능척도의 구성요소

하위요인	정신상태의 불확실성	타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확실성	타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관심/호기심
박민경(2019)	○	○	○
차혜명(2018)	○	○	
김홍주, 김은영(2018)	○	○	
박민경, 송현주(2018)	○	○	
이수림, 이문희(2018)			○
박세미, 정남운(2019)	○	○	○
송현주, 최현아(2017)	○		
계	6	5	3

2. 성찰기능척도의 변별요인

성찰기능척도의 3가지 하위요인은 그 자체로 다차원적 특성을 지니며, 선행연구 결과 성찰기능의 확실성요인은 때에 따라 적응적으로 기능하기도 혹은 부적응적으로 기능하기도 함으로써 모호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찰기능척도의 3가지 하위 요인 중 불확실성요인 및 확실성요인의 부적응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경계선 성격성향, 관심/호기심요인 및 확실성요인의 적응적 측면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마음챙김 요인을 포함하여 확실성요인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성찰기능과 경계선 성격성향 및 마음챙김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경계선 성격성향

경계선 성격장애는 극단적 정서변화, 불안정한 대인관계, 반복적인 자기파괴 행동, 충동성 등의 부적응적 증상을 특징으로 한다. 이들은 안정적 자기상을 가지지 못한 채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허감과 불안을 경험하며 특히 버림받는 것에 대해 강한 두려움을 느낀다(김지선, 현명호, 2012; Paris, 2007). 이들은 유기불안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상대방을 이상화하거나 급격하게 평가절하함으로써 대인관계가 불안정하고 극단적인 패턴을 보인다. 이들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극단적으로 상반된 감정을 느끼며 의존적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잦으며 불안함으로 인하여 안정애착을 형성하기 어려워 피상적 관계를 맺는 경향이 많다(최희숙, 주영아, 2020).

경계선적 성격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은 절친한 친구나 이성친구가 없고, 우정을 맺는 기간이 짧으며, 사회적 활동 수준이 낮다. 이들은 유기에 대한 방어로 대인관

계가 피상적이고 불안정하며, 타인이 자신을 지지해주더라도 지속적으로 불만족하고 불행해하며 타인에게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타인(대상)과의 분리를 지각하게 되면 분리에 대한 방어나 재결합을 위하여 조종적이고 자기파괴적 행동 및 분노나 적대감에 사로잡히게 된다(Gunderson, & Zanarini, 1987). 경계선성격장애의 적응과 관련한 연구(Trull, Useda, Conforti, & Doan, 1997)에서는 경계선성격장애 성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학업적, 대인관계적인 기능측면에서 보다 많은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미루어볼 때 경계선적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은 폭넓은 대인관계에서 역기능이나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정서적인 어려움 및 학업성취와 적응에서도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Fonagy(1991)는 애착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정신화 손상이 많이 나타나며 이들이 경계선 성격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하였다. 정신화 손상은 정서 조절의 어려움, 현실적 자기 정체감의 상실, 대인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나타내는 경계선 성격성향에 영향을 줄 수 있고(이문희, 이수림, 2020), 중독 등과 같은 다양한 정신병리를 초래한다(Luyten et al., 2012). 또한 정신화 실패는 맥락에 맞는 생각이나 감정을 갖게 하기 보다는 자신의 상상을 현실과 동일하게 여기게 되어 현실을 왜곡하게 하며, 왜곡된 것을 기반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할 가능성을 높인다. 최근 정신화가 경계선 성격장애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보고들이 있는데(Bouchard et al., 2008; Chiesa & Fonagy, 2014), 정신화를 향상시키게 되면 내담자의 증상 및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의 경계선적 성격성향은 인지적·정서적 이해 및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 정신화를 매개로 사이버폭력의 가해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황나리, 송현주, 2021),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경계선 성격성향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신화의 실패가 이들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함으로써 대인관계문제의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최희숙, 주영아, 2020).

정신화능력의 발달은 외적 경험을 바라볼 때 자신의 내적·주관적 경험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기 보다 그 현상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성찰적 태도를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김경은, 정남운, 2018; 최희숙, 주영아, 2020). 이를 통해 개인은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러한 관점도 시간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융통성을 가지게 된다(Wallin, 2010). 이렇게 정신화 능력의 회복은 자기 성찰 능력을 가능하게 하여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인한 역기능적 측면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Luyten et al., 2012).

나. 마음챙김

마음챙김(mindfulness)이란 지금 순간의 경험에 의도적이고 비판단적인 방식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것으로, 모든 생각과 느낌, 정서를 똑같이 취급하여 그대로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김정호, 2004; 김찬양, 최한나, 2018). 마음챙김은 의식적 내용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게 해 주며(Shapiro, Carlson, Astin, & Freedma, 2006), 매 순간의 경험을 보다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볼 수 있게 해 준다. 마음챙김을 통한 순간순간의 알아차림은 습관화된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탈자동화를 통해 침착함을 지니게 함으로써 자기인식 및 자기 수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경험은 내면화된 안전기지형성에 기여하여 세상을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자기를 발달시켜 나간다. 이러한 자기감의 확장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찰적 자기에 대한 역량을 길러줄 수 있어(Wallin, 2010), 정신적 공간의 확장이 가능해진다고 하였다(김찬양, 최한나, 2018; 문혜리, 김명찬, 2022).

심리치료의 공통요인으로서 마음챙김과 정신화가 제안되고 있다(Allen, 2020). 마음챙김과 정신화는 정신 상태의 자각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유사하며, 내적인 정신상태와 외적 현실이 서로 분리된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분리감을 기초로 하여 마음챙김과 정신화는 비판단적 태도와 수용을 추구하고 마음상태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탐구적 호기심을 추구한다(Allen, Fonagy & Bateman, 2008; Bateman, Fonagy, 2006). 이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마음챙김과 정신화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다. 우선 마음챙김의 핵심이 온전한 집중이라면 정신화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정신화는 행동에 대한 정신상태를 해석하고, 의미를 반영하며,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마음챙김에 비해 넓은 범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음챙김은 자기 자신의 정신상태에 대한 자각과 수용에 초점을 두는데 비해 정신화는 자신과 타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지향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보다 사회적인 개념이다.

최근 상담 및 심리치료 영역에서 정신화와 마음챙김을 적용하여 고통스러운 감정을 다루기 위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불안장애착문제를 가진 내담자들에게 정신화와 마음챙김이라는 기제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되고 있다(김찬양, 최한나, 2018 이문희, 이수림, 2020). 마음챙김은 안정애착과의 연관성이 높으며, 안정애착 참여자들이 불안장애착 참여자들에 비하여 마음챙김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장애착 참여자의 경우 경험에 대한 수용적이고 비판단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을 어려워하였으며, 회피애착 참여자의 경우 경험을 인식

하고 명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어려워하였다고 한다(Shaver, Lavy, Saron, & Mikulincer, 2007). 이문희, 이수림(2020)의 연구에서는 안정애착과 정신화가 보다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정애착은 정신화를 통해 마음챙김으로 영향을 주고, 마음챙김은 경계선 성격특성의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찰기능의 관련요인

성찰기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는 부모애착, 정적정서 및 부정적정서, 학교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부모 애착

부모 애착(parent attachment)은 영·유아기 때 주양육자인 부모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하는 주양육자에 대한 정서적 유대관계(affective bond)이다. 부모로부터 신체적 안전과 정서적 보살핌을 지속적으로 받아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자기가치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발달시킨다. 이는 아동이 자라 독립을 추구하게 되는 청소년기가 되어서도 부모가 여전히 애착대상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며(Laible, 2004), 또래들과의 관계를 맺는 기반이 되어 전 생애를 통해 영향력을 지속하게 한다(김애경, 김성봉, 2020; Ainsworth, 1989; Shaver & Hazan, 1987).

Fonagy는 성찰기능이 초기 양육자와의 애착 경험을 통해 발달하는 것으로 보았다(Fonagy, 1991). 유아와의 안정애착을 위한 상호작용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조율된 반응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생애초기 긍정적 애착경험은 타인의 정신적 상태를 탐색하고, 점차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명확하게 자각하며, 타인의 인지, 정서, 행동을 파악하는 과정에 관여한다. 이는 자신의 감정 및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연결되고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성찰기능의 발달로 이어진다(Cassidy, 1994). 이를 통해 아동은 자신의 마음을 누군가 헤아리고 있음을 느끼고, 자기 위로 및 자기조절능력을 기르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키우게 된다(이호섭, 2019). 또한 타인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도 성찰할 수 있게 되어 건강한 상호관계를 경험하게 된다(문혜리, 김명찬, 2022; 이호섭, 2019). 성찰능력은 안정애착을 통하여 발달하고 정서 조절, 자기 정체감, 대인관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제(Allen, 2018)로 작

용한다. 유·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자녀도 부모와의 안정적 유대관계 속에서 성찰 능력을 발달시켜나간다(김홍주, 2020).

반면 불안정 애착관계 안에서 성장한 유아는 자신과 타인의 마음과 행동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며,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럴 경우 부적 정서가 유발되어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거나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 부정적 도식을 만들며 대인관계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타인의 마음을 추론하는 능력이 정상적으로 발달되지 않는 성찰기능의 결핍을 초래하게 된다(Taubner, White, Zimmermann, Fonagy, & Nolte, 2012). 또한 불안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충동 조절, 정서 조절, 공감 같은 성공적 대처방식을 습득하기가 어렵다(Derryberry & Bothbart, 1997; 이래현, 2019). 애착관계 안에서의 외상 경험은 성찰기능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Fonagy, Gergely, & Target, 2007). 양육자에 의한 방임 및 정서적 학대는 애착체계를 과활성화시킨다. 애착 체계가 오랫동안 활성화되면 감정의 각성수준이 높아지고 성찰하는 뇌의 영역이 억제되기 때문에 성찰능력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김홍주, 2020). 유아는 예측불가능한 양육자의 정신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야하므로 자기감을 발달하는데 필요한 자기 생각이나 감정 및 욕구에 집중하기 어렵다. 그 결과 정신화가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학대받는 유아는 자신을 해하려는 양육자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기보호적 방어에 일환으로 자신을 학대하는 부모의 동기를 생각지 않음으로써 가혹한 애착 관계에 적응하려 한다(Fonagy, Gergely, Jurist & Target, 2002). 이로 인해 타인의 행동을 감정, 소망, 동기 등과 관련하여 해석하지 않게 됨으로써 ‘경직된’ 이해의 틀을 가지게 되며, 정서 조절이나 충동 조절과 같은 적절한 사회적 대응 전략을 익히기 어려워진다(김홍주, 2020). 또한 성찰능력의 결핍은 정서적 외상경험으로 이어져 내면화된 수치심, 정서조절의 어려움, 분노 반추의 경향을 높이고 자기와 타인에 대한 편향된 이해로 공감능력을 저하시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혜리, 김명찬, 2022; 김홍주, 2020). 실제로 안정애착일수록 성찰기능이 높으며, 불안정 애착일수록 성찰기능이 낮다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다(Bouchard et al, 2008).

나.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우리는 삶의 다양한 상황속에서 정서를 경험한다. 정서는 인지와 같이 행동 자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인지나 행동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박홍석, 이정미, 2016). 정서는 그 자체로 정신건강을 의미하기도 한다(Diener, 1984). 정서는 ‘상호관련되어 있으나 독립적인(correlated but independent)’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의 2요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강혜자, 한덕웅, 전겸구, 2000). 정적 정서(positive affect)는 기쁨, 만족, 즐거움, 행복과 같은 정서를 말하는 것으로 높은 에너지, 즐거운 일, 완전한 집중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부적 정서(negative affect)는 두려움, 슬픔, 분노, 혐오, 죄책감과 같은 정서를 말하는 것으로 다양한 연구들에서 정신병리, 스트레스, 폭행, 자살과 같은 문제행동들과의 관계가 다루어지고 있다(성미영, 권기남, 2010; Watson, Clark, & Tellegen, 1998).

성찰 능력이 발달하면 자동적·감정적 반응에 사로잡히게 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어(안명희, 신희수, 2012; Fonagy & Target, 1996), 정적 정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인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어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도우며(Fonagy & Bateman, 2006), 다른 사람의 행동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보다 명확하게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인관계상황에서 보다 적절한 대처를 가능하게 해 준다(Fonagy & Target, 1996). 또한 정서 자각 및 정서 조절을 향상시켜 정서의 주요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적응적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돕는다(김찬양, 최한나, 2018). 정신화의 발달은 자기와 타인의 경험에 대해 적절한 거리를 둬으로써 자신과 타인 및 상황과 맥락에 대해 심사숙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초기의 애착외상으로부터 파생된 부정적 영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강수진, 최영희, 2019). 또한 정신화는 정서조절, 심리적 수용, 성장적 반추 등 외상에 대한 성숙한 대처를 통하여 자기 조절 및 심리적 안녕감을 경험함으로써 보다 나은 대인관계의 기반을 형성하게 한다(이문희, 이수림, 2013). 정신화와 관련하여 긍정 정서는 높은 정적 효과 크기를 나타낸다고 하였다(문혜리, 김명찬, 2022). 정신화와 긍정 정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서 조절(김찬양, 최한나, 2018), 주관적 안녕감(김용희, 2018), 정서적 지지(서영주, 김영근, 2019), 정서인식명확성(김혜울, 김영근, 2018) 등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반면 성찰 능력의 억제 및 미발달 상태가 되면 인지적·정서적 통합을 이루지 못해 자동적·감정적·무의식적 반응에 사로잡히게 되어 정서 관리 실패, 대인관계 문제, 정신병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홍주, 김은영, 2018; 최희숙, 주영아,

2020). 또한 침투적 반추, 경험회피, 정서조절의 곤란과 같은 외상에 대한 미성숙한 대처를 통하여 만성화된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심리적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이호섭, 2019). 불안정 애착으로 인한 성찰기능의 손상(이래현, 2019)은 맥락에 맞는 감정과 생각을 갖게 하기 보다 현실을 왜곡함으로써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경향성을 높인다(이문희, 이수립, 2020). 이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통해 공감 능력을 저하시키게 됨으로써 대인관계해석에 대한 민감성을 저하시킨다(김홍주, 2020). 또한 몸중심의 비효율적 자기조절전략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공격적 행동, 분노 표출, 비행, 비자살성 자해로 이어지고 우울, 자폐, 중독, 섭식장애, 정신증 등과 같은 정신병리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Fonagy, Target, & Gergely, 2000; Bateman, Fonagy, 2010). 선행연구결과, 정신화와 관련한 부정적 심리 기제 역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민진, 이지연, 2022). 정신화와 부적 정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신화 능력이 낮을수록 우울,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 거부민감성 경향(김용희, 201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학교생활적응

학교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또래 및 교사들과의 관계 안에서 신체·정서·사회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해 나가는 곳이다. 청소년들은 또래 및 교사관계, 수업, 학교규칙과 같은 다양한 학교생활적응의 과업들에 직면한다(Wentzel, 2003).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한다는 것은 학생이 교사나 또래 등 의미있는 타인들과 조화를 이루어 성공적 관계를 유지하고 학교규범에 순응하며 독립된 개인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위유라, 노충래, 2014). 또한 청소년 자신과 학교환경과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며(정희선, 조민아, 2014), 학교라는 환경에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환경과 개인 간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적극적 창조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 여부는 청소년들의 발달과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심리적인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청소년기 원활한 학교생활적응은 불안이나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 및 부적응적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새로운 도전이나 환경에 직면하게 될 때 적절한 대처능력을 통하여 성공적인 발달과업을 이루어가게 한다. 반면 청소년기 부적응적 학교생활은 불안이나 우울 등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의 발생뿐만 아니라 이후 생활의 적응 및 발달에도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Rice, Frederickson, & Seymour, 2011).

특히 발달초기 안정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경우 불안이 유발되는 상황을 그저 회피하려 함으로써 충동 조절, 정서조절, 불안 인식 상황에서 성공적 대처 경험을 습득하지 못하게 된다(Derryberry & Rothbart, 1997). Fonagy와 Taubner(2002)는 이러한 현상을 ‘억제된 정신화(inhibited mentalizaion)’라고 표현하였다. 이처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신화 능력이 발달하지 않으면 삶에서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다양한 정신병리를 유발하게 된다(Fonagy, Target, Steele, & Steele, 1998). 특히 성찰능력이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보다 많은 외현적 문제들을 나타내고(Fonagy & Luyte, 2009), 자신과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의도를 적절히 해석하지 못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어려움과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김선화, 2019; Fonagy & Bateman, 2006). 성찰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부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선화, 2019), 성찰능력의 실패는 타인에 대한 공감의 부족과 공격적 행동 통제의 결핍을 초래한다고 하였다(Bateman & Fonagy, 2004). 또한 품행집단 청소년들이 비품행집단의 청소년들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의 성찰능력을 가진다고 하였다(최현아, 송현주, 2017).

하지만 Fonagy(1991)는 초기애착경험 자체보다 자신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성찰능력이 성격과 대인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비록 주양육자와 불안정애착관계를 형성했다라도 이후 성찰능력이 향상되면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수 있는 개인의 대처방식을 중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김찬양, 2015). 또한 성찰기능은 경쟁적이면서 협력적 특성이 필요한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대인 관계에서 길을 찾고 방향을 잡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Bateman, Fonagy, Lowyck & Wermote, 2012; 이문희, 이수림, 2019).

Ⅲ.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 개발 및 타당화

1.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 개발

가. 문항개발과정

1) 예비 문항 제작

본 연구에서는 Ha 등(2013)이 타당화한 RFQY(Reflective Functioning Questionnaire for Youth)를 토대로 Duval 등(2018)이 새로운 문항을 구성하여 타당화한 RFQY를 박민경(2019)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기초로 하여 3개의 하위요인을 설정하였다. 하위요인은 ‘정신상태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 about mental states)’, 타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확실성(Excessive certainty about mental states of others), ‘정신상태에 대한 관심/호기심(interest/Curiosity in mental states)’이다.

이를 중심으로 하여 Fonagy와 동료연구자들이 주축이 된 척도 연구들을 최근 국내에서 번안 및 타당화한 청소년 및 성인용 성찰기능 척도들(김홍주, 김은영, 2018; 박민경, 송현주, 2018; 이수림, 이문희, 2018; 차혜명, 2018)과 정신화의 다차원적인 측면들을 고려하여 국내 연구자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박세미, 정남운, 2019)와도 비교분석하였다. 각 척도의 문항들을 모두 수집한 후 3개의 하위요인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항들을 분류하여 총36개의 새로운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내용 타당도 검증

선행과정을 통해 구성된 예비문항의 적절성 확인을 위하여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당 영역 전문가인 지도교수와 2인의 심리상담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절성 여부에 관한 평정을 거쳤다. 그 결과 문항 개선 방향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총36개의 예비문항을 확정함으로써 척도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예비문항으로 선정된 문항은 <표 III-1>에 제시하였다.

<표 III-1> 성찰기능척도 예비문항

하위 영역	예비 문항
정신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1. 나는 화가 나면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른 채 말한다
	2. 나는 화가 나면 나중에 후회할 말을 곧잘 한다
	3. 격한(강한) 감정은 종종 내 생각을 흐리게 한다
	4. 나는 가끔 말을 해 놓고 나중에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른다
	5. 나는 가끔 영문(이유)도 모른 채 어떤 일을 한다
	6. 내가 왜 그 행동을 했는지 항상 알지는 못한다
	7. 나는 종종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하여 혼란스럽다
	8. 나와 가까운(친한) 사람들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자주 이해하 지 못하는 것 같다
	9. 사람들은 내가 어떤 특정한 감정(예: 화)를 갖고 행동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 감정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
	10. 누가 내 마음상태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할지 모른다
	11. 다른 사람들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해보려 해도 안된다
	12.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무엇이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내게 참으로 어렵다
	13. 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확신이 없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 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할 수 있다
	14. 불안해지면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끔 행동하곤 한다
	타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확실성
16.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대부분 예측할 수 있다	
17. 사람에 대한 나의 느낌은 틀린 적이 없다	
1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부분 정확하게 알고 있다	
19.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곧잘 읽는다	
20.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 있 다	
21.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잘 파악하는 편이다	
정신상태에 대한 관심/호기심	22. 나는 친한 친구들(혹은 가족,연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안 다
	23.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 직감은 정확하다
	24. 어떤 사람과 몇 마디 얘기만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 지 알 수 있다
	25.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과 경험에 따라 같은 상황도 매우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6.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해 보는 것은 내가 그들을 용서 하는 데 도움이 된다
	27. 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 속 숨겨진 의미에 대해 자주 궁금해한다
	28. 나는 내 행동이 타인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인다
	29. 논쟁을 할 때도, 나는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생각)한다
	30.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에 대해 생각한다
	31. 나는 가까운(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32. 나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 나와 어떻게 다를지 생각해봄으로써 사람 들을 더 잘 이해하려고 한다
	33.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처지에서도 살펴보려고

	한다
	34. 누군가의 행동을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의 사고, 소망, 그리고 느낌을 알 필요가 있다
	35. 나는 항상 사람들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관심이 있어 왔다
	36.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삶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느낀다

나.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14~24세의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Duval 등 (2018)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은 만 12~21세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만 12세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공존해 있는 연령이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복지법의 청소년 연령 범위를 고려하여 청소년의 범위를 중학생 및 고등학생,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는 대학생까지를 포함한 14~24세까지의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제외기준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자료수집은 리서치 업체에 의뢰하는 방식과 연구자의 주변 지인을 통한 온라인 설문으로 이루어졌다. 리서치 업체에서는 자사의 인터넷 설문조사 웹 사이트 패널로 가입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앱이용자들이 앱의 노출된 화면을 통하여 해당 설문 공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설문 대상에 해당되는 이용자가 연구설명문 및 동의서를 읽고 동의의사가 있을 경우 동의하기 버튼에 클릭하게 하였다. 이 때 연구대상자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부모동의를 반드시 필요함을 알리고 연구대상자의 부모 역시 연구설명문 및 동의서를 읽은 후 앱상에서 직접 서명할 수 있는 툴(tool)을 마련하여 부모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동의를 완료된 후 설문하기버튼이 작동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본인 동의 및 부모동의를 끝난 후 구글설문지페이지로 이동하여 설문을 진행하고, 설문이 끝난 뒤 업체에서는 설문내용 확인 후 해당대상자가 맞는지 추가확인을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온라인 설문링크를 배포하여 SNS상에서 설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연구 참여를 위한 부모 동의도 함께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울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1040968-A-2021-017).

총569명의 설문응답 중, 인적 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2명의 자료를 제외한 567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케이스 무작위표본추출을 통한 파일분할로 314명의 랜덤추출집단을 도출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연구대상,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III-2>, <표 III-3>에 제시하였다.

<표 III-2> 전체 연구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567)

	구 분	빈 도	비 율(%)
성별	남	191	33.7
	여	376	66.3
학교급	중학생	194	34.2
	고등학생	208	36.7
	대학생	165	29.1
	소계	194	
학년	중학교 1학년	72	31.7
	중학교 2학년	55	28.4
	중학교 3학년	67	34.5
	고등학교 1학년	60	28.8
	고등학교 2학년	84	40.4
	고등학교 3학년	64	30.8
	소계	208	
	대학교 1학년	93	56.4
	대학교 2학년	40	24.2
	대학교 3학년	29	17.6
대학교 4학년	3	1.8	
	소계	165	

<표 III-3>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연구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14)

	구 분	빈 도	비 율(%)
성별	남	108	34.4
	여	206	65.6
학교급	중학생	101	32.2
	고등학생	113	36.0
	대학생	100	31.8
학년	중학교 1학년	37	36.6
	중학교 2학년	32	31.7

중학교 3학년	32	31.7
소계	101	
고등학교 1학년	30	26.5
고등학교 2학년	45	39.8
고등학교 3학년	38	33.6
소계	113	
대학교 1학년	55	55.0
대학교 2학년	22	22.0
대학교 3학년	20	20.0
대학교 4학년	3	3.0
소계	100	

2) 연구도구

가)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 예비문항

문항 개발 과정을 통하여 선정된 총36문항, 정신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타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확실성, 정신상태에 대한 관심/호기심의 3요인으로 구성된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예비척도를 사용하였다. 리커트 5점 척도(1: 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로 연구대상자가 자신에게 해당하는 척도에 체크하게 하였다.

다.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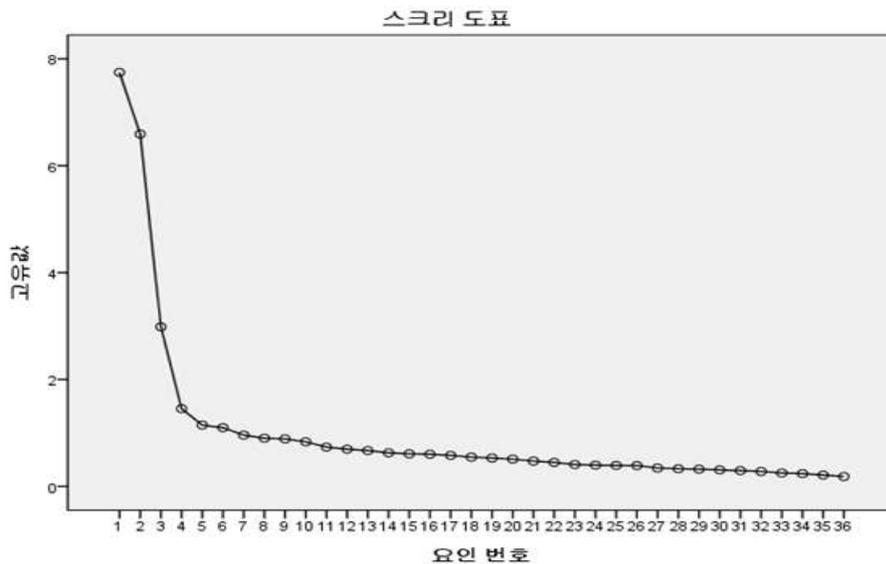
1) 탐색적 요인분석

예비 성찰기능척도 36문항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잠재요인을 추출하였다. 분석방법은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analysis)과 직접오블리민 회전(Oblimin rotation)을 사용하였다. KMO 값이 .89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이 $\chi^2=5421.859$, $p=0,000(p<.01)$ 으로 나타나 본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수의 선정을 위해서는 고유치, 스크리도표, 적합도 지수,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유치 1이상의 요인은 6개로 나타났으나, 고유치 1을 기준으로 요인수를 결정하게 될 경우 요인수가 과다 추정될 수 있다(O'Connor,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효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스크리도표를 확인하였다.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의 스크리도표는 [그림

Ⅲ-1] 과 같다. 스크리 도표 확인결과 적절한 요인수는 3~4개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문항을 선정함에 있어 문항삭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 따라 요인부하량 .40이하의 문항(Pett, Lackey, & Sullivan, 2003)인 문항2와 문항3을 제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는 <표 Ⅲ-4>에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요인 구조를 가장 적절한 요인수로 선택하였으며, 성찰기능 척도의 1요인은 ‘정신상태에 대한 관심/호기심’, 2요인은 ‘정신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3요인은 ‘타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확실성’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그림 Ⅲ-1] 스크리도표

<표 Ⅲ-4>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314)

Kaiser-Meyer-Olkin(KMO) 검정		.89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Approx χ^2	5421.859
	자유도(df)	630
	p	.000***

*p<.05, **p<.01, ***p<.001

문항	요인					
	1	2	3	4	5	6
32. 나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 나와 어떻게 다를지 생각해 봄으로써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려고 한다	.775	-.059	.314	-.033	-.173	.033
34. 누군가의 행동을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의 사고, 소망, 그리고 느낌을 알 필요가 있다	.741	-.044	.279	-.001	-.255	.292
28. 나는 내 행동이 타인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722	-.040	.295	-.008	.022	.098

기울인다						
30.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에 대해 생각한다	.704	.033	.335	.086	-.281	-.057
33.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처지에서도 살펴보려고 한다	.675	-.031	.305	-.025	-.063	.066
31. 나는 가까운(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660	-.045	.305	.114	-.059	.271
29. 논쟁을 할 때도, 나는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생각)한다	.656	-.106	.293	-.098	.051	-.003
26.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해 보는 것은 내가 그들을 용서하는 데 도움이 된다	.639	-.050	.237	-.002	-.124	.151
27. 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 속 숨겨진 의미에 대해 자주 궁금해 한다	.623	.074	.445	.058	-.373	.088
36.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삶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느낀다	.619	.128	.171	.097	-.118	.039
35. 나는 항상 사람들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관심이 있어 왔다	.474	.089	.343	-.028	-.389	-.181
15. 내가 뭔가를 느낀다는 것은 알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029	.763	.017	.427	-.124	.027
7. 나는 종종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하여 혼란스럽다	.086	.744	.028	.491	-.278	.023
9. 사람들은 내가 어떤 특정한 감정(예: 화)을 갖고 행동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 감정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	-.079	.695	.004	.340	-.055	-.089
11. 다른 사람들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해보려 해도 안된다	-.124	.684	-.104	.405	-.277	.174
8. 나와 가까운(친한) 사람들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자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037	.662	.034	.479	-.205	.027
10. 누가 내 마음상태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	.058	.645	-.019	.358	.054	.174
6. 내가 왜 그 행동을 했는지 항상 알지는 못한다	.011	.634	.044	.416	-.104	.016
5. 나는 가끔 영문(이유)도 모른 채 어떤 일을 한다	-.075	.595	-.005	.478	-.046	-.111
12.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무엇이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내게 참으로 어렵다	.009	.585	-.243	.366	-.235	.234
13. 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확신이 없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할 수 있다	-.109	.540	-.057	.517	-.391	.128
23.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 직감은 정확하다	.353	-.074	.774	-.119	-.017	-.069
21.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잘 파악하는 편이다	.420	-.169	.770	-.097	-.103	-.224
19.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곧잘 읽는다	.337	-.143	.756	-.026	-.113	-.192
1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부분 정확하게 알고 있다	.170	.030	.717	.077	-.002	.014
22. 나는 친한 친구들(혹은 가족,연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안다	.337	-.113	.673	-.165	-.163	.000
20.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 있다	.331	-.091	.663	-.003	-.201	-.222
17. 사람에 대한 나의 느낌은 틀린 적이 없다	.174	.154	.581	-.030	.007	-.018
24. 어떤 사람과 몇 마디 얘기만 나뉘보면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	.362	-.023	.579	.022	-.209	-.004
16.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대부분 예측할 수	.235	.114	.565	.080	.037	.131

있다							
2. 나는 화가 나면 나중에 후회할 말을 곧잘 한다		-0.10	.378	-.023	.765	-.151	.103
1. 나는 화가 나면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른 채 말한다		-1.17	.534	-.073	.762	.009	.026
3. 격한(강한) 감정은 종종 내 생각을 흐리게 한다		.100	.375	.029	.664	-.165	.115
4. 나는 가끔 말을 해 놓고 나중에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른다		.101	.453	-.103	.553	-.054	.003
14. 불안해지면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끔 행동하곤 한다		.033	.413	-.057	.519	-.433	.136
25.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과 경험에 따라 같은 상황도 매우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518	-0.001	.218	.091	-.165	.534
요인명	요인 1: 정신상태에 대한 관심/호기심						
	요인 2: 정신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 3: 타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확실성						
초기 고유값(eigen value)		7.744	6.592	2.986	1.454	1.148	1.098
초기 변량(%)		21.512	18.312	8.294	4.038	3.188	3.051
초기 누적률(%)		21.512	39.824	48.119	52.157	55.345	58.396

2.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 타당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3요인 성찰기능척도에 대한 요인구조 적합성 및 구성타당도의 확인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측정모형 요인계수 및 적합도 확인을 위해 AMOS(Analysis of Movement Structure) 2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모형 각 변인들 간의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고, 측정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χ^2 검증은 표본크기와 상관계수 등에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제한점이 있어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크기에 덜 민감하며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할 수 있는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지수와 이론 모형과 자료와의 합치 정도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지수를 선택하여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지수를 통해서도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CFI와 TLI는 기초 모형 대비 연구 모형이 얼마나 자료를 잘 설명하는지를 예측하는 상대적합도 지수이며, RMSEA와 SRMR은 자료와 연구모형의 부합정도를 잘 보여주는 절대 적합도 지수이다(홍세희, 2000).

최종 선정된 34문항의 내적합치도 분석을 위해 SPSS 21을 사용하여 척도의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하위 차원들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고, 성찰기능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 확인을 위하여 PANAS(부적정서), SCL(대인예민증, 편집증), 마음챙김(의식차원, 태도차원), 학교생활적응척도(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준타당도 검증

을 위하여 경계선적 성격성향 척도(정서적 불안정, 정체감문제, 부정적 대인관계, 자기 손상)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전체 연구참가대상인 총 567명의 자료 중 케이스 무작위표본추출을 통한 파일분할로 311명의 새로운 랜덤집단을 추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III-5>에 제시하였다.

<표 III-5>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연구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11)

	구 분	빈 도	비 율(%)
성별	남	105	33.8
	여	206	66.2
학교급	중학생	115	37.0
	고등학생	100	32.2
	대학생	96	30.9
	소계	115	
학년	중학교 1학년	41	35.7
	중학교 2학년	33	28.7
	중학교 3학년	41	35.7
	고등학교 1학년	21	21.0
	고등학교 2학년	47	47.0
	고등학교 3학년	32	32.0
	소계	100	
	대학교 1학년	57	59.4
	대학교 2학년	22	22.9
	대학교 3학년	16	16.7
대학교 4학년	1	1.0	
	소계	96	

2) 연구도구

가)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ANAS)

Watson, Clark과 Tellegen(1988)이 개발한 것을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20문항, 2개의 하위요인(정적 정서, 부적정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적정서, 부적정서를 느끼는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이현희 등(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이 정적 정서 .91, 부적 정서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정적 정서 및 부적정서 하위척도별 문항과 신뢰도는 <표 III-6>와 같다.

<표 III-6>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ANAS) 문항구성과 신뢰도

(N=311)

구분	문항	문항수	Cronbach's α
정적 정서	1,4,5,8,9,12,14,17,18,19	10	.834
부적 정서	2,3,6,7,10,11,13,15,16,20	10	.888
전체		20	.782

나) 간이정신건강진단지(SCL-47)

Derogatis, Lipman, Cove(1973)이 개발하고 Dewgatis(1977)가 발전시킨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를 이훈구(1986)가 요인분석하여 47개 문항으로 축소하여 만든 것을 윤향숙, 황윤미, 김덕범, 장성화(2011)가 사용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9개의 하위요인(신체화, 강박증, 공포증, 우울증, 불안, 적대감, 대인예민증, 편집증, 정신증) 중 2개의 하위요인(대인예민증, 편집)에 해당하는 12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건강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윤향숙 외(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1이었고, 하위요인은 대인예민증 .82, 편집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대인예민증 및 편집의 하위척도별 문항과 신뢰도는 <표 III-7>와 같다.

<표 III-7> SCL-47(대인예민증, 편집증)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N=311)

구분	문항	문항수	Cronbach's α
대인예민증	1,2,3,4,5,6,7,8	8	.813

편집증	9,10,11,12	4	.881
전체		12	.895

다) 청소년 마음챙김 척도

Brown과 Ryan(2003)이 개발하였고 김유리와 안도희(2016)가 변안한 ‘마음챙김 주의 알아차림 척도(Mindful Attention Awareness Scale: MAAS)’를 사용하여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청소년 마음챙김척도를 사용하였다. 청소년 마음챙김 다요인 척도는 총 19개 문항, 2개의 차원(의식, 태도)과 5개의 하위요인(주의, 자각, 자기관용, 개방성, 현재지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식차원의 하위요인으로 주의, 자각, 태도차원이 포함되고, 태도차원으로는 자기관용, 개방성, 현재지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이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마음챙김수준이 높다고 해석한다. 김유리와 안도희(2015)의 마음챙김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마음챙김 하위 척도별 문항과 신뢰도는 <표 III-8>와 같다.

<표 III-8> 마음챙김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N=311)			
구분	문항	문항수	Cronbach's α
의식차원	1,2,3,4,5,6,7	7	.767
태도차원	8,9,10,11,12,13,14,15,16,17,18,19	12	.845
전체		19	.899

라) 학교생활적응척도

이규미(2005)의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이규미와 김명식(2008)이 수정·보완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척도는 총38문항, 4개의 하위요인(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규미와 김명식(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3$ 이었고, 하위요인은 학교공부 .83, 학교친구 .87, 학교교사 .90, 학교생활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척도별 문항과 신뢰도는 <표 III-9>와 같다.

<표 III-9> 학교생활적응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N=311)

구분	문항	문항수	Cronbach's α
학교공부	1,2,3,4,5,6,7,8	8	.813
학교친구	9,10,11,12,13,14,15,16,17,18	10	.901
학교교사	19,20,21,22,23,24,25,26,27,28	10	.891
학교생활	29,30,31,32,33,34,35,36,37,38	10	.881
전체		38	.950

마) 경계선 성격척도(PAI-BOR)

Morey(1991)가 성인의 성격평가를 위해 개발한 객관적 자기보고식 질문지인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의 11개 임상척도 중 하나로 홍상환과 김영환(1999)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경계선 성격성향적 특성들을 감지하는 척도로 총23문항, 4개의 하위요인(정서적 불안정, 부정적 관계, 정체감 문제, 자기 손상의 정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성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홍상환, 김영환(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경계선 성격척도 하위척도별 문항과 신뢰도는 <표 III-10>와 같다.

<표 III-10> 경계선 성격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N=311)

구분	문항	문항수	Cronbach's α
정서적 불안정	1*,5,8,12,16*,20	6	.679
정체감문제	2,6*,9,13,17,21	6	.613
부정적 대인관계	3,10,14,18,22*	5	.533
자기손상	4,7*,11,15,19,23	6	.721
전체		23	.851

*: 역채점 문항

나. 연구 결과

1) 기술 통계

분석에 이용한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의 문항 양호도 검증을 위해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의 변별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문항별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아보았으며, 각 문항의 정상성 가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왜도와 첨도는 0에 근접할수록 정상분포에 가까우며, 왜도와 첨도가 각각 절대값 2와 7을 넘지 않으면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West et al., 1995). 이에 따라 각 문항별 점수는 각각 절대값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는 <표 III-11>에 제시하였다.

<표 III-11>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의 기술통계량

(N=311)

번호	평균(M)	표준편차(SD)	왜도	첨도
문항1	2.51	1.166	.316	-.967
문항4	2.97	1.239	-.197	-1.044
문항5	2.58	1.242	.299	-1.078
문항6	2.49	1.231	.298	-1.106
문항7	2.84	1.256	.025	-1.126
문항8	2.36	1.191	.493	-.790
문항9	2.11	1.194	.851	-.252
문항10	2.95	1.324	-.073	-1.207
문항11	2.26	1.160	.708	-.344
문항12	2.56	1.181	.322	-.849
문항13	2.54	1.251	.313	-1.001
문항14	2.78	1.232	.042	-1.056
문항15	2.60	1.240	.272	-1.000
문항16	3.21	1.107	-.227	-.746
문항17	2.97	1.055	.058	-.578
문항18	2.92	1.040	-.116	-.598
문항19	3.27	1.000	-.219	-.335
문항20	3.13	1.051	-.152	-.551
문항21	3.29	1.010	-.272	-.328
문항22	3.15	1.006	-.116	-.605
문항23	2.95	1.038	.040	-.390
문항24	3.32	1.054	-.430	-.252
문항25	4.08	.972	-.989	.600
문항26	3.76	1.085	-.759	.081
문항27	3.59	1.168	-.536	-.516
문항28	3.85	1.058	-.720	-.112
문항29	3.68	1.057	-.608	-.209
문항30	3.81	.967	-.539	-.259
문항31	3.96	1.002	-.967	.719
문항32	3.79	1.012	-.756	.238
문항33	3.79	.945	-.594	.122
문항34	3.91	.951	-.719	.082
문항35	3.37	1.110	-.165	-.649
문항36	3.74	1.111	-.758	-.043

2)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 내에 포함된 변인들 사이의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Anderson과 Gerbing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 중 첫 단계인 측정 모형(measurement model)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들(확실성, 불확실성, 관심/호기심)의 측정모형이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df=518)=919.522$; CFI=.910; TLI=.902; RMSEA=.050). 그리고 이 3요인 모형이 각각 2요인 모형($\chi^2(df=526)=1810.482$; CFI=.711; TLI=.691; RMSEA=.089), 1요인 모형($\chi^2(df=528)=3079.081$; CFI=.425; TLI=.389; RMSEA=.125)보다 좋은 적합도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 스퀘어 분석(chi-squared difference test)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모형의 카이 스퀘어 값 및 각각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순차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3요인 모형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모형의 각각의 변인들이 통계적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김병직, 2022)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도출된 3요인 구조가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최대 우도 방식(Maximum Likelihood)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수정지수(MI)에 근거하여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 간에 유사한 특성들을 공유하는 문항들에 대한 측정오차 간 공분산을 설정하여 측정모형을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 확인을 위해 χ^2 , TLI, CFI, SRMR, RMSEA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TLI와 CFI 값은 .90이상일 때 모형적합도가 좋다고 보고(Bentler, 1990), SRMR 값은 .08이하일 때 적절하다고 본다(Hu & Bentler, 1999). 또한 RMSEA 값의 경우, .05이하일 때 적합도가 좋고, .08이하일 때 적절하며, .10이상일 때에는 적합도가 부적절하다고 본다(Browne & Cudeck, 1992).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수정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hi^2=919.522$, TLI=.902, CFI=.910, RMSEA=.050, SRMR=.63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좋은 적합도 지수로 나타났으며, <표 III-12>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III-12>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의 모형 적합도

	χ^2	df	p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SRMR
3요인 모형	919.522	518	.000	.902	.910	.050(.045~.055)	.0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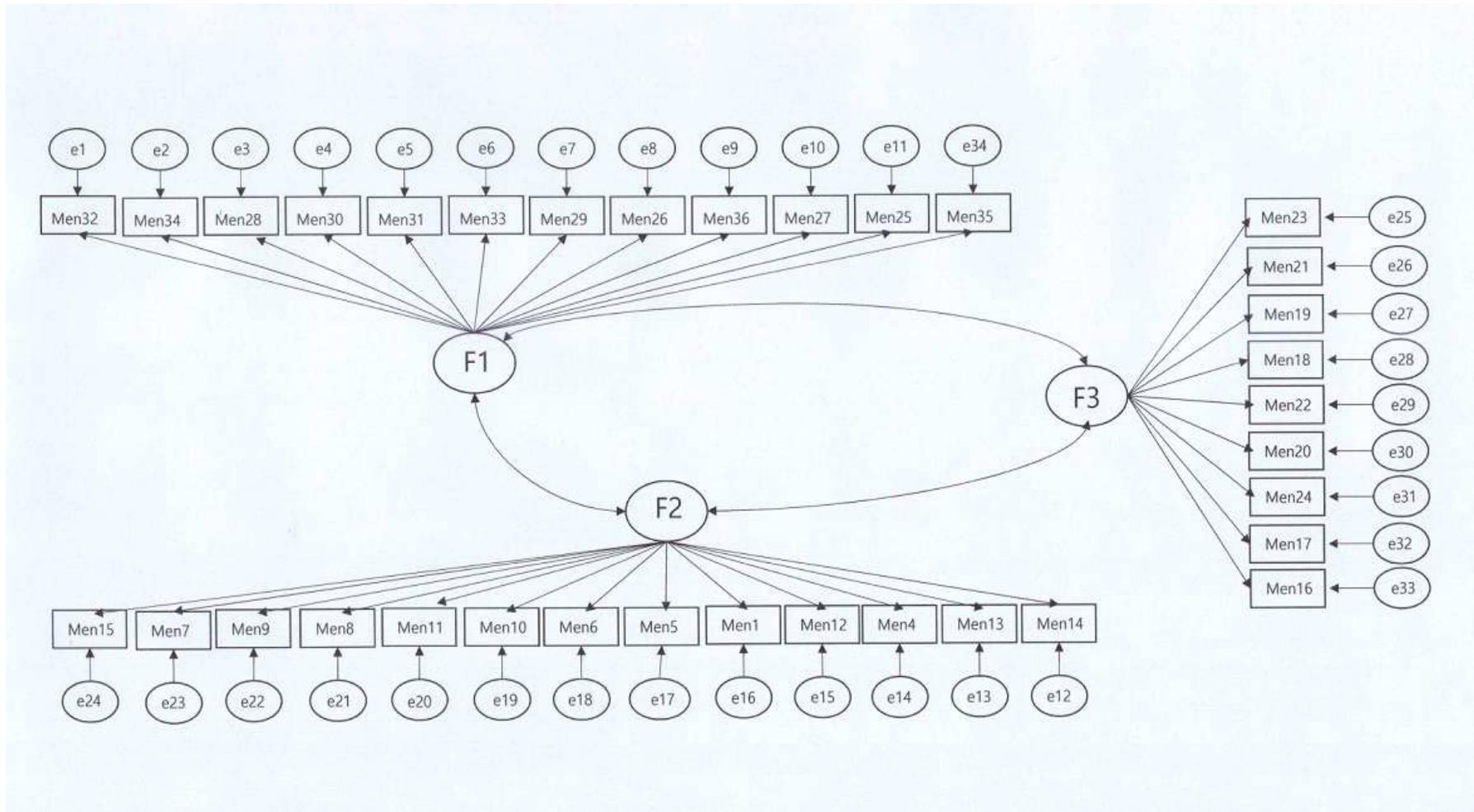
다음은 검증된 모형에 관한 요인계수의 추정값 및 유의도 검증 결과를 살펴보았다. 각 측정변수 표준화 요인 계수인 제1요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관심/호기심’은 .642~.895, 2요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은 1.004~1.497, 3요인의 ‘타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확실성’은 .656~1.04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40 이상이며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의 3요인구조의 구성타당도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변인의 회귀추정값은 <표 III-13>에 모형은 [그림 III-2]에 제시하였다.

<표 III-13>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 각 변인에 대한 회귀추정값

잠재변수	측정변수	Estimate	S.E	C.R	p
정신상태에 대한 관심/호기심	→ 문항32	1			
	→ 문항34	.800	.064	12.579	***
	→ 문항28	.865	.071	12.149	***
	→ 문항30	.895	.063	14.152	***
	→ 문항31	.786	.068	11.563	***
	→ 문항33	.782	.063	12.329	***
	→ 문항29	.845	.071	11.835	***
	→ 문항26	.748	.075	9.966	***
	→ 문항36	.691	.078	8.858	***
	→ 문항27	.850	.080	10.599	***
	→ 문항25	.642	.068	9.456	***
	→ 문항35	.706	.078	9.097	***
	정신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 문항14	1		
→ 문항13		1.384	.172	8.051	***
→ 문항4		1.014	.167	6.065	***
→ 문항12		1.004	.162	6.206	***
→ 문항1		1.198	.173	6.907	***
→ 문항5		1.448	.197	7.342	***
→ 문항6		1.470	.198	7.419	***
→ 문항10		1.323	.195	6.786	***
→ 문항11		1.270	.178	7.126	***
→ 문항8		1.467	.195	7.517	***
→ 문항9		1.247	.179	6.966	***
→ 문항7		1.600	.210	7.613	***
타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확실성	→ 문항15	1.497	.201	7.452	***
	→ 문항23	1			
	→ 문항21	1.042	.066	15.733	***
	→ 문항19	1.012	.066	15.387	***

→	문항18	.878	.071	12.396	***
→	문항22	.920	.068	13.605	***
→	문항20	.961	.071	13.613	***
→	문항24	.819	.073	11.263	***
→	문항17	.656	.075	8.810	***
→	문항16	.829	.077	10.797	***

***p<.001



[그림 Ⅲ-2]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3) 신뢰도분석

최종 선정된 성찰기능척도의 내적 합치도를 확인 해 본 결과 전체문항 신뢰도는 .87로 나타났고, 정신상태에 대한 관심/호기심, 정신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타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확실성에 대한 3가지 하위요인별 신뢰도계수는 .89, .89, .90으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결과는 <표 III-14>에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인 Duval등(2018)의 연구에서는 3가지 하위요인인 관심/호기심, 불확실성/혼란, 확실성에 대해 .75, .89, .80으로 나타났으며, 박민경(2019)의 연구에서는 .72, .88, .84로 나타났다.

<표 III-14>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의 신뢰도

(N=311)

		항목삭제시 Cronbach's α	Cronbach's α
정신상태에 대한 관심/호기심	문항32	.87	.89
	문항34	.88	
	문항28	.88	
	문항30	.87	
	문항31	.88	
	문항33	.88	
	문항29	.88	
	문항26	.88	
	문항36	.88	
	문항27	.88	
	문항25	.88	
	문항35	.89	
정신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문항14	.88	.89
	문항13	.88	
	문항4	.88	
	문항12	.88	
	문항1	.88	
	문항5	.88	
	문항6	.88	
	문항10	.88	
	문항11	.88	
	문항8	.87	
	문항9	.88	
	문항7	.87	
	문항15	.87	
타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확실성	문항23	.88	.90
	문항21	.88	
	문항19	.88	

문항18	.89
문항22	.88
문항20	.88
문항24	.89
문항17	.90
문항16	.89
전체 신뢰도	.866

4)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의 하위요인 간 상관

다음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된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의 각 하위요인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심/호기심은 확실성($r=.44, p<.01$)과 중간정도의 정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불확실성과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과는 <표 III-15>에 제시하였다.

<표 III-15>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의 하위 요인별 상관

(N=311)

	불확실성	확실성	관심/호기심
불확실성	1		
확실성	-.008	1	
관심/호기심	-.025	.437**	1

**p<.01

5) 수렴 및 변별타당도

다음으로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적정서(PANAS), SCL-47(대인예민증, 편집증), 마음챙김, 학교생활적응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불확실성요인은 부적정서($r=.59, p<.01$), 대인예민증($r=.57, p<.01$), 편집증($r=.54, p<.01$)과 다소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마음챙김($r=-.29, p<.01$), 학교생활적응($r=-.28, p<.01$)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마음챙김 하위요인인 의식차원($r=-.29, p<.01$), 태도차원($r=-.26, p<.01$)과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인 학교공부($r=-.22, p<.01$), 학교친구($r=-.26, p<.01$), 학교교사($r=-.15, p<.01$), 학교생활($r=-.30, p<.01$)과도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확실성요인은 마음챙김($r=.30, p<.01$)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마음챙김의 하

위요인인 의식차원($r=.33, p<.01$), 태도차원($r=.25, p<.01$)과도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관심/호기심요인은 마음챙김($r=.41, p<.01$), 학교생활적응($r=.24, p<.01$)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마음챙김 하위요인인 의식차원($r=.37, p<.01$), 태도차원($r=.42, p<.01$)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인 학교공부($r=.24, p<.01$), 학교친구($r=.24, p<.01$), 학교생활($r=.24, p<.01$)로 학교교사요인을 제외하고 모두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결과는 <표 III-16>에 제시하였다.

<표 III-16>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

(N=311)

	불확실성	확실성	관심/호기심
PANAS(부적정서)	.59**	.04	.02
SCL-47(대인예민증)	.57**	-.00	-.02
SCL-47(편집증)	.54**	-.07	-.08
마음챙김	-.29**	.30**	.41**
마음챙김(의식차원)	-.29**	.33**	.37**
마음챙김(태도차원)	-.26**	.25**	.42**
학교생활적응	-.28**	.03	.24**
학교생활적응(학교공부)	-.22**	.09	.24**
학교생활적응(학교친구)	-.26**	.05	.27**
학교생활적응(학교교사)	-.15**	-.06	.07
학교생활적응(학교생활)	-.30**	.04	.24**

** $p<.01$

6) 공존타당도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의 공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경계선 성격특성 척도($r=.581, p<.01$)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불확실성요인은 경계선 성격특성($r=.58, p<.01$)과 다소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경계선 성격특성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불안정($r=.53, p<.01$), 정체감문제($r=.53, p<.01$), 부정적 대인관계($r=.35, p<.01$), 자기손상($r=.51, p<.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확실성 및 관심/호기심 요인의 경우 경계선 성격특성과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관심/호기심 요인의 경우 경계선 성격특성의 하위요인인 정체감문제($r=.28, p<.01$)와 정적상관, 자기손상($r=-.13, p<.05$)과 약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

다. 결과는 <표 III-17>에 제시하였다.

<표 III-17>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의 공준타당도

(N=311)

	불확실성	확실성	관심/호기심
경계선적 성격특성(PAI-BOR)	.58**	-.05	.05
PAI-BOR(정서적 불안정)	.53**	-.10	-.06
PAI-BOR(정체감 문제)	.35**	-.02	.28**
PAI-BOR(부정적 대인관계)	.45**	.03	.09
PAI-BOR(자기손상)	.51**	-.06	-.13*

**p<.01
*p<.05

IV.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비임상군 청소년 성찰능력 유형분류 및 관련요인탐색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찰기능척도의 3가지 하위요인인 정신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타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확실성, 정신상태에 대한 관심/호기심과 경계선적 성격성향 및 마음챙김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잠재프로파일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은 연구 대상이 되는 모집단이 잠재적 특성에 따라 다수의 이질적 소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는 혼합모형(mixture Modeling)에 해당한다(Muthén, 2001). 이질적 하위 집단들로 구성된 모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분석하게 된다면, 하위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정보를 놓치게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잠재프로파일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및 영향력을 확인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연구방법들이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이질적 수준의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혼합모형은 자료에 포함된 이질성을 토대로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소집단의 유형을 분류하는 분석 방법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교육학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임상 및 의학 등과 같은 다양한 학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Muthén, 2001; Muthén & Muthén, 2000).

1.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대상 총 567명의 자료 중 중학생 194명을 제외하고,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 3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IV-1>에 제시하였다.

<표 IV-1> 연구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73)

	구 분	빈 도	비 율(%)
성별	남	167	44.8
	여	206	55.2
학교급	고등학생	208	55.8
	대학생	165	44.2

나. 연구도구

1)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

이전 단계에서 문항개발 및 타당화하여 최종 선정된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 척도 34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88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정신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91, 타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확실성이 .91, 정신상태에 대한 관심/호기심이 .90으로 나타났다.

2)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ANAS)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78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정적정서가 .84, 부적정서가 .90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 마음챙김 척도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89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의식차원이 .76, 태도차원이 .83으로 나타났다.

4) 부모애착척도

Armsden과 Greenberg(1988)의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의 개정판(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IPPA-R은 부와 모의 애착을 분리시켜 측정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IPPA와 같이 부와 모의 애착을 분리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며, 또래애착 척

도는 제외하였다. IPPA-R은 총25문항, 3개의 하위요인(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해석한다. 단 소외감 영역은 역채점하여 적용하였다. 옥정(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부애착 .93, 모애착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부모 애착의 하위척도별 문항과 신뢰도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부모애착 문항구성과 신뢰도

(N=373)

구분	문항	문항수	Cronbach's α
신뢰감	1,2,3*,4,5,13,17*,18*,22,24	10	.91
소외감	6*,8*,9*,10*,11*,14*	6	.76
의사소통	7,12,15,16,19,20,21,23*,25	9	.90
전체			.95

*: 역채점문항

5) 학교생활적응척도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95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은 학교공부 .85, 학교친구 .90, 학교교사 .91, 학교생활 .86으로 나타났다.

6) 경계선 성격척도(PAI-BOR)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87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정서적 불안정이 .70, 정체감 문제가 .63, 부정적 대인관계 .58, 자기손상 .77로 나타났다.

다. 연구방법

자료의 대략적 분포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SPSS 21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Mplus 7을 사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였다. 해석의 편의성을 위하여 LPA에 표준화Z점수가 사용되었다. 잠재프로파일분석에서는 자료의 속성에 근거한 집단 분류를 위하여 집단의 수를 점차적으로 증가시켜나가면서 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해 모형적합도를 확인한다(Tein, Coxe, & Cham, 2013). 이 때 제시되는 공통적 기준

은 정보지수(Information Criteria), 우도비 통계검증, Entropy 등이 활용된다. 첫째, 정보적합도 지수인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SABIC(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love, 1987)가 활용된다. 이들 모두 값이 작을수록 적합도가 우수함을 의미한다(Muthén & Muthén, 2006; 최현주, 장은비, 2021). 둘째, 모형비교 검증을 위하여 우도비 통계검증인 LMR(Lo-Mendell-Rubin Test, Lo, Mendell, & Rubin, 2001)와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Mclachlan & Peel, 2000)가 활용된다. 이들은 잠재계층의 수가 $k-1$ 개인 모형과 k 개인 모형과의 비교를 토대로 가설검증을 하게 되는데, $p > .05$ 이면 $k-1$ 개가, $p < .05$ 이면 k 개가 적합함을 의미한다. 셋째, 잠재 집단 분류의 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Entropy 값을 파악한다. Entropy 수치는 0에서 1사이에 분포하게 되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Muthén, 2004).

이에 더하여 잠재프로파일 모형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정량적 지표 이외에 간결성의 원칙(rule of parsimony)에 따라 프로파일별 개체소속비율과 프로파일 모양을 검토할 수 있다. 표본 대비 분류된 잠재프로파일의 최소비율에 대한 기준은 연구자들마다 다소 차이를 보인다. Hipp & Bauer(2006)와 Jung & Wickrama(2008)은 전체 표본의 5%를 최소 비율의 기준으로 보았고 Noonan, Litrownik, Thompson, Margolis, English, Knight, Roesch(2010)의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의 1%를 최소 비율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분류된 잠재 집단에 대한 해석 가능성을 확인하여 최적의 모형을 설정한 후 집단별 특성에 맞춰 이름을 명명하게 된다.

2. 연구결과

가.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주요변인 간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산출을 통해 변인들간의 전반적 관계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 IV-3>, <표 IV-4>에 제시하였다. 연구변수들은 경계선 성격특성 척도(PAI-BOR)와 학교생활적응척도의 경우 4점 척도, 나머지 척도들은 5점 척도이다. 불확실성 평균은 2.51, 확실성은 3.23, 관심/호기심은 3.85, PANAS(정적정서)는 3.08, PANAS(부적정서)는 2.68, 마음챙김은 3.53, 경계선 성격특성은 2.36, 학교생활적응은 2.97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불확실성과 PANAS(정적 정서)간에는 약한 부적 상관($r = -.17$, $p < .01$), PANAS(부적 정서)간에는 다소 높은 정적 상관($r = .531$, $p < .01$)로 나타났다.

다. 마음챙김과 부적상관($r=-.257, p<.01$), 부모애착과 부적상관($r=-.327, p<.01$), 학교생활적응($r=-.261, r<.01$)과 부적상관으로 나타났으며, 경계선 성격특성과는 다소 높은 정적상관($r=.611, p<.01$)로 나타났다. 확실성은 관심/호기심과 정적상관($r=.371, p<.01$), PANAS(정적 정서)와 정적 상관($r=.216, p<.01$), 마음챙김과 정적 상관($r=.373, r<.01$), 학교생활적응과 약한 정적상관($r=.127, p<.05$)로 나타났다. 관심/호기심은 PANAS(정적 정서)와 정적 상관($r=.206, p<.01$), 마음챙김과 정적 상관($r=.421, p<.01$), 부모애착과 약한 정적 상관($r=.146, p<.01$), 학교생활적응과 정적 상관($r=.264, p<.01$)으로 나타났으며, 경계선 성격특성과 약한 정적상관($r=.103, p<.05$)을 나타냈다. PANAS(부적정서)는 불확실성과 다소 높은 정적 상관($r=.531, p<.01$), 경계선 성격특성과 다소 높은 정적 상관($r=.590, p<.01$)로 나타났다. PANAS(정적 정서)와 약한 부적 상관($r=-.180, p<.01$), 마음챙김과 부적 상관($r=-.324, p<.01$), 부모애착과 부적 상관($r=-.382, p<.01$), 학교생활적응과 부적상관($r=-.284, p<.01$)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은 불확실성과 부적상관($r=-.261, p<.01$), 확실성과 약한 정적 상관($r=.127, p<.01$), 관심/호기심과 정적 상관($r=.264, p<.0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ANAS(정적 정서)와 다소 높은 정적 상관($r=.520, p<.01$), 마음챙김과 다소 높은 정적 상관($r=.572, p<.01$), 부모애착과 정적 상관($r=.373, p<.01$)로 나타났으며, PANAS(부적 정서)와 부적 상관($r=-.284, p<.01$), 경계선적 성격특성과 부적 상관($r=-.262, p<.01$)로 나타났다.

<표 IV-3> 주요변인 기술통계

(N=373)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불확실성	2.51	.82	1.00	4.80	.30	-.38
확실성	3.23	.77	1.00	5.00	-.14	-.19
관심/호기심	3.85	.68	1.08	5.00	-.61	.70
PANAS(정적 정서)	3.08	.74	1.00	5.00	-.12	.05
PANAS(부적 정서)	2.68	.91	1.00	5.00	.04	-.69
마음챙김	3.53	.62	1.00	5.00	-.27	.87
부모애착	3.51	.78	1.31	5.00	-.43	-.30
경계선 성격특성	2.36	.49	1.21	3.78	.25	-.34
학교생활적응	2.97	.50	1.00	4.00	.27	.37

<표 IV-4> 주요변인 상관분석

(N=373)

	1	2	3	4	5	6	7	8	9
1. 불확실성	-								
2. 확실성	-.03	-							
3. 관심/호기심	.02	.37**	-						
4. PANAS(정적정서)	-.17**	.22**	.21**	-					
5. PANAS(부적정서)	.53**	-.04	.02	-.18**	-				
6. 마음챙김	-.26**	.37**	.42**	.65**	-.32**	-			
7. 부모애착	-.33**	.02	.15**	.26**	-.38**	.36**	-		
8. 경계선 성격특성	.61**	-.02	.10*	-.21**	.59**	-.28**	-.42**	-	
9. 학교생활적응	-.26**	.13*	.26**	.52**	-.26**	.57**	.37**	-.25**	-

**p<.01, *p<.05

나. 성찰기능의 3가지 하위요인과 경계선성격성향 및 마음챙김의 잠재프로파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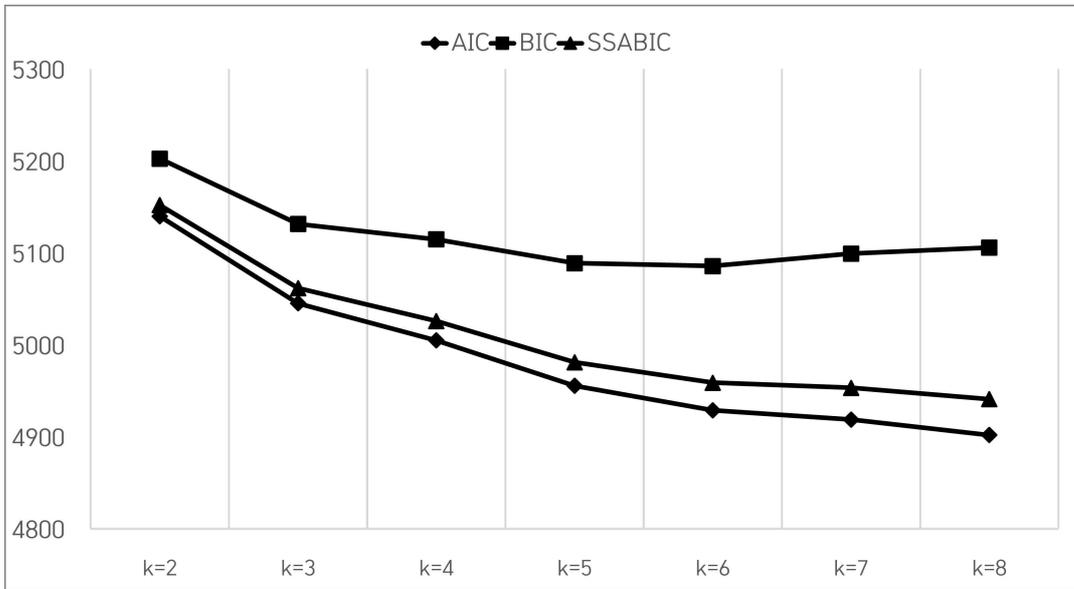
불확실성, 확실성, 관심/호기심으로 구성된 성찰기능의 3가지 하위요인과 경계선 성격성향 및 마음챙김으로 구성된 하위 집단을 규명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적의 잠재 프로파일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프로파일의 개수를 $k=2$ 에서 $k=8$ 으로 증가시키면서 총 7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해보았다. 우선 정보적합도 지수 중 AIC와 SSABIC는 $k=2\sim 8$ 으로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BIC는 $k=2\sim 6$ 으로 증가하면서 감소하다가 $k=7$ 이 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k=6$ 일 때 가장 낮았다. 모형비교검증 중 LMR은 $k=2, k=3, k=5$ 에서 유의하였고 $k=4, k=6$ 이상인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BLRT는 $k=2\sim 8$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분류의 질인 Entropy는 $k=6$ 일 때 0.782로 가장 높았고, $k=3$ 일 때 0.685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AIC, SSABIC는 $k=8$ 인 모형을, BIC, Entropy는 $k=6$ 인 모형을, LMR은 $k=3, k=5$ 인 모형을, BLRT는 어떤 모형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효율적으로 모집단을 대표하는 프로파일을 찾기 위하여 분류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통계적 관점에서 5% 미만의 집단이 포함된 프로파일의 경우 너무 많은 프로파일 수를 추출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살펴봐야 한다는 연구도 있으나 (Hipp & Bauer, 2006; Merz & Roesch, 2011), 인간 행동의 특수한 측면을 연구하기 위한 상담 및 임상 분야에서는 1% 정도의 소수 집단에도 관심을 가진다(김동

일, 이윤희, 김영근, 강민철, 2013; 이주영, 오경자, 2010). 본 연구에서는 비임상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찰기능수준의 일반적 형태뿐만 아니라 성찰기능의 결핍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소수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어 질적으로 구분되는 다른 형태의 프로파일이 나타나는지에 주의를 기울였다(최현주, 조민희, 2014; 강민철, 조현주, 이종선, 2013). 그 결과, 잠재프로파일 7개 이후부터는 새로운 특성을 지닌 하위 집단이 등장하지 않았고, 기존 집단과 유사한 패턴의 프로파일이 수치만 조금 높거나 낮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k=8$ 인 모형은 최적의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나머지 $k=3, k=5, k=6$ 가운데 $k=3$ 은 $k=5, k=6$ 에 비해 AIC, SSABIC수치가 두드러지게 높아 제외되었다. 따라서 $k=5$ 와 $k=6$ 중 하나를 최적의 잠재프로파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게 여겨졌으며, 적합도 지수 및 통계적 유의도 검증 결과, 잠재프로파일의 분류율, 그리고 고유한 특성을 지닌 잠재프로파일의 존재 여부에 기반한 해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모형 개수를 6개로 선정하였다.

<표 IV-5>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적합도 비교

분류기준	잠재프로파일 수(k)								
	2	3	4	5	6	7	8		
정보적합도 지수	AIC	5139.855	5045.097	5004.826	4955.511	4928.860	4918.797	4901.828	
	BIC	5202.600	5131.372	5114.630	5088.845	5085.723	5099.190	5105.750	
	SSABIC	5151.836	5061.572	5025.795	4980.973	4958.815	4953.245	4940.769	
통계적 유의도	LMR	0.0023	0.0458	0.0870	0.0438	0.4786	0.2083	0.3384	
	BLRT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300	0.0000	
분류의 질	Entropy	0.704	0.685	0.726	0.769	0.782	0.759	0.768	
집단 소속 비율 (%)	2	61.0	29.0						
	3	35.6	23.2	41.2					
	4	2.5	29.0	34.8	33.6				
	5	5.0	2.7	36.7	32.4	23.2			
	6	2.4	29.7	31.7	4.8	29.0	2.4		
	7	2.4	11.2	27.0	27.4	25.7	4.3	2.1	
	8	2.3	17.1	13.6	25.6	20.3	3.7	15.5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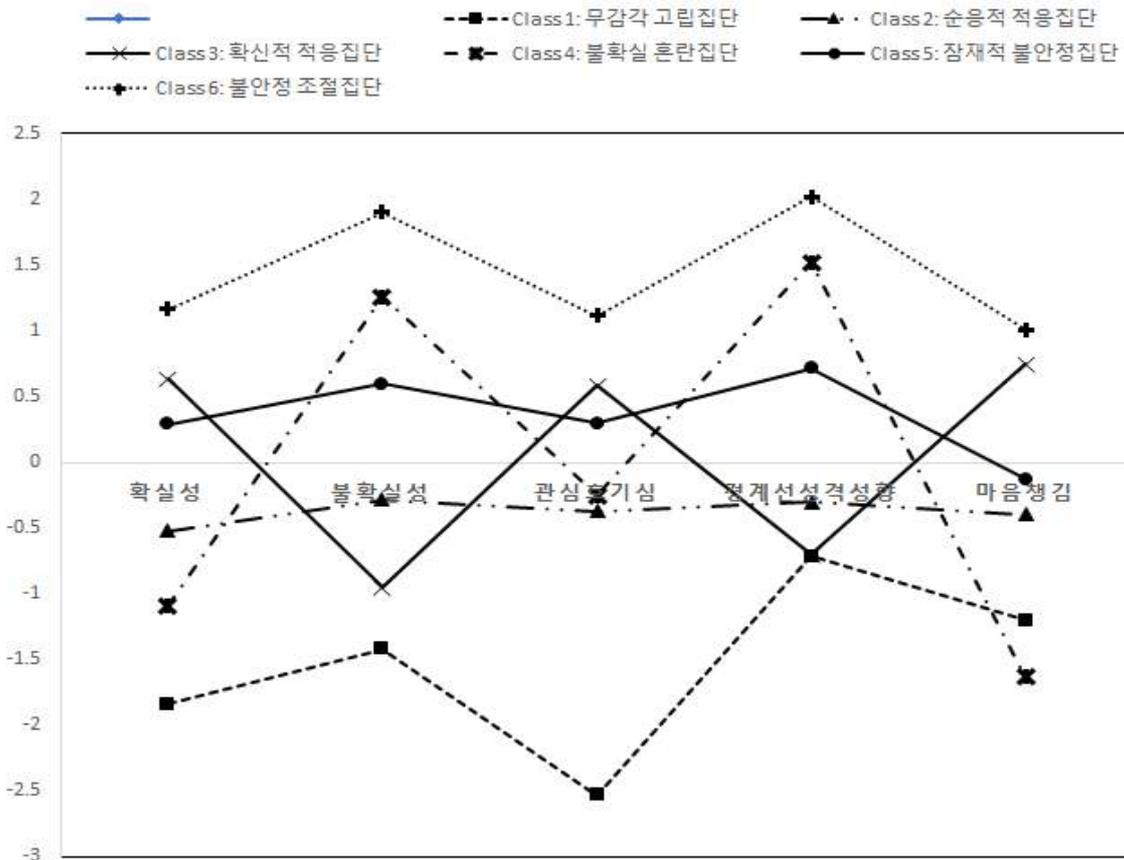
[그림 IV-1] 잠재프로파일 개수(k)에 따른 정보적합도 지수

잠재프로파일로 분류된 6개 집단의 잠재평균 및 표준오차의 추정치는 <표 IV-6>에 제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따른 각 집단별 지표(확실성, 불확실성, 관심/호기심, 경계선적 성격성향, 마음챙김)의 평균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집단별 지표 모두 분산의 동질성 가정을 만족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 간 통계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검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IV-6> 집단별 잠재평균 추정치 및 F검증결과

구분	Class 1		Class 2		Class 3		Class 4		Class 5		Class 6		F (Scheffe 사후검정)
	무감각 고립집단 (N=8)		순응적 적응집단 (N=111)		확신적 적응집단 (N=121)		불확실 혼란집단 (N=20)		잠재적 불안정집단 (N=104)		불안정 조절집단 (N=9)		
	M	SE	M	SE	M	SE	M	SE	M	SE	M	SE	
확실성	-1.88	.20	-.58	.06	.69	.07	-1.08	.19	.29	.07	1.24	.39	59.059*** 1 < 2 < 5 < 3, 6 4 < 5 < 3, 6
불확실성	-1.43	.21	-.30	.06	-.95	.05	1.23	.14	.65	.07	1.84	.30	114.691*** 1,3 < 2 < 5 < 4, 6
관심/ 호기심	-2.72	.27	-.45	.07	.61	.07	-.28	.19	.35	.07	1.15	.22	51.542*** 1 < 2, 4 < 5, 3, 6
경계선 성격성향	-.74	.31	-.33	.06	-.72	.06	1.48	.13	.79	.06	2.07	.13	114.150*** 1 < 5 < 4, 6 3 < 2 < 5 < 4, 6
마음 챙김	-1.26	.51	-.46	.06	.77	.07	-1.70	.19	-.07	.07	1.11	.18	67.279*** 1 < 5 < 3, 6 4 < 2 < 5 < 3, 6

***p<.001



[그림 IV-2] 잠재프로파일 그래프

잠재평균 및 프로파일 특성을 고려하여 하위집단의 명칭을 부여한 결과는 <표 IV-6>, [그림 IV-2] 와 같다. 첫 번째 집단은 8명(2.4%)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6개 집단 중 성찰기능의 3가지 요인과 경계선적 성격성향요인에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내었으며 마음챙김 요인에서도 낮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비교적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하게 알고 있으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파악함에 있어 무감각하며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하거나 이면의 마음 상태에 대해 무관심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은 타인들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만의 경계를 확고히 한 채 자기 내면의 세계에 치우쳐 생활함으로써 외부의 현실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과 차단된 채 고립되어 살아갈 것으로 예상되어 ‘무관심 고립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111명(29.7%)으로 6개의 하위집단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들은 불확실성이 비교적 낮은 평균, 확실성과 관심/호기심이 보통수준의 평균을 유지하였다. 경계선 성격성향이 비교적 낮은 평균, 마음챙김이 보통 평균에 해당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마음상태 뿐만 아니라 타인의 마음상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판단함으로써 보편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하며, 적응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뚜렷한 불평불만이나 저항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 ‘순응적 적응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121명(3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불확실성이 낮은 평균에 해당하며 확실성과 관심/호기심이 높다. 또한 경계선 성격성향이 낮은 평균에 해당하며, 마음챙김은 높은 집단에 해당한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토대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내면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것으로 추측된다.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현재 자신이 처한 현실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대응해나감으로써 전반적인 생활영역에서 적응적일 것이라 여겨져 ‘확신적 적응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집단은 20명(4.8%)으로 불확실성과 경계선적 성격성향이 높은 집단에 해당하며, 확실성과 관심/호기심이 비교적 낮은 평균, 마음챙김이 가장 낮은 평균에 해당하였다. 이들은 심리내적 현실과 외부세계를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압도되어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심리적 상태에 더하여 타인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여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마음챙김의 여력도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어 ‘불확실 혼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집단은 104명(29%)으로 불확실성, 확실성, 관심/호기심이 어느 정도 높은 평균을 유지하고 있다. 경계선적 성격성향 역시 어느 정도 높은 평균을 유지하고 있으며 마음챙김은 보통 수준의 평균에 해당하였다. 이들은 발달적 트라우마가 있다기보다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보편적 특성(취약성)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서적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경우 심리적 불편감이 강하게 표출되지 않아 외부적으로는 무난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패턴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집단으로 추정되어 ‘잠재적 불안정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집단은 9명(2.4%)으로 불확실성, 확실성, 관심/호기심, 경계선적 성격성향, 마음챙김의 5가지 요인 모두에서 가장 높은 집단에 해당하였다. 이들은 외부자극에 대한 강렬한 정서경험으로 내면적 안정감이 자주 저해될 수 있으며 심리외적 경험과 내적 경험간의 불일치로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고 살피는 것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타인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매 순간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정서적 경험들을 부단한 노력으로 조절해 가며 일상생활 속 적응력을 키워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불안정 조절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 분류된 잠재프로파일 집단별 관련 변인들(정적정서, 부적정서, 부모애착, 학교생활적응)과의 차이 비교

비임상군 청소년 성찰기능수준별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결정된 이후 청소년의 성찰능력유형에 따라 관련 변인들(정적정서, 부적정서, 부모애착, 학교생활적응)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3단계 접근법(3-step approach)을 사용하였다. 이는 잠재프로파일 지표가 독립변수나 결과변수와 함께 모형에 포함되면 잠재프로파일 분류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개발된 방법이다(Asparouhov & Muthén, 2014). 3단계 접근법을 활용하게 되면 분류 시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고 분류 오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추정하고 잠재프로파일별로 개인을 분류한 후 잠재프로파일을 더미변수화하여 독립변수나 종속변수 등의 다른 변수와 관계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는 분류 오류(classification error)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가지는데, 3단계 접근법을 활용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3단계 접근법의 1단계는 잠재프로파일 지표들을 활용하여 독립변수나 종속변

수가 없는 기본 잠재프로파일모형을 추정한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얻어진 잠재프로파일 사후분포를 활용하여 가장 확률이 높은 프로파일 변수를 생성한다. 마지막 3단계는 분류 오류를 고려한 상태에서 독립변수나 결과변수가 2단계에서 얻어진 프로파일 분류에 미치는 영향 혹은 분류된 프로파일에 따른 결과변수의 차이를 알아본다(Asparouhov & Muthén, 2014).

이러한 3단계 접근법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찰기능 수준의 유형(무감각고립, 순응적적응, 확신적적응, 불확실혼란, 잠재적불안정, 불안정조절 집단)에 따라 관련변인들(정적정서, 부적정서, 부모애착, 학교생활적응)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IV-7>에 제시된 것과 같이 6개 잠재프로파일 유형은 관련변인들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적 정서에서는 확신적 적응집단($M=0.54$)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잠재적 불안정 집단($M=0.01$), 순응적 적응집단($M=-0.28$), 불확실 혼란집단($M=-1.61$)의 순서로 나타났다. 무감각 고립집단($M=-0.83$)은 확신적 적응집단보다 낮았고, 불안정 조절집단($M=0.38$)은 불확실 혼란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집단들과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부적 정서는 불확실 혼란집단($M=0.91$), 순응적 적응집단($M=-0.24$), 확신적 적응집단($M=-0.65$)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확신적 적응집단($M=-0.65$)은 불확실 혼란집단($M=0.91$), 잠재적 불안정집단($M=0.81$)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순응적 적응집단($M=-0.24$)은 불확실 혼란집단($M=0.91$), 불안정 조절집단($M=0.7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감각 고립집단($M=-0.81$)은 불확실 혼란집단($M=0.91$), 잠재적 불안정 집단($M=0.81$), 불안정 조절집단($M=0.7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애착은 확신적 적응집단($M=0.55$)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순응적 적응집단($M=-0.01$)이 높았으며, 불안정 조절집단($M=-0.96$), 불확실 혼란집단($M=-0.82$), 잠재적 불안정집단($M=-0.39$)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 조절집단($M=-0.96$)은 확신적 적응집단($M=0.55$), 순응적 적응집단($M=-0.01$), 무감각 고립집단($M=0.06$)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은 확신적 적응집단($M=0.56$), 불안정 조절집단($M=0.75$)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순응적 적응집단($M=-0.11$), 잠재적 불안정집단($M=-0.33$)이 높았으며, 불확실 혼란집단($M=-1.03$)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감각 고립집단($M=-0.72$)은 확신적 적응집단($M=0.56$), 불안정 조절집단($M=0.75$)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프로파일별 관련변인들(정적정서, 부적정서, 부모애착, 학교생활적응)과의 차이

변인	Class 1 무감각 고립집단	Class 2 순응적 적응집단	Class 3 확신적 적응집단	Class 4 불확실 혼란집단	Class 5 잠재적 불안정집단	Class 6 불안정 조절집단	χ^2	<i>post-hoc</i>
정적정서	-0.83(.56)	-0.28(.10)	0.54(.10)	-1.61(.23)	0.01(.10)	0.38(.30)	83.28***	1 < 3 4 < 2 < 5 < 3 4 < 6
부적정서	-0.81(.39)	-0.24(.11)	-0.65(.09)	0.91(.27)	0.81(.09)	0.73(.29)	167.926***	1 < 5, 4, 6 3 < 2 < 6 2 < 4, 6 3 < 4, 5
부모애착	0.06(.33)	-0.01(.11)	0.55(.09)	-0.82(.33)	-0.39(.12)	-0.96(.28)	65.634***	5, 6, 4 < 2 < 3 6 < 1, 2, 3
학교생활 적응	-0.72(.60)	-0.11(.12)	0.56(.90)	-1.03(.29)	-0.33(.11)	0.75(.33)	68.805***	1 < 3, 6 4 < 2, 5 < 3, 6

*** $p < .001$

V. 논의 및 제언

1. 결론 및 논의

최근 정신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정신화(성찰기능)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다. 정신화를 평가하는 척도를 명명함에 있어 정신화와 성찰기능은 아직 학자들간에 용어가 통일되지 않아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정신화개념을 처음 제시한 Fonagy와 동료연구자들이 정신화를 성찰기능이라는 조작적 정의로 명명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원저자들의 뜻을 따라 성찰기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Fonagy와 동료연구자들이 개발한 청소년용 성찰기능질문지(RFQY)를 중심으로 하여 국내 실정에 맞추어 번안 및 타당화한 다양한 성찰기능 및 정신화 척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범위한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검토 및 문헌 고찰, 전문가의 2차 내용 평정의 과정을 거쳐 총36개의 예비 문항을 구성하였다.

Duval 등(2018)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은 만 12~21세 청소년이었으며, 박민경의 연구(2019)에서는 만13~21세의 중학생, 고등학생, 후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대학생까지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자립을 위한 준비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기가 연장되고 있는 요즘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범위를 중, 고생 뿐만 아니라 성인진입기(Arnett, 2013)에 해당하는 20대 초반까지의 발달적 구간을 포함하는 대학생까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법에서 규정된 청소년들의 연령기준에 근거하여 24세까지의 대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14~24세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중인 567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케이스 무작위표본추출을 통한 과일분할로 314명의 랜덤추출집단을 도출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 개발된 척도의 요인 구조 확인 및 모형 적합도 검증을 위해 311명의 새로운 랜덤집단을 추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3요인 구조(확실성, 불확실성, 관심/호기심), 34개의 척도 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기존 척도들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별타당도, 수렴 및 변별타당도, 공준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척도를 타당화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총34문항,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성찰기능척도를 개발하였다.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초 문항 개발을 위하여 Duval 등(2018)이 개발한 RFQY(Reflective Functioning Questionnaire for Youth)를 박민경(2019)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기반으로 Fonagy와 동료들(2016)이 제시한 구성개념을 기초로 국내 연구자들이 개발(박세미, 2016)하거나 국외에서 개발한 연구를 번안 및 타당화한 연구들(김홍주, 김은영, 2018; 박민경, 송현주, 2018, 박민경, 2019; 차혜명, 2018)을 검토하고 종합한 후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토 과정을 거쳐 전체 3가지 요인의 총36문항을 도출하게 되었다. 3가지 하위요인은 정신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타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확실성, 정신상태에 대한 관심/호기심이다.

둘째, 본 연구의 예비 문항들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3요인 34문항으로 재정리되었다. 본 연구는 박민경(2019)이 보고한 청소년성찰기능척도(RFQY)와 3요인 구조로 동일하다. 박민경의 연구는 총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총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확실성 요인은 박민경의 연구에서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요인부하량이 .40이하인 두 개의 문항이 탈락하고, ‘내가 왜 그 행동을 했는지 항상 알지는 못한다’, ‘내가 뭔가를 느낀다는 것은 알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등의 7문항이 추가되었다. 최종 13문항으로 구성된 본 연구의 불확실성요인은 주로 정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감정이 어떠한지 이해하지 못하여 혼란스러운 상태이거나 정서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확실성 요인은 박민경의 연구에서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 직감은 정확하다’, ‘어떤 사람과 몇 마디 얘기만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등의 3문항이 추가되었다. 최종 9문항으로 구성된 확실성요인은 성찰기능의 실패에 해당하는 타인의 마음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타인의 마음에 대한 불투명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신 상태를 의미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확실성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타인의 마음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 이면에 있는 상대방의 느낌, 욕구, 동기 등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확실성이 적용적으로 기능하여 타인에 대한 정서적 민감성으로 작용하게 되면 타인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관심/호기심 요인은 박민경의 연구에서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누군가의 행동을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의 사고, 소망, 그리고 느낌을 알 필요가 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처지에서도 살펴보려고 한다’ 등의 6문항이 추가되었다. 최종 12문항으로 구성된 관심/호기심 요인은 상대방의 관점에 대한 고려와 타인의 마음이나 행동에 대해 궁금해하며 이해하고자 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는 박민경의

연구에서 불확실성 .88, 확실성 .84, 관심/호기심 .72로 나타났고, Duval 등(2018)의 연구에서 .89, .90, .7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 .89, 확실성 .90, 관심/호기심 .89으로 나타났다.

셋째, Fonagy와 동료연구자들은 성찰기능의 평가를 위하여 46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성찰기능질문지(RFQ)를 개발하였다(미발표본). 46문항의 RFQ는 각 23문항씩 A와 B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A척도는 중간값 채점방식(the median scoring)으로, B척도는 리커트식 채점방식으로 각각의 채점방식이 상이하다. 중간값 채점방식은 ‘나는 내 감정이 무엇인지 항상 안다’와 같은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나 ‘매우 그렇다’가 아닌 ‘어느 정도 그렇다’와 같은 중간 점수에 동의할 경우 높은 성찰점수로 평가한다. 리커트식 채점방식은 ‘나는 타인의 관점을 완전히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은 점수에 응답할수록 높은 성찰기능을 나타낸다. 이후 Fonagy 등(2016)은 정신화 능력의 기저에 존재하는 심리적 과정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간값 채점방식의 척도를 채택하여 자기보고식 성찰기능척도(RFQ)를 개발 및 타당화하였다. 하지만 중앙값 채점방식을 사용하여 성찰기능을 평가하였을 때 정신병리 및 여타 정신화척도들과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제한점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Duval 등(2018)은 중앙값 채점방식을 재검토하여 표준 리커트식 연속 채점방법을 적용하여 청소년용 성찰기능 질문지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Fonagy식 중앙값 채점방식의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리커트식 연속 채점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넷째, 본 연구는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 타당화를 위하여 카이 스퀘어 차이분석을 통하여 각 모형의 카이 스퀘어 값 및 3요인($\chi^2(df=518)=919.522$; CFI=.910; TLI=.902; RMSEA=.050), 2요인($\chi^2(df=526)=1810.482$; CFI=.711; TLI=.691; RMSEA=.089), 1요인($\chi^2(df=528)=3079.081$; CFI=.425; TLI=.389; RMSEA=.125) 모형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모형의 관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모형적합도(model fit)와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모형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chi^2=919.522$, TLI=.902, CFI=.910, RMSEA=.050, SRMR=.639로 전반적으로 좋은 적합도 지수로 나타나 양호한 측정모형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준타당도, 수렴 및 변별타당도 결과를 통하여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공준타당도 결과 불확실성 요인은 경계선 성격특성($r=.58$, $p<.01$)과 다소 높은 정적 상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렴 및 변별타당도 결과 불확실성요인은 부적정서($r=.59$, $p<.01$), 대인예민증($r=.57$, $p<.01$), 편집증($r=.54$, $p<.01$)과 다소 높은 정적상관, 마음챙김($r=-.29$, $p<.01$), 학교생활적응($r=-.28$, $p<.01$)과 부적상관으로 나타났다. 관심/호기심 요인

은 마음챙김($r=.41, p<.01$), 학교생활적응($r=.24, p<.01$)과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 확실성요인은 마음챙김($r=.30, p<.01$), 관심/호기심($r=.44, p<.01$)과 정적 상관으로 나타나 성찰기능의 적응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확실성요인과 불확실성요인간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임상군 청소년집단에서 확실성요인이 불확실성 요인과 같은 성찰기능의 실패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적응적 측면을 반영하는 간접적 근거로 여겨졌다. 하지만 박민경(2019)의 연구에서 확실성요인은 경계선적 성격특성($r=.33, p<.001$), 자기애성 성격특성($r=.26, p<.001$), 우울($r=.21, p<.001$) 및 불안($r=.22,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나 비정신화의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확실성요인은 불확실성($r=.32, p<.001$)과 정적상관, 관심/호기심($r=.40, p<.001$)과도 정적상관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성찰기능척도를 활용하여 확실성요인에 대한 변별 타당도를 재검증하고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는 비임상군 청소년들의 성찰 능력 식별을 위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Fonagy와 Bateman(2016)의 연구에서도 정신화기반치료를 실시하기 전 처음 단계에서 성찰기능 프로파일을 평가함으로써 정신 상태의 기저에 작용하는 내담자들의 다양한 성찰기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찰기능의 3가지 하위요인에 경계선 성격성향 및 마음챙김의 2가지 하위요인을 추가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프로파일에 따른 정적정서, 부적정서, 부모애착,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임상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잠재프로파일분석결과 확실성 요인은 성찰기능의 적응적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음 성찰기능척도(RFQ)는 임상 집단의 경계선성격장애환자를 대상으로하여 정신화 결핍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되었다. Fonagy와 동료연구자들은 정신상태에 대한 확실성 점수가 아주 높다는 것은 정신상태가 지닌 모호함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자신의 성찰 능력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오히려 성찰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안명희, 정유선, 2023).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확실성은 임상집단이 아닌 비임상집단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들에게 확실성은 타인의 마음 상태를 짐작하고 예측하여 이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상관분석결과 확실성요인은 관심/호기심, 정적 정서, 마음 챙김과 강한 정적 상관, 학교생활적응과 보통 수준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잠재프로파일분석결과 적응적 집단에 해당하는 확신적 적응집단과 순응적 적응집단은 불확실성 및 경계선 성격성향의 평균이 비교적 낮고, 확실성 및 관심/호기심과 마음챙김의 평균이 보통수준이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임

상 청소년집단에서 확실성요인은 적응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확실성이 가장 높은 집단에 해당하는 확신적 적응집단과 불안정 조절집단은 관심/호기심 및 마음챙김요인의 평균이 함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집단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을 인식하고 평정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지속해가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학교생활적응의 평균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비임상 청소년집단에서 확실성요인은 성찰기능 곤란의 지표로 작용하기보다는 관심/호기심과 함께 성찰 기능의 적응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비임상집단의 경우 확실성척도가 정신화의 적응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Fonagy와 동료연구자들의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Schwarzer, Nolte, Fonagy, & Gingelmaier, 2021). 한편 최근 해외에서도 성찰기능척도의 확실성요인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확실성요인만을 척도로 개발한 연구가 소개되었다. Müller 등(2023)은 확실성척도(CAMSQ)연구에서 확실성요인이 너무 높거나 낮을 경우 부적응적이며, 자기-확실성이 타인-확실성에 비해 높아야 심리 기능이 적응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비임상군 청소년들의 성찰기능수준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6개의 잠재집단이 도출되었다. Class 1은 총8명(2.4%)에 해당되었으며, 성찰기능의 3가지 요인과 경계선적 성격성향 요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무관심 고립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외부 세계나 타인과의 관계에 무심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Class 2는 총111명(29.%)으로 불확실성과 경계선 성격성향이 비교적 낮은 평균, 확실성 및 관심/호기심과 마음챙김이 보통수준의 평균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순응적 적응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적절하게 인식하여 행동함으로써 적응적인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Class 3은 총121명(4.8%)으로 6개 집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불확실성과 경계선 성격성향이 낮은 평균에 해당하고 확실성 및 관심/호기심과 마음챙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확신적 적응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관계를 맺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Class 4는 총20명(4.8%)으로 불확실성과 경계선 성격성향이 높은 집단, 관심/호기심이 비교적 낮은 평균, 마음챙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불확실 혼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극심한 혼란감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불편감이 증폭되고 있으나 이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문제 상황들에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Class 5는 총104명(29%)으로 불확실성, 확실성, 관심/호기심,

경계선적 성격성향에서 어느 정도 높은 평균을 유지하고 있으며 마음챙김이 보통 수준의 평균에 해당하여 ‘잠재적 불안정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전반적인 사춘기 청소년들의 특성을 보이는 집단으로 외적으로 별 탈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여 질 수 있으나 내적으로는 심리적 기복에 따른 급격한 감정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Class 6은 총9명(2.4%)로 불확실성, 확실성, 관심/호기심, 경계선적 성격성향, 마음챙김의 5가지 요인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불안정 조절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외부 자극에 대한 강렬한 내적 충동들로 인하여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나, 평소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마음을 진정시키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지속해 나가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6개 집단의 분포를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확신적 적응집단과 순응적 적응집단이 전체의 67.7%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재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처한 내·외적 상황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과 타인의 마음 상태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적응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한편 불안정 조절집단과 잠재적 불안정집단의 경우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적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내면의 정서적 혼란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심리 내적 불편감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져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집단으로 보여진다. 불확실 혼란집단은 전체의 4.8%를 차지하며 6개 집단 중 심리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심리 내적 현실과 외부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여 극도의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여 심적 고충이 가중됨으로써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들을 위한 다양한 개입과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무관심 고립 집단은 2.4%에 해당하는 소수의 청소년들에 해당하지만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외면한 채 자신만의 세계안에서 폐쇄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것으로 여겨져 성인기로의 이행전인 청소년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집단으로 여겨진다.

셋째, 분류된 프로파일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부모애착, 학교생활적응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우선 잠재프로파일에 있어 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적 정서는 확실성, 관심/호기심, 마음챙김과 정적 관계를, 불확실성과 경계선 성격성향과는 부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정적 정서의 경우 확신적 적응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잠재적 불안정 집단, 순응적 적응집단, 불확실 혼란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확신적 적응집단은 무감각 고립집단의 평균보다 높으며, 불안정 조절집단은 불확실 혼란집단의 평균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성찰기능수준이 높을수록 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여러 선행 연구들과 일치한다(최희숙, 주영아, 2020; 김홍주, 김은영, 2018; Fonagy & Bateman, 2006). 그리고 순간순간의 알아차림을 통한 마음챙김은 습관화되어 있는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탈자동화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인식을 촉진하고 타인의 마음상태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호기심을 추구한다는 선행연구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Allen, Fonagy & Bateman, 2008; Bateman, Fonagy, 2006). 부적 정서는 불확실성, 경계선 성격특성과 정적 관계를, 마음챙김과 부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부적 정서의 경우 불확실 혼란집단, 순응적 적응집단, 확신적 적응집단의 평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확신적 적응집단은 불확실 혼란집단과 잠재적 불안정집단의 평균보다 낮으며, 순응적 적응집단은 불확실 혼란집단과 불안정 조절집단의 평균보다 낮았다. 무감각 고립집단은 불확실 혼란집단, 잠재적 불안정 집단, 불안정 조절집단의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적 정서의 경우 성찰기능수준의 저하로 자신의 마음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내적 통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순간순간의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받게 되어 부정적 감정에 매몰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박응임, 이은경, 2020).

부모 애착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애착은 확신적 적응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순응적 적응집단의 평균이 높았으며, 불안정 조절집단, 불확실 혼란집단, 잠재적 불안정 집단의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 조절집단은 확신적 적응집단, 순응적 적응집단, 무감각 고립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확신적 적응집단과 순응적 적응집단의 경우 불확실성 요인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이는 아이의 마음을 적절히 반영해주는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자신과 타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표상을 비교적 명확히 형성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Fonagy, 1989; Fonagy & Target, 200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신적 적응집단과 불안정 조절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순응적 적응집단과 잠재적 불안정 집단이 높았으며, 불확실 혼란집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감각 고립집단은 확신적 적응집단과 불안정 조절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확신적 적응집단과 불안정 조절집단의 경우 확실성, 관심/호기심, 마음챙김의 3가지 하위요인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과 타인의 마음 상태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형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성찰 기능(Fonagy, Gergely, & Target, 2004)을 적극 활용하여 원활한 학교생활적응을 이

루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안정 조절집단의 경우 부모애착이 순응적 적응집단과 확신적 적응집단의 평균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적응정도가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성찰 능력의 형성 및 발달이 주양육자의 애착유형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나, 이후 타인들과의 새로운 상호작용 및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Fonagy, Gergely, Jurist, & Target, 2015)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어린 시절 외상을 경험하였다 하더라도 과거와 현재 애착 관계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스스로 취하는 성찰적 태도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비록 어린 시절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였더라도 이후 성찰 능력은 향상시킬 수 있으며 부정적 개인의 대처방식을 중재할 수 있다고 하는 연구결과(김선화, 2019)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불안정 조절집단의 경우 강렬하게 경험되는 정서적 자극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을 활용하여 심리적 문제 및 부적응적 문제행동을 처리함으로써 성공적 발달과업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 결과에 근거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함에 있어 성찰기능의 실패뿐만 아니라 성찰기능의 성공에 해당하는 측면을 하위요인에 포함함으로써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성찰기능의 향상 및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청소년기 정신화(성찰기능)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 및 대처, 정서 조절, 충동 조절, 자살이나 자해 등의 문제에 대한 예측 및 적절한 개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하여 비임상군 청소년집단에서 확실성요인이 성찰기능의 적응적 측면을 반영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는 비임상군 청소년들의 성찰기능이 경계선 성격성향 및 마음챙김과 이루는 다양한 집단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성인진입기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성찰기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적 개입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 6개 잠재집단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리라 여겨지는 불안정조절집단(Class 6), 불확실혼란집단(Class 4), 잠재적 불안정집단(Class 5), 무감각고립집단(Class 1)의 상담개입방안에 대해 제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불안정조절집단의 경우 상담자와의 안전한 관계 경

힘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강한 정서를 유발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정서 인식 및 조절, 보다 적응적이고 효과적인 대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불확실혼란집단의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신뢰롭고 안정적 관계를 토대로 하여, 정서가 급격히 각성될 때 그에 따른 반응패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이를 조절하기 위한 감정인식 및 공감 반응을 통해 감정을 헤아릴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심리내적 세계와 외부 세계를 관찰자적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마음 상태를 과장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잠재적 불안정 집단의 경우 청소년이라는 시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성찰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입방안들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신화 증진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은 자신 및 타인의 마음 상태에 초점을 둘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복잡한 정서적 상호작용을 자극하여 자신의 동기를 숙고하면서 타인의 동기에 대해 주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다(김을임, 김성지, 2023; Bateman & Fonagy, 2010). 이를 통하여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보다 명료하게 할 수 있으며, 부정적 정서에 직면하고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대인관계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무감각 고립집단의 경우 이들이 자신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사회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통하여 정서 경험의 폭과 깊이를 서서히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대인관계의 형성 및 유지를 위한 기술향상방안들을 익혀나갈 수 있도록 조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정신화(성찰기능)와 현재 상담심리영역에서 주목받고 있는 근거기반이론 및 공통요인이론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리라 기대한다. 근거기반이론은 근거를 기반으로 한 심리평가, 사례개념화, 치료관계, 치료개입을 통하여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공중보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다(APA, 2006). 전통적인 정신역동적 접근에서는 무의식(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치료개입에 대한 효과 정도를 측정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신화 개념 및 평가의 도입은 이러한 곤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신화가 정신역동과 애착이론 및 신경생물학적 접근을 포괄한 개념으로 최근 근거기반 평가 및 심리치료에 대한 강력한 시대적 요청에 부합할 수 있는 통합적 개념이기 때문이다(송현주, 최현아, 2017). 한편 심리치료의 효과는 특정한 상담이론이나 기법에 있다기보다 공통 요인(Common factor)에 의한 것이라

는 공통요인이론이 제기되었다(Wampold, & Imel, 2015). 이 중 상담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내담자와 치료자 사이의 작업동맹, 즉 치료적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Castonguay, & Beutler, 2006; Norcross, & Lambert, 2011). Fonagy 등(2018)도 정신화가 심리치료의 가장 근본적 공통요인이며, 상담자의 이론적 배경과 무관하게 정신화는 심리치료의 수행에 있어 핵심적 요인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위하여 진정한 성찰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상담자는 우선 자신의 마음을 챙기고 내담자에게 집중하는 순간순간의 상담과정 안에서 자신과 내담자의 마음 상태를 살피고 상호 조율해 나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의 내적 경험에 공명하고 조율해가며 자신의 언어와 비언언적인 측면 모두를 활용하여 내담자의 정신상태를 명료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내담자는 상담자와의 상호 관계안에서 자기 마음의 반영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Wallin, 2010).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신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 대상자의 학교급, 성별, 지역을 균등하게 확보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의 일반화를 위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학교급별, 성별, 지역별 표집이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을 분석함에 있어 중학생집단을 제외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추후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찰기능수준에 관한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성찰 기능이 학교급별로 어떠한 특성을 지니며 어떻게 발달되어 가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확실 혼란집단, 잠재적 불안정 집단, 불안정 조절집단의 경우 모두 부모 애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 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였다. 또한 확신적 적응집단과 불안정 조절집단의 경우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지는 못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집단을 분류하는 데 기여하는 다른 예측 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와 제언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를 통하여 척도의 보완과 지속적 연구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국내 정신화 연구 및 성찰기능척도에 대한 연구 및 활용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성찰기능의 결핍으로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를 위한 상담 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민진, 이지연 (2022). 정신화(Mentalization)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2), 257-273.
- 강민철, 조현주, 이종선 (2013). 우울, 불안, 수치심, 자살사고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873-896.
- 강수진, 최영희 (2019). 부모의 성인애착과 양육 행동 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 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22(4), 463-485.
- 강시은, 조원희, 엄명용 (2019). 1인가구 청년의 청년기 발달과업 수행에 대한 자신감 유형과 그 경제적 예측요인: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연구, 50(2), 53-81.
- 권재기 (2012). 학령후기 학교적응 프로파일과 관련된 개인, 가정환경 변인의 단기 종단적 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이용하여. 아동교육, 21(3), 147-167.
- 김경은, 정남운 (2018). 애착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정신화와 성장적 반추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3), 739-764.
- 김교현 (2008). 마음챙김과 자기조절 그리고 지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2), 285-306.
- 김동일, 이윤희, 강민철, 김영근 (2013). 청소년 인터넷중독 위험군에 대한 잠재집단 프로파일 분석. 상담학연구, 14(4), 2143-2162.
- 김미향 (2010). 중학생용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병직(2022). 서번트 리더십이 안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안전감이 매개 효과 및 조망 수용의 조절 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20(4), 301-308. <https://doi.org/10.14400/JDC.2022.20.4.301>
- 김사현, 홍경준 (2010). 잠재집단분석방법을 통한 서울시민의 복지태도 연구. 사회복지정책, 37(2), 95-121.
- 김선화 (201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학교부적응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애경, 김성봉(2020). 상담자 부정경험의 정서와 공감에 미치는 효과: 정서 수용과 자기자비훈련을 중심으로. 교류분석상담연구, 10(1), 73-97.
- 김애리, 김완일 (201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2), 315-331.
- 김용희 (2018). 대학생의 불안정 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와

- 긍정반추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6), 191-219.
- 김유리, 안도희 (2016). 청소년 마음챙김 다요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종합연구 14(2), 25-51.
- 김은석 (2023). 한국판 정신화 불균형 척도 타당화. 발달지원연구, 12(1), 71-93.
- 김은지, 이수림 (2023). 애착외상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정신화와 자기수용의 순차적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30(4), 157-177.
- 김은진, 이정운 (2009). 부모와의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 우울증상 및 갈등해결 전략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7(2), 55-68.
- 김을임, 김성지 (2023).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정신화와 고통 감내력의 매개효과. 동서정신과학, 26(1), 1-24.
- 김정호 (2004). 마음챙김명상의 유형과 인지행동치료적 함의. 인지행동치료, 4(2), 27-44.
- 김지선, 현명호 (2012). 사회적 상황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의 정서지각. 청소년학연구, 19(2), 255-274.
- 김찬양 (2015).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정서조절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찬양, 최한나 (2018).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정서조절의 관계: 마음챙김과 정신화의 매개효과. 복지상담교육연구, 7(1), 47-74.
- 김혜원 (2015). 여자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정서적 섭식행동: 정서조절과 인재왜곡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3(3), 29-42.
- 김혜율, 김영근 (2018). 정신화, 고통 감내력 및 경험회피의 관계: 정서인식 명확성의 매개된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4), 1219-1238.
- 김홍주 (2020). 청소년의 성찰기능에 관한 중단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홍주 (2020). 청소년의 정서적 외상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 성찰기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5), 1-35.
- 김홍주, 김은영 (2018). 한국판 청소년 성찰기능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297-316.
- 김홍주, 김은영 (2018). 한국판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 타당화 및 청소년의 초기외상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상담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8(8), 104-113.
- 김홍주, 박민주, 차혜명, 김은영 (2020). 공유된 의식, 표상의 현실 대 현실의 표상:

- 정신화의 이론적, 경험적, 임상적 함의와 한국적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4), 633-666.
- 문수진, 오소영, 이원혜, 홍민하, 민정원, 김봉석, 황준원, 우이혁, 반건호 (2012). 청소년용 정신화 프로그램의 학생정신건강 증진효과 평가.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3(3), 109-116.
- 문혜리, 김명찬 (2022). 정신화 연구동향 및 메타분석: 국내 상담 및 심리 분야 학술지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2(4), 785-807.
- 박민경 (2019). 부모 성찰기능 척도와 청소년 성찰기능 척도의 타당화 및 적용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민경, 송현주 (2018). 한국 청소년 대상 성찰기능 일차선별 질문지 타당화. 정서·행동장애연구, 34(2), 115-131.
- 박산하 (2018). 혼합분포 문항반응모형 적용을 위한 잠재집단의 이질성 수준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세미 (2016). 자기보고식 심리화(정신화)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세미, 정남운 (2019). 자기보고식 심리화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3), 929-965.
- 박응임, 이은경 (2020). 대학생의 정신화가 거부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분노조절에 의한 내면화된 수치심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5(4), 449-470.
- 박재서, 이다인, 김아란, 신성만 (2022). 한국판 문제적 음란물 소비 척도(PPCS-K)의 타당화 연구, 사회융합연구, 6(6): 97-111.
- 박홍석, 이정미 (2016). 정적정서 부적정서 척도(PANAS)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4), 617-641.
- 반건호 (2013). 애착이론으로부터 정신화까지: 배경과 임상적 의의." 精神分析 (Psychoanalysis), 24, 9-20.
- 서영주, 김영근 (2019). 성인의 아동기 성학대가 정신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상경험 개방에 대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2), 429-453.
- 성미영, 권기남 (2010). 유아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성이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지능 및 개인이해지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Human Ecology Research(HER), 48(2), 39-49.
- 송현주, 최현아 (2017). 16-17세 한국 청소년의 정신화 척도 요인구조 탐색.

-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3), 391-401.
- 신미경 (2019). 성 지향성 신념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안명희, 신희수 (201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2), 227-253.
- 안성식 (2019). 계획된 행동이론(TPB)에 따른 대학생 졸업 예측 척도 타당화와 대학생 졸업예측 변인과 진로 변인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32(4), 1-32.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불평등, 공정성 국민인식조사.
<https://ssri.yonsei.ac.kr>
- 옥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위유라, 노충래 (2014).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2), 203-227.
- 윤향숙, 황윤미, 김덕범, 장성화 (2011). 대학생의 자아분화,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서건강이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韓國教育論壇, 10(2), 1-25.
- 이가연, 신나나 (2020). 학령기 아동의 실행기능이 마음이론에 미치는 영향. 인지발달중재학회지, 11(3), 1-25.
- 이규미, 김명식 (2008).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 27-40.
- 이다영, 정남운 (2022). 외상경험 대학생의 사건중심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외상 후 성장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 연구, 22(13), 791-802.
- 이래현 (2019). 청소년의 대인관계 외상경험이 자기체계손상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문희, 이수림 (2013). 애착외상(attachment trauma)의 이해와 치료적 함의. 청소년상담연구, 21(2), 413-448.
- 이문희, 이수림 (2019). 한국판 모(母) 정신화 척도의 타당화. 재활심리연구, 26(1), 137-157.
- 이문희, 이수림 (2020). 모의 불안정 성인 애착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전-정신화와 양육스트레스의 매개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4(4), 51-70.
- 이문희, 이수림 (2020). 안정 애착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6), 598-608.
- 이미리, 조성연, 길은배, 김민 (2014). 청소년학개론. 서울: 학지사.

- 이성희, 김희동 (2022).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감성지능, 자기효능감과 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5), 737-752.
- 이수림, 이문희 (2014). 상담 및 심리치료 성과의 효과적 핵심 요인: 정신화의 이해와 적용. 인간연구, 0(27), 95-139.
- 이수림, 이문희 (2018). 한국판 정신화 척도(Korean Version of The Mentalization Scale)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9(5), 117-135.
- 이수진, 김은석 (2021). 정신화 기반 치료의 연구 동향과 추후 과제. 사회과학연구논총, 27(2), 135-181.
- 이정하, 김지원, 하현주 (2022). 정신화기반치료의 치료체계와 근거: 체계적 문헌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8(1), 1-45.
- 이주영, 오경자 (2010). 청소년기 우울-비행 공존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및 성별의 효과: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의 적용.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1), 53-72.
- 이준형 (2014). 대학생의 갈등관리 유형과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윤, 김완일 (201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3), 269-288.
- 이창덕 (2019). 초디지털 사회 인간 의사소통의 덕목에 대하여. 교육문화연구, 25(1), 681-697.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4), 935-946.
- 이호섭 (2019). 정신화가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심리적 수용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황은 (2009). 또래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의사소통기술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민경, 이지혜, 이한나, 김태동, 최기홍 (2013). 근거기반실천과 심리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251-270.
- 장현주, 임나영 (2022). 마음이론에 근거한 자폐스펙트럼 장애(ASD) 성인 집단미술치료 사례: 사회적 상호작용 및 정서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치료학회지, 22(2), 133-153.
- 정광호 (2023).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와 의사소통의 순차매개효과.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다운, 정성은, 장혜정 (2022). 팬데믹 시기의 대인소통과 관계 친밀감 변화. 한국소통학보, 21(1), 203-243.
- 정지현, 탁진국 (2023). 끈대경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코칭, 7(3), 153-196.
- 정희선, 조민아 (2014).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2), 153-182.
- 조미형, 고아라, 최하영 (2023). 청년의 사회적 고립 척도 타당화 연구: 잠재프로파일 분석. 미래사회복지연구, 14(3), 153-177.
- 조상현 (2023). 코로나 시대가 한국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동범, 임성택 (2009). 청소년의 문제행동 경험이 가출경험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 51-72.
- 차혜명 (2018). 한국형 성찰기능척도의 타당화 연구: 초기방임과 경계선 성격성향간의 관계에서 유기도식과 정신화의 역할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혜명, 김은영 (2016). 정신화(mentalization) 개념을 통한애착 이론과 정신 분석의 재조명: 정신화의 경험적 기반과 측정의 임상적 함의. 한국심리학회지:일반, 35(1), 167-190.
- 최연실, 최혜진, 안연주 (2011). 부모양육태도, 자기통제력 및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4), 113-133.
- 최은정 (2020). 대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의 이중매개효과.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현아, 송현주 (2017). 청소년의 대인간 외상경험이 품행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8(3), 179-208.
- 최현주 (2020). 초등교사 일터영성과 직무소진의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학생변인의 차이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6(1), 151-176.
- 최현주, 남숙경 (2021). 대학생의 자기애와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잠재프로파일 분석: SNS 중독경향성 및 자기대상 경험과의 관련성. 人間理解, 42(2), 35-57.
- 최현주, 장은비 (2021). 학교조직풍토와 교사 소진의 관계:특수교사가 지각한 학교조직풍토의 잠재프로파일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8(3), 291-316.
- 최현주, 조민희 (2014).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학습동기 변화의 잠재프로파일 분

- 류 및 영향요인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1), 253-274.
- 최희숙, 주영아 (2020). 여대생의 경계선 성격특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와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3), 585-610.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1). 코로나 시대 Z세대 청소년의 대인관계: 연결되어 있으나 고독한.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4, 1-13.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2).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http://kstss.kr/?p=2772>.
- 한은주, 최경숙 (2008). 마음이론에 대한 아동의 암묵적 이해. 아동학회지, 29(1), 103-113.
- 허자연, 문혁준 (2022). 유아의 자기조절력,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유아의 배려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0), 71-84.
- 황나리, 송현주 (2021). 청소년의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 능력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21(3), 1295-1307.
- 홍상환, 김영환 (1999). 대인관계 평가도구의 표준화연구. 성격논총, 30(3), 537-594.
- Ainsworth, M.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Aival-Naveh, E., Rothschild-Yakar, L., & Kurman, J. (2019). Keeping culture in mind: A systematic review and initial conceptualization of mentalizing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26(4), e12300.
- Allen, J. G. (2008). *Mentalizing in clinical practice*, American Psychiatric Pub.
- Allen, J. G. (2013). *Restoring mentalizing in attachment relationships treating trauma with ain old therapy*. 최희철 역(2019). 심리상담효과의 비밀 애착 정신화하기 인간중심의 상담. 서울: 학지사.
- Allen, J. G. (2018). *Mentalizing in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attachment trauma*. Routledge.
- Allen, J. G. (2020). *Mentalizing in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Attachment Trauma*. 이문희, 김수임, 이수림 공역 (2021). 애착외상의 발달과 치료. 서울: 박영story.
- Allen, J. G., Fonagy, P., & Bateman, A. (2008a). The role of mentalization in treating attachment trauma, in the impact of early life trauma on health and disease : The hidden epidemic. Cambridge, UK, Cambridge

- University Press.
- Allen, J. G., Fonagy, P., & Bateman, A. W. (2008). *Mentalizing in clinical practice*. American Psychiatric Pub.
- Anderson, J., & Gerbing, D.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411-423.
- APA Presidential Task Force on Evidence-Based Practice. (2006). Evidence-Based Practice in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61*(4), 271-285.
- Arnett, J. J. (2013). *Emerging adulthood*. doi: 10.1177/2167696812466842
- Arnsten, A. F. T. (1998). The biology of being frazzled. *Science*, *280*, 1711-1712.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 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 Baron-Cohen, S. (2003). *The essential difference: male and female brains and the truth about autism*, New York, Basic Books.
- Baron-Cohen, S., Leslie, A. M., & Frith, U. (1985). Does the autistic child have a “theory of mind”? *Cognition* *21*(1): 37-46.
- Bateman, A. W., & Fonagy, P. (2004). *Psychotherapy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Oxford University Press.
- Bateman, A. W., & Fonagy, P. (2006). *Mentalizing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Handbook of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183-200.
- Bateman, A. W., & Fonagy, P. (2010). Mentalization based treatment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World psychiatry* *9*(1), 11-15.
- Bateman, A. W., & Fonagy, P. (2012). *Handbook of mentalizing in mental health practice*. Washington: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Bateman, A. W., & Fonagy, P. (2012).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노경선정신치료연구회 역(2017). 정신화 중심의 경계성 인격장애의 치료. 서울: NUN
- Bateman, A. W., & Fonagy, P. (2015).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mood disorders: Mentalizing as a framework for integrated treatmen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1(8), 792-804.

- Bateman, A. W., & Fonagy, P. (2019).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a mentalization-based intervention (MBT-FACTS) for families of people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10(1), 70-79.
- Bateman, A. W., & Fonagy, P. (2019).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mentalizing. *Contemporary Psychodynamic Psychotherapy: Evolving Clinical Practice*, 133-148.
- Bateman, A., & Fonagy, P. (2004).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of BPD.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8(1), 36-51.
- Bateman, A., & Fonagy, P. (2013).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Psychoanalytic Inquiry*, 33(6), 595-613.
- Belvederi Murri, M., Ferrigno, G., & Penati, S. (2017). Mentaliz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a clinical sample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22(2), 69-76.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ergman, L. R., & Magnusson, D. (1997).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2), 291-319.
- Blakemore, S. J., & Mills, K. L. (2014). Is adolescence a sensitive period for sociocultural process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5(1), 187-207.
- Bouchard, M.-A., Target, M., Lecours, S., Fonagy, P., Tremblay, L.-M., Schachter, A., & Stein, H. (2008). Mentalization in adult attachment narratives: Reflective functioning, mental states, and affect elaboration compared. *Psychoanalytic psychology*, 25(1), 47.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Random House.
- Braehler, C., & Schwannauer, M. (2012). Recovering an emerging self: Exploring reflective function in recovery from adolescent-onset psychosis.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85(1), 48-67.
- Brown, K. W., & Ryan, R. M. (2003). The benefits of being present:

- mindfulness and its role i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4), 822.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Cartes, C. S. (1998). Neuroendocrine perspectives on social attachment and love. *Psycho Neuroendocrinology*, 23(8), 779-818.
- Cassidy, J. (1994). Emotion regulation: Influenc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228-249.
- Castonguay, L. G., & Beutler, L. E. (2006). Principles of therapeutic change: A task force on participants, relationships, and techniques factor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6), 631-638.
- Chiesa, M., & Fonagy, P. (2014). Reflective function as a mediator between childhood adversity, personality disorder and symptom distress.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8(1), 52-66.
- Choi-Kain, L. W., & Gunderson, J. G. (2008). Mentalization: Ontogeny, assessment, and application in the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5(9), 1127-1135.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126
- Davis, M. H. (1983). The effects of dispositional empathy on emotional reactions and helping: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51(2), 167-184.
- Davidson, K. M., Obonsawin, M. C., Seils, M., & Patience, L. (2003). Patient and clinician agreement on personality using the SWAP-200.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7(3), 208-218.
- Derryberry, D., & Rothbart, M. K. (1997). Reactive and effortful processes in the organization of tempera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4), 633-652.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
- Dimaggio, G., Lysaker, P.H., Carcione, A., & Nicolò, G. (2008). Know yourself and you shall know the other... to a certain extent: multiple

- paths of influence of self-reflection on mindreading." *Consciousness and cognition*, 17(3), 778-789.
- Dimitrijević, A., Hanak, N., Dimitrijević, A., & Marjanović, Z. (2017). The mentalization scale(Ments): A self-report measure for the assessment of mentalizing capac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00, 268-280.
- Duval, J., Ensink, K., Normandin, Lk, Sharp, C., & Fonagy, P. (2018). Measuring Reflective Functioning in Adolescents: Relations to Personality Disorders and Psychological Difficulties. *Adolescent Psychiatry*, 8(1), 5-20.
- Fonagy, P. (1991). Thinking about thinking: Some clinical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the treatment of a borderline pati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72(4), 639-656.
- Fonagy, P. (2001). *Attachment theory and psychoanalysis*. New York: Other Press.
- Fonagy, P. (2001). The human genome and the representational world: The role of early mother-infant interaction in creating an interpersonal interpretive mechanism.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65(3: Special issue), 427-448.
- Fonagy, P., & Bateman, A., (2006). Mechanisms of change in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of BPD.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4), 411-430.
- Fonagy, P., Bateman, A., & Luyten, P. (2012). Introduction and overview. In a. Bateman & P.Fonagy (Eds), *Handbook of mentalizing in mental health practice*(pp. 3-41). Arlington, VA: Americal Psychiatric Publishing, Inc.
- Fonagy, P., Gergely, G., Jurist, E. L., & Target, M. (2002).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elf*. Other Press.
- Fonagy, P., Gergely, G., & Jurist, E. L.. (2018).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Routledge.
- Fonagy, P., Gergely, G., & Target, M. (2007). The parent-infant dyad and the construction of the subjective self.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8(3-4), 288-328.

- Fonagy, P., Leigh, T., Steele, M., Steele, H., Kennedy, R., Mattoon, G., Target, M., & Gerber, A. (1996). The relation of attachment status, psychiatric classification, and response to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1), 22–31. <https://doi.org/10.1037/0022-006X.64.1.22>
- Fonagy, P., & Luyten, P. (2009). A developmental, mentalization-based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4), 1355–1381.
- Fonagy, P., Luyten, P., & Bateman, A., (2017). Treating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with psychotherapy: where do we go from here?. *JAMA psychiatry, 74*(4), 316–317.
- Fonagy, P., Luyten, P., Moulton-Perkins, A., Lee, YW. (2014). *Development, attachment, and childhood experiences*. The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textbook of personality disorders: 55–77.
- Fonagy, P., Luyten, P., Moulton-Perkins, Lee, YW. (20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of mentalizing: The reflective functioning questionnaire. *PloS one 11*(7): e0158678.
- Fonagy, P., Luyten, P., & Strathearn, L. (2011).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mentalization, and the neurobiology of attachment.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2*(1), 47–69.
- Fonagy, P., Steele, M., & Steele, H. (1991). The capacity for understanding mental states: The reflective self in parent and child and its significance for security of attachment.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2*(3), 201–218.
- Fonagy, P., & Target, M. (1996). Playing with reality: I. Theory of mind and the normal development of psychic re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77*, 217–233.
- Fonagy, P., & Target, M. (1997). Attachment and reflective function: Their role in self-organiz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4), 679–700.
- Fonagy, P., & Target, M. (2000). Playing with reality: III. The persistence of dual psychic reality in borderline patients. *The International*

- journal of psycho-analysis*, 81(5), 853.
- Fonagy, P., & Target, M. (2002). Early intervention and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Psychoanalytic Inquiry*, 22(3), 307-335.
- Fonagy, P., Target, M., Steele, H., & Steele, M. (1998). Reflective-functioning manual version 5 for application to adult attachment interviews.
- Gagliardini, G., Gullo, S., Caverzasi, E., Boldrini, A., Blasi, S., & Colli, A. (2018). Assessing mentalization in psychotherapy: First validation of the Mentalization Imbalances Scale. *Psychopathology*, 21, 164-177.
- George, C., Kaplan, N., & Main, M. (1985). Attachment interview for adult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George, C., Main, M., & Kaplan, N. (1996). Adult attachment interview. *Interpersona: An International Journal on Personal Relationships*.
- Gergely, G., & Watson, J. S. (1996). The social biofeedback model of parental affect-mirror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77(6): 1181.
- Gagliardini, G., & Colli, A. (2019). Assessing mentalization: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Modes of Mentalization Scale. *Psychoanalytic Psychology*, 36(3), 249.
- Greenberg, D. M., Kolasi, J., Hegsted, C. P., Berkowitz, Y., & Jurist, E. L. (2017). Mentalized affectivity: A new model and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PloS one*, 12(10), e0185264.
- Gullestad, F. S., & Wilberg, T. (2011). Change in reflective functioning during psychotherapy—A single-case study." *Psychotherapy Research*, 21(1), 97-111.
- Gunderson, J. G., & Zanarini, M. C. (1987). Current overview of the borderline diagnosis.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48, 5-14.
- Ha, C., Sharp, C., Ensink, K., Fonagy, P., & Cirino, P. (2013). The measurement of reflective function in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borderline traits." *Journal of adolescence*, 36(6), 1215-1223.
- Hausberg, M. C., Schulz, H., Piegler, T., Happach, C. G., Klöpffer, M., Brütt, A. L., Sammet, I., & Andreas, S. (2012). Is a self-rated instrument appropriate to assess mentalization in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 Development and first validation of the Mentalization Questionnaire (MZQ). *Psychotherapy Research*, 22(6), 699-709.
- Hesse, E. (2008).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rotocol, method of analysis, and empirical studies.
- Hill, E. J., Erickson, J. J., Holmes, E. K., & Ferris, M. (2010). Workplace flexibility, work hours, and work-life conflict finding an extra day or two.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4(3), 349
- Hill, J., Murray, L., Leidecker, V., & Sharp, H. (2008). The dynamics of threat, fear and intentionality in the conduct disorders: longitudinal findings in the children of women with post-natal depression.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63(1503), 2529-2541.
- Hipp, J. R., & Bauer, D. J. (2006). Local solutions in the estimation of growth mixture models. *Psychological methods*, 11(1), 36.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Hubbard, J. A., Smith, M. A., & Rubin, R. M. 2013, "Use of latent profile analysis to assess the validity of a peer-rejected group of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42(6): 843-854. doi:10.1080/15374416.2013.804410
- Huprich, S. K., Bornstein, R. F., & Schmitt, T. A. (2011). Self-report methodology is insufficient for improving th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of axis II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5(5), 557-570.
- Jacobs, J. E. & Paris, S. G.(1987). Children's metacognition about reading: Issues in definition, measurement, and instruc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22(3-4), 255- 278.
- Jung, T., & K. A. Wickrama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Katznelson, H. (2014). Reflective functioning: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 review*, 34(2), 107-117.
- Kernberg, O. (1967). Borderline personality organiz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15(3), 641-685.
- Kohn, N., Eickhoff, S. B., Scheller, M., Laird, A. R., Fox, P. T., & Habel, U. (2014). Neural network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 ALE meta-analysis and MACM analysis. *Neuroimage*, 87, 345-355.
- Laible, D. (2004). Mother-child discourse in two contexts: links with child temperament, attachment security, and socioemotion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0(6), 979.
- Lange, J., Geiser, C., Wield, K. H., & Schöttke (2012). Screening for personality disorders: A new questionnaire and its validation using Latent Class Analysis. *Psychological Test and Assessment Modeling*, 54(4), 323-342.
- Larson, R. W., Wilson, S., Brown, B. B., Furstenberg, Jr, F. F., & Verma, S. (2002). Changes in adolescents' interpersonal experiences: Are they being prepared for adult relationships in the twenty-first centur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2(1), 31-68.
- Lemma, A., Target, M., & Fonagy, P. (2011). The development of a brief psychodynamic intervention (Dynamic Interpersonal Therapy) and its application to depression: A pilot study. *Psychiatry: Interpersonal & Biological Processes*, 74(1), 41-48.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 Luyten, P., & P. Fonagy (2015). The neurobiology of mentalizing.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6(4), 366.
- Luyten, P., Campbell, C., Allison, E., & Fonagy, P. (2020). The mentalizing approach to psychopathology: State of the art and future directions.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6, 297-325.
- Luyten, P., Houdenhove, B. V., Lemma, A., Target, M., & Fonagy, P. (2012). A mentalization-based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functional somatic disorders.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26(2), 121-140.
- Magnusson, D., Stattin, H., Damon, W., & Lemer, R. M. (1998). *Handbook of*

- child psychology: Vol. 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 Main, M., Hesse, E., & Goldwyn. (2008). *Studying differences in language usage in recounting attachment history: An introduction to the AAI.* In H. Steele & M. Steele (Eds.), *Clinical applications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31-68. The Guilford Press.
- McLachlan, G. J., & Peel, D. (2000). *Mixtures of factor analyzers.* In *Proceedings of the seven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 Merz, E. L., & Roesch, S. C. (2011).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the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Modeling trait interac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8), 915-919.
- Mills, K. L., Lalonde, F., Clasen, L. S., Giedd, J. N., & Blakemore, S. J. (2014).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social brain in late childhood and adolescence."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9*(1), 123-131.
- Morey, L. C. (1991).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Odessa, FL.
- Morey, L. C. (2014). Borderline features are associated with inaccurate trait self-estimations.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s and Emotion Dysregulation, 1*(4). <http://doi.org/10.1186/2051-6673-1-4>.
- Müller, S., Wendt, L. P., Spitzer, C., Masuhr, O., Back, S. N., & Zimmermann, J. (2022).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Reflective Functioning Questionnaire (RFQ).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04*(5), 613-627.
- Müller, S., Wendt, L. P., & Zimmermann, J. (202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ertainty About Mental States Questionnaire (CAMSQ): A self-report measure of mentalizing oneself and others. *Assessment, 30*(3), 651-674.
- Murri, M. B., Ferrigno, G., Penati, S., Muzio, C., Piccinini, G., & Innamorati, M. (2017). Mentaliz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a clinical sample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22*(2), 69-76.
- Muthén, B.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The Sage handbook of*

-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345(368): 106-109.
- Muthén, B. O. (2001).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New developments and techniq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sychology Press: 21-54.
- Muthén, B.,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 Muthén, L. K., & Muthén, B. (2007). Multilevel modeling with latent variables using Mplus. Unpublished manuscript.
- Neumann, C. S., Salekin, R. T., Commerce, E., Charles, N. E., Barry, C. T., Mendez, B., & Hare, R. D. (2023). Proposed Specifiers for Conduct Disorder (PSCD) scale: A Latent Profile Analysis with At-Risk Adolescents, *Research on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1-15. doi:10.1007/s10802-023-01126-0
- Neumann, C. S., Salekin, R. T., Commerce, E., Charles, N. E., Barry, C. T., Mendez, B., & Hare, R. D. (2024). Proposed Specifiers for Conduct Disorder(PSCD) scale: A Latent Profile Analysis with At-Risk Adolescents. *Research on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52(3), 369-383.
- Nooner, K. B., Litrownki, A. J., Thompson, R., Margolis, B., English, D. J., Knight, E. D., & Roesch, S. (2010). Youth self-report of physical and sexual abuse: A latent class analysis. *Child abuse & neglect*, 34(3), 146-154.
- Norcross, J. C., & Lambert, M. J. (2011). *Psychotherapy relationships that work II* (Vol. 48, No. 1, p. 4). Educational Publishing Foundation.
- O'connor, B. P. (2000). SPSS and SAS program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using parallel analysis and Velicer's MAP test.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2(3), 396-402.
- Paris, J. (2007). The nature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multiple dimensions, multiple symptoms, but one categor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21(5). 457-473.

- Pett, M. A., Lackey, N. R., & Sullivan, J. J. (2003). Making sense of factor analysis: The use of factor analysis for instrument development in health care research, sage.
- Rice, F., Frederickson, N., & Seymour, J. (2011). Assessing pupil concerns about transition to secondary school.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2), 244-263.
<https://doi.org/10.1348/000709910X519333>
- Robin, A., Rafaële, J. C. H., Marie-Louise, M., & Henk, A. L. K. (2019), Assessing the application of latent class and latent profile analysis for evaluating the construct validity of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autions and European Journal limitations, *Psychotraumatology, 10*(1): 1-11.
 doi: 10.1080/20008198.2019.1698223
- Rossouw, T. I., & Fonagy, P. (2012).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for self-harm in adolescent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51*(12), 1304-1313. e1303.
- Schwab, K.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2017).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서울: 메가스터디.
- Schwarzer, N.-H., Nolte, T., Fonagy, P., & Gingelmaier, S. (2021). Mentalizing and emotion regulation: Evidence from a nonclinical sample. *International forum of psychoanalysis, Taylor & Francis*, 34-45. <https://doi.org/10.1080/0803706x.2021.1873418>
- Schwarzer, N.-H., Nolte, T., Fonagy, P., & Gingelmaier, S. (2021). Mentalizing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emotional abuse in childhood and potential for aggression in non-clinical adults. *Child abuse & neglect, 115*, 105018.
- Schwarzer, N.-H., Nolte, T., Fonagy, P., & Gingelmaier, S. (2022). Self-rated mentalizing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coping in a non-clinical sample. *Psychological Reports, 125*(2), 742-762. <https://doi.org/10.1177/0033294121994846>
- Sclove, S.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 333-343.

- Shapiro, S. L., Carlson, L. E., Astin, J. A., & Freedma, B. (2006). Mechanisms of mindfulnes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3), 373-386.
- Sharp, C. and S. Sieswerda (2013). The social-cognitive basis of borderline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introduction.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7*(1), 1-2.
<https://doi.org/10.1521/pedi.2013.27.1.1>
- Shaver, P. and C. Hazan (1987). Being lonely, falling in love.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2), 105.
- Shaver, P. R., Lavy, S., Saron, C. D., & Mikulincer, M. (2007). Social foundations of the capacity for mindfulness: An attachment perspective. *Psychological Inquiry, 18*(4), 264-271.
- Shaver, P., & Hazan, C. (1987). Being lonely, falling in love.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2), 105.
- Skårderud, F. (2007). Eating one's words, part II: The embodied mind and reflective function in anorexia nervosa—theory.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The Professional Journal of the Eating Disorders Association, 15*(4), 243-252.
- Slade, A. (2005). Parental reflective functioning: An introduction.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7*(3), 269-281.
- Smith-Adcock, S., Tucker, C. (2017). *Counseling children and adolescents: Connecting theory, development, and diversity*. 서영석, 김정민, 신윤정, 이승연, 하정희 공역 (2019). 아동청소년 상담 : 이론, 발달 및 다양성의 연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 Steele, M., Murphy, A., & Steele, H. (2015). The art and science of observation: Reflective functioning and therapeutic action. *Journal of Infant, Child, and Adolescent Psychotherapy, 14*(3), 216-231.
- Strein, W. (2006). Self-concept and learning disabilities: The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results.
- Taubner, S., & Curth, C. (2013). Mentalization mediates the relation between early traumatic experiences and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ce. *Psihologija, 46*(2), 177-192.
- Taubner, S., White, L. O., Zimmermann, J., Fonagy, P. & Nolte, T. (2012).

- Mentalization moderates and mediates the link between psychopathy and aggressive behavior in male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60(3), 605-612.
- Taubner, S., White, L. O., Zimmermann, J., Fonagy, P., & Nolte, T. (2013). Attachment-related mentalization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pathic traits and proactive aggress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1, 929-938.
- Tein, J. Y., Coxe, S., & Cham, H. (2013). Statistical power to detect the correct number of classes in latent profile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0(4) 640-657.
- Trull, T. J., Ueda, J. D., Conforti, K., & Doan, B. T. (1997).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nonclinical young adults: 2. Two-year outcom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2), 307.
- Wallin, D. J. (2010). *Attachment in Psychotherapy*. 김진숙, 이지연, 윤숙경 공역. 애착과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 Wampold, B. E., & Imel, Z. E. (2015). *The great psychotherapy debate: The evidence for what makes psychotherapy work*. Routledge.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
- Wellman, H. M. (1992). *The child's theory of mind*. The MIT Press.
- Wentzel, K. R. (2003). "Sociometric status and adjustment in middle school: A longitudinal study."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3(1), 5-28.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안현숙입니다.

본 설문은 14~24세의 재학중인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비임상 청소년 집단의 성찰기능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입니다. 참여해주신 설문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화 연구 활성화와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본 설문에는 경계선 성격성향(예: 화가 나면 거의 통제할 수 없다, 갑자기 감정이 격해진다)이나 간이정신건강진단지(남들이 나를 쳐다보거나 나에게 관해 이야기할 때는 거북해진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 같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불안이나 불편감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참여하지 않으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설문 과정 중에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실 경우, 아래에 기재된 연구자에게 연락주시면 바로 도움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시 작성한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기록되지 않으며 모든 설문의 내용은 숫자로만 표기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에 필요한 시간은 약2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설문 도중 피로감을 느끼신다면, 잠시 쉬거나 응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시간을 자율적으로 할애할 수 있습니다. 본 설문 참여 시 본인동의(성명, 사인, 날짜)가 진행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반드시 사전부모동의(성명, 사인, 날짜)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설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에게 편의점 상품권을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본 설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시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문 결과는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보관되며, 수집된 정보는 연구 종료 3년 후 폐기될 예정입니다.

모든 질문은 맞고 틀린 정답이 없으니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대로 솔직히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심리적 불편감이 나타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연구책임자: 안현숙

응답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불편감이 느껴질 경우, 도움받으실 사이트 및 전화번호를 다시 한 번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연구자에게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9월

※ 다음은 여러분에 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반드시** 기록하여 주십시오.

성별: 남() / 여()	나이: ()세
학교급: 중() / 고() / 대()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1. 예비성찰기능척도

다음 문항은 여러분들의 평상시 감정, 생각, 태도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의깊게 읽으신 후, 본인과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항목의 해당 숫자를 선택하여 O표 해주시면 됩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화가 나면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른 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화가 나면 나중에 후회할 말을 곧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격한(강한) 감정은 종종 내 생각을 흐리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가끔 말을 해 놓고 나중에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가끔 영문(이유)도 모른 채 어떤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왜 그 행동을 했는지 항상 알지는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종종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하여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와 가까운(친한) 사람들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자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9	사람들은 내가 어떤 특정한 감정(예: 화)을 갖고 행동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 감정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0	누가 내 마음상태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할지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른 사람들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해보려 해도 안된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무엇이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내게 참으로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확신이 없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불안해지면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끔 행동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뭔가를 느낀다는 것은 알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대부분 예측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사람에 대한 나의 느낌은 틀린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부분 정확하게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곧잘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잘 파악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친한 친구들(혹은 가족,연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안다	①	②	③	④	⑤
23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 직감은 정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24	어떤 사람과 몇 마디 얘기만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과 경험에 따라 같은 상황도 매우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해 보는 것은 내가 그들을 용서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 속 숨겨진 의미에 대해 자주 궁금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내 행동이 타인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29	논쟁을 할 때도, 나는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에 대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가까운(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 나와 어떻게 다를지 생각해봄으로써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처지에서도 살펴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누군가의 행동을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의 사고, 소망, 그리고 느낌을 알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항상 사람들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관심이 있어 왔다	①	②	③	④	⑤
36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삶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 마음챙김 다요인 척도

다음 문항을 주의깊게 읽으신 후 본인과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항목의 해당 숫자를 선택하여 O표 해주시면 됩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잘 집중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사람들(부모, 친구, 선생님 등) 사이의 묘한 분위기를 잘 알아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친구나 선생님의 독특한 특징을 잘 잡아낸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알고자 하고, 경험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자신을 대견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현재(지금 이 순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싫건 좋건 어떤 경험이든지,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질 때, 나는 그 일에만 집중(몰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현재(지금 이 순간) 나의 모습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운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미래를 걱정하기 보다 현재(지금 이 순간)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장시간 어떤 것에 주의를 잘 기울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과거에 대해 후회하거나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보다, 현재(지금 이 순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나의 경험을 토대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내가 어떤 일에 집중을 잘 한다는 얘길 주위 사람들(부모, 친구, 선생님)에게 종종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그때 그 순간, 그때 그 상황에 대해 분위기 파악을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학생으로서 지금의 내 모습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 자신과 나의 삶에서 자극을 줄 만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ANAS)

다음의 각 단어는 기분이나 감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각 단어를 읽고, 현재를 포함하여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의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 숫자에 O표 해 주시면 됩니다.

번호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흥미진진한	①	②	③	④	⑤
2	과민한(짜증스러운)	①	②	③	④	⑤
3	괴로운	①	②	③	④	⑤
4	기민한(맑고 머리가 깨어 있는 듯한 초롱초롱한 기분)	①	②	③	④	⑤
5	신난(흥분된)	①	②	③	④	⑤
6	부끄러운	①	②	③	④	⑤
7	마음이 상한	①	②	③	④	⑤
8	원기왕성한	①	②	③	④	⑤
9	강한	①	②	③	④	⑤
10	신경질적인	①	②	③	④	⑤
11	죄책감드는	①	②	③	④	⑤
12	단호한	①	②	③	④	⑤
13	겉에 질린	①	②	③	④	⑤
14	주의깊은	①	②	③	④	⑤
15	적대적인	①	②	③	④	⑤
16	조바심나는(초조한)	①	②	③	④	⑤
17	열정적인	①	②	③	④	⑤
18	활기찬	①	②	③	④	⑤
19	자랑스러운	①	②	③	④	⑤
20	두려운	①	②	③	④	⑤

4. 부모애착척도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님(또는 부모님처럼 돌봐주신 분)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현재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과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항목의 해당 숫자를 선택하여 O표 해주시면 됩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부모님은 나의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본분을 다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분이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에게 나의 감정을 드러내보야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알아차리신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과 함께 나의 문제를 상의할 때 나는 수치스럽고 바보같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부모님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쉽게 기분나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기분나쁜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어떤 일에 대해 상의할 때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고려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부모님은 나의 판단을 신뢰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로 부모님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부모님께 나의 어려움과 근심(걱정)거리에 대해 말씀드린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부모님에게 분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우리 부모님을 신뢰한다(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23	우리 부모님은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의 마음이 부담을 떨쳐버리고 싶을 때 부모님께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만약 부모님께서 내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걸 아신다면 나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보신다	①	②	③	④	⑤

5. 경계선 성격특성 척도(PAI-BOR)

다음은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을 자세히 읽고, 여러분의 경험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O표 해 주시면 됩니다.

번호	문 항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항상 행복한 사람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2	매우 친한 사람과 떨어져 지내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친구로 삼았던 사람들에게 여러 번 실수를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5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분노를 느낀 적이 여러 번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쉽게 싫증을 느끼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신중하게 돈을 쓴다	①	②	③	④
8	내 기분은 매우 갑작스럽게 변한다	①	②	③	④
9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태도가 많이 바뀐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변덕스럽다	①	②	③	④
11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12	갑자기 감정이 격해진다	①	②	③	④
13	때때로 공허하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14	사람들이 나를 속상하게 하면 어떤 식으로든 알려주고 싶다	①	②	③	④
15	혼란스러우면 으레 나에게 해로운 행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16	내 기분은 잘 바뀌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7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봐 많이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18	한때 친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9	내 이익을 위해서는 매우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20	화가 나면 거의 통제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21	때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22	외롭다는 느낌은 없다	①	②	③	④
23	나는 돈을 너무 헤프게 쓴다	①	②	③	④

6. 간이정신건강진단지(SCL-47)

다음은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로 인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문항을 자세히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문항의 숫자에 O표 해주시면 됩니다.

번호	문항	전혀 없다	약간 있다	보통 이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1	이성을 대하면 어색하거나 부끄럽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게 불친절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남들이 나를 쳐다보거나 나에게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불편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나의 말과 행동에 신경을 쓰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시장이나 극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거북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기가 거북하다	①	②	③	④	⑤
8	낮익은 것들도 생소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거나 나에게 관해서 쑥덕거리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사람들이 내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그냥 두면 사람들에게 내가 이용당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2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7. 학교생활적응척도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자세히 읽고, 여러분 자신의 생활과 가장 일치된다고 여기는 문항의 숫자에 O표 하시면 됩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수업시간에 배우 내용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학교에서 배운 학습내용을 잘 익힐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하던 공부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발표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노력만 하면 지금보다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학교공부는 내가 성숙된 인간으로 커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7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8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9	학교에는 재미있는 친구가 많다	①	②	③	④
10	학교친구들과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①	②	③	④
12	나와 함께 놀아줄 학교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모둠활동을 할 때 협조를 잘 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5	우리 반(학과) 친구가 학습준비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으면 함께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학교 친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한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반(학과) 친구가 이야기할 때 귀담아 잘 듣는다	①	②	③	④
18	나에게는 고민을 나눌 학교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19	선생님(교수님)들은 배울 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20	선생님(교수님)들은 대체로 학생들에게 잘해주시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1	선생님(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22	이번 학년에 만난 선생님(교수님)들은 대체로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23	우리 학교 선생님(교수님)들은 대체로 가까이 대하기가 편하다	①	②	③	④
24	우리 학교에는 친구처럼 재미있는 선생님(교수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25	고민이 있으면 상담하고 싶은 선생님(교수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26	내 마음속의 비밀을 선생님(교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27	나는 선생님(교수님)들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8	우리 학교에는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교수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29	나는 화장실이나 수도 등 학교시설을 아껴서 사용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30	학교 규칙은 학생들이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잘 지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31	나는 학교 안에서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2	나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①	②	③	④
33	나는 학교 물건을 내 물건처럼 조심스럽게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34	나는 학교의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35	나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36	나는 요즈음 학교생활이 즐겁고 유쾌하다	①	②	③	④
37	나는 우리 학교의 특별한 행사(소풍, 축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38	나는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부록 2>

■ 비임상군 청소년용 성찰기능척도

다음 문항은 여러분의 평상시 감정, 생각, 태도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의깊게 읽으신 후, 본인과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항목의 해당 숫자를 선택하여 O표 해주시면 됩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화가 나면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른 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끔 말을 해 놓고 나중에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가끔 영문(이유)도 모른 채 어떤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왜 그 행동을 했는지 항상 알지는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종종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하여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와 가까운(친한) 사람들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자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7	사람들은 내가 어떤 특정한 감정(예: 화)을 갖고 행동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 감정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누가 내 마음상태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할지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사람들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해보려 해도 안된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무엇이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내게 참으로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확신이 없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불안해지면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끔 행동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뭔가를 느낀다는 것은 알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대부분 예측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사람에 대한 나의 느낌은 틀린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부분 정확하게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곧잘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잘 파악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친한 친구들(혹은 가족,연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안다	①	②	③	④	⑤
21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 직감은 정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22	어떤 사람과 몇 마디 얘기만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과 경험에 따라 같은 상황도 매우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해 보는 것은 내가 그들을 용서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 속 숨겨진 의미에 대해 자주 궁금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내 행동이 타인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27	논쟁을 할 때도, 나는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에 대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가까운(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 나와 어떻게 다를지 생각해봄으로써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처지에서도 살펴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누군가의 행동을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의 사고, 소망, 그리고 느낌을 알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항상 사람들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관심이 있어 왔다	①	②	③	④	⑤
34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삶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ABSTRACT

Development of a Reflective Functioning Questionnaire for Non-Clinical Adolescents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An, Hyon-Suk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As interest in mentalization has grown, a recent study in Korea has focused on developing a counseling program that incorporates mentalization, responding to increasing demands for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mentalization abilities. Mentalization is a dynamic concept encompassing various interacting dimensions, as defined by Fonagy and colleagues who operationalized it through the concept of reflective functioning. This study respects their terminology and framework,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reflective functioning's components as articulated by Fonagy et al. (2016), which include uncertainty and certainty regarding mental states.

However, recognizing the need for a more nuanced assessment beyond mere failure, this research draws from Park Min-kyung's work (2019) to expand the reflective functioning to include a third sub-factor: interest or curiosity about mental states. This addition reflects a broader view that considers not only shortcomings but also successes in mentalization. Importantly, while certainty has been noted to potentially manifest maladaptively in clinical contexts, its interpretation in non-clinical group of adolescents remains complex, potentially adaptive in some circumstances, thereby necessitating

empirical investigation.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a reflective functioning scale tailored for comprehensive non-clinical adolescents. Participants included individuals aged 14 to 24, encompass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s well as those in the early stages of adulthood, aligning with relevant youth legislation such as the Basic Youth Act and the Youth Welfare Act. The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by adding three sub-factors of the developed reflection function scale for non-clinical group adolescents and two sub-factors, borderline personality orientation and mindfulness. Through this, it is intended to verify the discrimination validity of the certainty factor and to confirm the possibility as a tool to identify the reflection ability of adolescents in the adult entry period.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parent attachment,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was analyz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ssified potential group. The main research results shown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omposed a total of 36 preliminary questions through review of previous studies, literature review, and expert's second content evaluation to develop and validate the reflective functioning scale.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t was rearranged into three factors (certainty, uncertainty, interest/curiosity) and 34 questions, and the fitness index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hi^2=919.522$, TLI=.902, CFI=.910, RMSEA=.050, and SRMR=.639, confirming that the overall measurement model was good. In addition, the reflective functioning scale for adolescents in the non-clinical group was found to be a valid tool through the results of convergence, discrimination validity, and coexistence validity. As a result of convergence and discrimination validity, uncertainty factors were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negative emotions ($r=0.59$, $p<.01$), interpersonal sensitivity ($r=.57$, $p<.01$), paranoia ($r=.54$, $p<.01$), and somewhat negative correlation with mindfulness

($r=-.29$, $p<.01$), and school life adaptation ($r=-.28$, $p<.01$). The certainty factor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indfulness ($r=.30$, $p<.01$). The factors of interest/curiosity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mindfulness ($r=.41$, $p<.01$) and school life adaptation ($r=.24$, $p<.01$). As a result of the coexistence validity, the uncertainty factor was found to have a somewhat high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borderlin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r=.581$, $p<.01$).

Second, in the study of Fonagy and colleagues, the certainty factor was developed as a construct to measure the failure of the reflective functioning targeting the clinical group. However, as a result of previous studies, the certainty factor showed little relationship with mentalization difficulty (MZQ) (Min-kyung Park, 2019), and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 and other reflection factors corresponding to the success of mentalization (Se-mi Park, Nam-woon Jung, 2019). Judging from these findings, the need for empirical research on whether the certainty factor represents the adaptive aspect of the reflective functioning in the non-clinical group or reflects the maladaptive aspect. Accordingly, in order to closely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the certainty factor, a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by adding three factors of the reflective functioning and two sub-factors of borderline personality tendency and mindfulness. As a result of the latent profil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certainty factor reflected the adaptive aspect in the non-clinical group of adolescents.

Third, latent profile analysis identified six distinct groups based on their levels of reflective functioning: Class 1 (insensitive isolation group), Class 2 (conformative adaptation group), Class 3 (certain adaptation group), Class 4 (uncertain confusion group), Class 5 (potential unstable control group), and Class 6 (unstable control group). Notably, findings suggest that appropriate attention and intervention are needed for adolescents in groups characterized by the unstable control group, the uncertain confusion control group, the

potential unstable control group, and the insensitive isolation group.

Fourth,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x potential groups classified, all four factors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fluence of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parent attachment, and school life adapta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advancing th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mentalization concepts in Korean contexts, providing a foundation for tailored interventions aimed at supporting adolescents experiencing difficulties due to lack of reflection function.

Key words: Mentalization, Reflective Functioning Questionnaire(RFQ), certainty, uncertainty, interest/curiosity, non-clinical adolescents, LPA(Latent profile analysis)